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呂 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西垞 柳根의 詩世界 研究

2018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趙 嬋 怡

# 西垞 柳根의 詩世界 研究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趙 嬋 怡


# 認 准 書

趙嬋怡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8年 5月

審査委員長 辛 泳 周 

審査委員 柳 浚 景 

審査委員 金 呂 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논문개요

朝鮮時代 漢詩史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기 중 하나는 穆陵盛世라고 불리는 宣祖·仁祖年間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시풍을 구사하였던 名詩人들이 대거 등장하여 조선시대의 漢詩史를 매우 풍성하게 장식하고 있다. 西垞 柳根(1549-1627) 또한 목릉성세의 인물 중 한 명으로 漢詩로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宣祖와 光海君, 2대의 임금 아래에서 6년간 대제학을 지내며 나라의 문장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실상 유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조선 중기의 내부적 정치 상황은 동·서인이 갈리는 등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혼란하였고, 외부적으로는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丁卯胡亂의 발발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웠다. 유근은 24세에 장원급제하고 사가독서자로 선발된 문장실력으로 중국 및 일본과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을 방비하는 內治에도 큰 공을 세웠다.

유근은 56세에 대제학이 되어 각종 공용문서를 작성하고 시를 선별하여 詩選集을 만들었으며 古文의 독서를 통해 그 당시의 文弊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광해군 때에 대제학으로 다시 임명되자 임란으로 폐지되었던 사가독서를 다시 실시하도록 건의하여 부활시켰다.

유근은 館閣派 文學의 宗匠으로서 文以載道의 문학의식을 바탕으로 스승 황정욱의 영향을 받아 강서시파의 詩作法을 체득하였다. 또한 중국의 문학가 중 한유를 존송하여 古文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강건한 기상의 시풍을 추구하였다.

유근은 『皇華集』이 간행될 정도로 황화시의 수준을 인정받았고 스스로도 외교시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시로 표현하는 등 철저한 관

료문인이었다. 한편, 그의 개인시의 특징은 개인적 고통의 해방을 소망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호연지기와 절조의 덕성을 기르는 등 본인의 삶과 문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데 있다.

유근은 최립과 윤근수 등 古文을 숭상하는 벗들과 교유하며 讀古文과 古文創作에 공감하였고, 대제학에 있으면서 이를 국가적 문장관으로 확장시키려 노력하였다. 조선 중기의 유일한 시선집인 『東人詩文』을 편찬하는데 앞장서서 조선의 한시를 정리하고, 조선 목릉성세의 고문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며 송시와 당시의 사이에서 그 특징을 모두 아우르려했다. 이렇듯 유근은 임진왜란의 혼란한 시기를 이겨내고 국가의 문장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바로 여기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 핵심되는 말

柳根, 穆陵盛世, 大提學, 古文, 韓愈, 館閣, 皇華詩, 鍛鍊, 精緻, 東人詩文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	3
3. 선행연구 검토 .....	5
II. 시대적 배경과 생애 .....	7
1. 時代的 背景 .....	7
2. 柳根의 삶 .....	11
1) 生涯 .....	11
2) 交遊關係 .....	18
가. 師承關係 .....	18
나. 交遊關係 .....	24
III. 유근의 문예활동과 문학의식 .....	42
1. 柳根의 文藝活動 .....	42
2. 柳根의 文學意識 .....	55
1) 官僚的 文學意識 .....	55
2) 江西詩派의 影響 .....	59
IV. 시세계의 특징 .....	65
1. 官僚的 面貌가 드러난 詩 .....	67
1) 外交詩-皇華詩로 드러난 自負心 .....	68
2) 愛國忠情과 責任感 .....	82
2. 個人 情感과 日常的 敘情 .....	92
1) 높은 氣象과 節操 .....	92

2) 戰爭의 아픔과 克服의 所望 .....	105
3) 日當的 그리움의 感性 .....	113
V. 文學사적 意義 .....	118
VI. 結論 .....	120
□ 참고문헌	
□ Abstract	

# I. 序論

## 1. 研究目的

詩는 언어가 발생한 뒤부터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할 만큼 감정 분출의 보편적 도구였다. 詩의 역사와 그 전개, 詩作의 기법들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무장하여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詩라도, 결국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창작·소비되고 있다. 詩는 곧 삶의 도중에 느끼는 인간의 여러 감정을 해소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30대에 이미 시에 밝았다는 孔子가 아시아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孔子는 인류보편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있었기에 가장 높은 차원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며 학문에 있어서 인간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을 통하여 인간성을 함양하는 경지까지 추구하였기에 몇 천 년 뒤의 후손들까지도 그의 가르침에 매료되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성의 회복과 유지는 인간 개개인이 어떠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든 간에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詩는 이렇듯 인간이 본능적으로 창조해 낸 장르인 탓에 시인의 인간성과 삶의 모습을 진실 되게 살펴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시대와 삶에 밀착되어 있는 한 인물을 연구하는데 한시 연구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한시의 창작의 동기는 개인의 감정 표출에만 있지는 않았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하던 문자였고, 한시는 특히 외교 관례와 형식상 중요한 소통의 도구였기에 한시는 국가 간의 외교적 공문서이자 외교 한시를 담당하였던 사신은 일개 개인으로서의 시인이 아니라 국가의 대리자로서 기능하였기에 관각 문학을 맡았던 시인은 그 특징이 이중성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 시대는 한시의 창작이 개인의 일상이자, 국가적 업무가 되어 있었기에 한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단련으로 한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어 한시의 발상지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이렇듯 국가적·시대적 당면 과제와 개인의 일상 및 감정이 한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한시는 당대 주요 관직에 올라 시대를 이끌어갔던 관료들의公私의 삶과 사유를 추정하는데 가장 생생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西垞 柳根(1549-1627)은 명종 때에 태어나 선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선조의 총애를 받고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한시, 특히 외교시로 인정받았던 관료이자 문인이었다. 뛰어난 문장력과 정치력으로 선조부터 인조까지 3대의 임금을 모시며 己丑獄事, 建儲議事件, 仁祖反正 등 내부적 혼란과 壬辰倭亂, 丁酉倭亂, 丁卯胡亂 등의 외침에 있어서 여러 역할을 도맡아 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하였던 인물이었다.

유근은 조선 宣祖朝와 光海君朝에 館閣의 문장을 대표하는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조선시대 館閣은 弘文館·藝文館으로 대체로 이 직임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문장의 감식이 밝고 올바르며 글재주를 갖춘 자라야 했다. 觀閣은 특히 국정을 논하고 사명을 주관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등 국가 예악제도의 중요부분을 관장했기에 나라의 문풍을 주도하고 또한 변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다.<sup>1)</sup> 그러므로 대제학의 선임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임명했던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혼란했던 이 시기에 선조는 이렇듯 중요한 자리인 대제학을 유근에게 제수하였고, 그는 문장 능력을 인정받아 이어지는 광해군 때에도 대제학을 역임하여 두 임금을 모셨으니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 번의 致仕와 당쟁으로 인한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제학은 물론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근의 인격과 재능이 시대적으로 절실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

1) 申福浩,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그러나 당대의 명망에 비하여 후대에 남아 있는 그에 대한 비평 및 연구 자료는 매우 소략하다. 유근의 삶은 실록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접해볼 수 있으며, 그를 회고하는 문인들의 기록에 짝막하게 남아있는데 불과하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관련 연구가 뒤늦게 서야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기에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文化史的으로는 가장 풍성한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혼란이 매우 극심했던 시대에 외교 사절 및 대제학으로 국내외적인 文章을 대리했던 유근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일개 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시대가 봉착한 고민과 당대 문학 경향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研究範圍와 研究方法

西峒 柳根의 문집인 『西峒集』은 유근의 문집으로 그의 外孫인 東沙 吳挺緯(1616-1692)가 산일되고 남은 유고와 『皇華集』에 실린 시를 수습하여 4권 2책으로 편차하여 1622년 간행하였다. 오정위의 부탁으로 宋時烈이 이 문집에 序文을 썼으며, 오정위가 직접 跋文을 작성하였다.

그 후 외증손 三陟 府使 金震標가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초간본에 빠진 館閣·應製文字, 碑文, 行狀, 疏筭 등을 수집하여 8권 3책으로 증보하여 1665년 중간하였다. 金震標는 직접 「西峒集識」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이 중간본은 규장각(奎4588), 연세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중앙도서관 晚松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연구본은 1665년 간행된 중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藏本이다.

『西峒集』은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2,3,4권이 詩集이다. 권1에는 五言 絕句, 律詩, 排律, 古詩가 실려 있고, 권2~3에는 七言 絕句, 律詩, 排律, 古詩가 차례로 편차되어 있으며, 4권은 『西峒皇華詩集』으로 외교 업무 중 지은 시만 모아 편찬하였다.

『西垞集』 5권부터는 文이 실려 있는데, 教1편 表1편 箋5편 文2편 雜著9편 儷文5편 雜著1편이, 『西垞集』 6권에는 序2편 記1편 跋4편 書7편이, 『西垞集』 7권에는 碑銘이 4편, 行裝이 2편이, 마지막으로 『西垞集』 8권에는 疏筭가 17편이 실려 있다.

현재까지 유근의 『西垞集』과 그에 대한 문학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연구 자료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유근은 정치가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았을 뿐더러, 당파를 떠나 여러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였기에 序文 및 跋文, 각종 書簡文 등이 현재 유근의 문집인 『西垞集』에 남아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았을 것이나 수습된 글들은 실제의 20~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시화나 비평론에서 柳根이 매우 단편적이며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유근 시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西垞集』 문학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은 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난제가 될 수밖에 없겠으나, 제한된 자료는 오히려 순정한 과정으로 인물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로지 한시의 분석을 위주로 하여 한편으로 치우쳐 왜곡된 인간의 원형을 균형 감각 있게 구축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漢詩라는 스펙트럼을 통하여 인물을 여러 방향에서 비추어 보고 인물의 외면과 내면을 고찰해나간다면 그 원형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근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통해 형성된 문학 활동과 문학 의식을 살펴보고,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晩松文庫藏本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와 관련 인물의 문집, 그리고 시화집의 자료를 바탕으로 『西垞集』 자료의 한계를 보완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유근의 삶과 시대적 배경, 문학의식을 통해 유근의 문학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교유관계를 통해서도 이들이 그의 문학과 삶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세계에 있어서는 크게 관료시와 개인시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서 달리 드러나는 유근의 의식을 분석해보고 활동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근이라는 인물이 漢詩史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 가능해보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검토

西垞 柳根과 관련된 연구는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종합적 연구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논문으로써, 김일환의 『임란기 서경 유근의 사환과 지방관 활동』·이숙경의 『조선 선조대 유근의 대외관계 활동』을 통해 유근의 대내외적인 정치 활동을 연구하였으며 류승우의 『서경 유근의 관계교유인맥과 인조반정세력 연구』는 유근의 교유관계를, 박병련의 『조선중기 엘리트관료의 정치사상적 특성』과 장숙필의 『서경 유근의 인물과 실천사상』은 유근의 사상적 측면을 연구하였다.

유근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동과제로 이루어진 박영민의 『유근의 문예활동과 시세계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박영민은 당대 중국 사신들이 유근이 지은 외교시를 극찬하였으며, 공용문 작성능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시화집, 필기, 잡록류 등에서는 냉소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을 소개하며 이는 관각파 문인에 대한 평가절하 분위기와 시문에 자부심이 대단하였던 유근의 개인적 성향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근의 문예관에 있어서는 古文을 중시하였던 태도를 소개하고 「玉峰集序」를 통해 당시풍과 송시풍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근의 시세계에 있어서는 ‘전쟁의 어려움과 복구’를 통해 전란 전후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를 소개하고 있으며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자하던 유근을 소개

하고 있으며, ‘스님과의 교유, 탈속의 그리움’을 통해 가족의 상실과 혹독한 참화를 겪으며 탈속을 지향하였던 유근의 시를 제시하고 세속을 떠나 휴식에 대한 염원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유근의 시문학을 연구한 박영민의 논문을 토대로 유근의 삶과 시세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 Ⅱ. 시대적 배경과 삶

### 1. 시대적 배경

西峒 柳根(1549~1627)이 살았던 宣祖에서 仁祖朝는 조선 초부터 이어진 학문과 문학 역량의 축적으로 인해 빼어난 인재들이 배출되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인재들의 우수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유가적 이상정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대립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이는 곧 본격적인 사림 정치의 시작으로 分黨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선조 7년, 유근이 사가독서를 하고 있던 이때에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대립하던 士林은 東人과 西人으로 나뉘었다. 서인에는 成渾과 李珥의 문인들이, 동인에는 李滉과 曹植의 문인들이 많았다. 귀족문벌이 정치 세력에서 물러나고, 지방의 사람들이 양반지배구조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의 정치는 사상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士林들은 성리학으로 무장하고 기존의 정치 세력을 비판하며 군주와 백성을 위한 이상적 정치 이상을 내세웠으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실제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만 쌓여갔다.

東人과 西人 간의 알력을 조정하려 노력했던 李珥가 사망한 뒤, 사림 간의 갈등은 격화되어 결국 1589년, 鄭汝立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己丑獄死가 발생하였다. 이때 서인이었던 鄭澈은 委官이 되어 많은 동인 인사들을 제거하였고 1591년 2월, 좌의정이었던 정철이 일으킨 建儲事件은 다시 서인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 건저사건을 두고 동인은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다시 南人과 北人으로 갈라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당파 간의 갈등이 최고조였던 이 때,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바로 壬辰倭亂의 발발이었다. 조선은 정계의 혼란으로 일본 침략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으며, 일본 침략을 주장한 몇몇 관리들의 의견은 당파라는 거대 논리에 묻히고 말았다. 이와 같이

지배층의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왜란을 맞이한 조선은 전투에서 번번이 패배하였다. 그러나 깨어있는 문무 관료들의 눈부신 활약과 명나라의 개입으로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동안 士林은 주자를 존송하고, 성리학적 세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꾸준히 성리학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데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선조 대에 이황, 이이, 기대승 등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를 배출하였다. 이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매우 차원 높은 수준의 철학적 사유를 경험하고, 토론을 통해 함께 공유·재창조하였으나 이러한 철학적 논변에는 조선의 현실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사회적 모순에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은 고도화되는 정치철학의 논변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倭亂을 겪은 후에도 이런 모순은 계속해서 이어져 왜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가던 시기에 다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민생은 파탄으로 치달았다.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詩壇은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유근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唐詩와 宋詩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어 걸출한 한시 작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조선만의 개성 있는 시에 대한 고민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던 것이다.

16세기 조선은 축적된 學唐의 성과가 최고조로 발현되던 때였다. 이러한 학당의 기틀은 15세기 후반, 여러 차례 士禍를 겪은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다. 이들은 훈구 관료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宋詩風 시에 반발하면서 사화로 인한 不平의 마음을 표출하고 性情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16세기 초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풍에 대한 관심과 창작 열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축적되어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당시풍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宣祖朝 唐風詩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樸淳·李後白·林悌·權鞞·許蘭雪軒 등과 당시풍의 최고 경지로 평가되는 三唐 詩人인 崔慶昌·白光勳·李達 등이 바로 이들이다.<sup>2)</sup>

16세기 후반, 이렇게 唐詩의 성과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조선 한시의 주류를 이루었던 學宋의 결과 또한 그 동안의 수준보다 더욱 뛰어나 절정을 이루었다. 조선에서 宋詩의 학습은 특히 黃庭堅·陳師道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李仁老·林椿 등 고려말의 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초 成三問·申叔舟·徐居正을 거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는 學宋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러한 宋詩 학습을 통해 15세기 후반 朴闇이라는 걸출한 시인이 등장하였으며, 16세기 초 李荇·鄭士龍 등을 거쳐 16세기 후반 黃廷彧·盧守愼 등이 출현하여 宋詩를 추구한 시인들 중에서도 江西詩派의 경향을 이어받은 海東江西詩派라는 하나의 詩流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江西詩派라는 명칭은 呂本中の 「江西詩派社宗派圖」에서 출발한 것으로 특별한 결사가 아닌, 黃庭堅·陳師道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경향의 시풍을 창작한 일군의 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江西詩派를 대표하는 黃庭堅은 중국문학사상 가장 송시적인 특질을 구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杜甫를 정점으로 한 옛 시인의 장점을 두루 섭렵하여 개성있는 詩作法을 제창하였다. ‘以俗爲雅’, ‘以古爲新’, ‘點綴成金’ 등의 작법을 활용하여 換骨奪胎의 模擬를 좋아하며, 요체를 자주 구사하며 用事를 자주 활용하고 기이함과 생경함을 숭상하며 律詩와 古詩를 중시하는 창작방법은 전대 문학적 전통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스로 一家를 이루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황정견은 이러한 이론을 통해 강건하면서도 조직미가 있는 시세계를 이룩한 것이다.

海東江西詩派 또한 중국 江西詩派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시풍을 표출한 시인들을 지칭한 개념으로 申緯<sup>3)</sup>에 의해 그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황정견은 杜詩에 다가가기 위한 시 학습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백과 두보를 지향했던 후학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 한편 國初의 화려한

2) 全松烈, 「朝鮮朝 初期學唐의 變貌 樣相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 申緯, 「論詩絕句」, 『警脩堂全藁』學副眞才一代論, 容齋正覺入禪門, 海東亦有江西派, 老樹春陰挹翠軒.

시풍에 대한 반발과 士禍로 인한 내부적 긴장은, 질박하고 굳센 江西詩派의 시풍에 더욱더 몰입하도록 하였다.<sup>4)</sup> 이렇게 강서시파를 최고로 구현한 조선의 시인이 바로 ‘湖蘇芝’로 불리는 세 명의 시인이다.

내가 어렸을 때, 자못 예원의 여론을 들었었는데, 근래 이름난 시인들을 거론할 때면 반드시 ‘湖蘇芝’라고 말하고들 하였다. 湖는 湖陰鄭公이요, 蘇는 蘇齋 盧公이요, 芝川은 黃公의 호이다. 내가 자라서 이 세 시인의 시집을 보았더니 정사룡은 조직이 정치하고, 노수신은 기격이 웅발하였다.<sup>5)</sup>

장유의 글에 의하면 ‘湖蘇芝’는 곧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 지천 황정욱을 가리키는 말로 이 세 사람은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조직이 치밀하고 웅건하고 빼어난 기상을 지닌 시를 지어 江西詩派적 특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관료적 문인으로서 대제학을 지내며 당시 조선의 문풍을 이끌었기에 館閣三傑로도 일컫는다.

이러한 江西詩派의 시적 경향은 유근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柳根의 스승이 바로 16세기 후반 海東江西詩派를 대표하는 黃廷彧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근은 ‘湖蘇芝’의 뒤를 이어 대제학으로서 조선의 문단을 담당하였기에 江西詩派의 경향은 유근에게 있어서 私的·公的으로 밀접할 수밖에 없었다.

유근은 이러한 시대적·문학적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정치적·문학적 이상을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실용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학적으로는 강서시파의 영향아래 최고조로 구현되

4)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태학사, 1995

5) 張維, 「芝川集序」, 『谿谷先生集』, “維少也, 頗聞藝苑餘論, 其稱近代名家詩, 必曰湖蘇芝, 湖謂湖陰鄭公, 蘇謂蘇齋盧公, 而芝川者, 長溪黃公號也, 及長, 獲睹三家詩, 湖之組織精緻, 蘇之氣格雄拔.”

었던 唐詩의 서정성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 2. 유근의 삶

### 1) 生涯

西峒 柳根(1549-1627)은 생애의 대부분을 관직 생활에 헌신하였던 정치가이자,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 평가하였던 문장가이다. 본관은 짚州이며 字는 晦夫, 호는 西峒, 孤山으로 사후에 받은 시호는 文靖이다. 유근이 작성한 만형 柳格의 묘비명에 따르면, 짚州柳氏의 시조는 柳挺으로, 고려시대에 활동하였으며 金紫光祿大夫 中書令 左右衛 上將軍에 이르렀고 晉康府院君에 봉해졌다. 진강은 짚州의 옛 이름으로 유정이 진강부원군에 봉해진 것을 계기로 그의 후손들이 진주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유정은 진주의 토호이자 崔忠獻의 외조부였다. 최충헌은 무신정권의 핵심이었으나 문인으로서의 능력 또한 인정받는 인물로, 이후 유정의 후손들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벼슬을 이어간 것으로 보아 文章을 익히는 가풍이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근은 1549년(명종4년)에 부친인 성균관 진사 柳榮門과 이조정랑을 지낸 安世彦의 딸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바로 위의 형은 正言에 네 번이나 제수된 柳格으로, 두 형제는 사이가 매우 좋았던 듯하다. 특히 유근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많은 의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근은 유영문의 遺命으로 9세에 부친의 종제인 柳光門의 호적에 입적된 뒤에도 친형과 친어머니를 각별히 아끼며 따랐다.

유근은 1563년(명종18년), 15세가 되던 해에 湖陰 鄭士龍, 蘇齋 盧守愼과 함께 館閣三傑이라 불렸던 芝川 黃廷彧(1532-1607)에게 나아가 수학하였으며 22세가 되던 1570년(선조3년)에 사마양시에 합격한 뒤, 이항을 만나 經義

를 물었다. 1572년(선조5년)이 되던 해, 스물 네 살의 나이로 문과별시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으로 거쳐 예조 좌랑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홍문록 과시에 합격하여 홍문관에 들어갔으며<sup>6)</sup> 1574년(선조7년)에는 동호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하고 정언이 되었다. 이렇듯 과거출신자 중에서도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이 맡는 淸職을 두루 거쳤던 것으로 보아 유근의 뛰어난 학문적 성취에 대해 주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을 알 수 있다.

1576년(선조9년), 28세의 나이에 質正官으로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를 시작으로 유근은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신으로 발탁되었다. 질정관으로 향하는 심정을 유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述懷 술회

丙子朝天早 병자년 조천 떠나는 아침,  
阿咸十歲纔 조카는 겨우 십 세였다네.  
慈堂偏撫頂 어머니께서는 내 정수리를 두루 쓰다듬으시고  
伯氏正提孩 형님은 아이 손을 붙잡듯 하셨네.

(중략)

風樹俄纏痛 어머니 생각나 불현듯 아파오고  
鵠原又抱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애통한 마음 뿐  
亂離悲獨在 어지러이 이별하여 홀로 있음이 슬프니  
衰疾苦相催 쇠약하여 얻은 질병 고통이 심했다네.

이 시는 동지의 서장관으로 떠나는 집안의 조카 柳時行에게 준 오언배율의 일부로 본인의 朝天行에 대해 추억하며 쓴 것이다. 유근은 중국에 질정관으로 떠날 때 이별의 장면을 매우 사실감 있게 적고 있다. 아들의 머리를 두루

6)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6월 3일 신해.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으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유근의 안타까움도 묻어난다. 뒤이어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에 대한 애뜻함과 그리움, 긴 여정에서 오는 육체적 한계 등이 잘 드러나 있다.

1577년, 유근은 영동에 있는 학림현에 제수되어 가서 1579년, 중앙 조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곳에서 관직생활을 하였다. 문과에 합격한지 5년 만에 한 지역의 책임자가 된 유근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림현을 찾아갔던 듯하다. 그 마음이 문집에 남아있는 시에 잘 드러나 있다.

記懷 마음을 기록하다.

一作鶴林尉 어찌다 학림위 되어  
重經楓岳山 다시금 풍악산 지난다.  
只緣歸意速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에  
空望暮雲端 공연히 저문 구름 저편 더듬어본다.  
見爾忽靑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다  
吟詩多厚顏 시 읊으니 부끄러워지네.  
春風携竹杖 봄바람에 대지팡이 가지고서  
擬叩月中關 달빛 감도는 관문 두드린다.

학림현에서 유근은 楊士彥(1517-1584)과 교류하였는데 양사언의 『蓬萊集』의 「飛字記」에는 두 사람이 교류하였던 장면이 기록되어있다. 이는 유근이 직접 작성하여 양사언에게 준 것으로 두 사람은 '忘年交'를 맺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83년(선조16년), 유근은 병조좌랑이 되어 병조 판서 이이를 도와 변방 수비책을 도모하였다. 이이는 유근을 큰 그릇으로 인정하였고 북쪽 변방의 사변

에 있어 모든 조치를 다 유근과 의론하여 처리하였다.<sup>7)</sup> 훗날 임란기에 유근이 국방상의 중요한 문제마다 뛰어난 식견을 보이는 것도 이이의 밑에서 병조정랑을 역임하며 경험한 경륜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sup>8)</sup> 39세 8월, 文臣庭試에 장원을 차지, 9월에 선위사가 되어 일본 사신 玄蘇를 영접하였고 이후 사간을 거쳐 43세의 나이에 좌승지에 올랐다. 유근은 휴식을 원하기도 하였지만 바쁜 공무는 계속 이어졌고, 유근은 관직 생활에 대한 회의와 휴식에의 바람을 다음과 같이 시로 풀어내기도 하였다.

偶題 우연히 짓다.

斷雨靑山夕 비 개인 푸른 산은 저녁 무렵,  
 鳴蟬碧樹秋 매미 우는 푸른 나무는 가을이라.  
 鄉心歸柱笏 고향 그리워 홀 괴고서 먼데보고  
 世事入梳頭 세상사 근심에 머리 긁적인다.  
 陸子三間屋 육자는 세 칸 집짓고 살았고  
 陳公百尺樓 진공은 백척 누각에 살았었지  
 悠悠今古意 아득한 고금의 생각들  
 誰是得真休 이중 진정한 휴식을 얻은 이 누구랴

1591년, 西人을 대표하던 정철이 建儲事件을 일으켰다. 東人은 이를 빌미로 하여 6월에는 정철이 봉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탄핵하였다. 7월에는 유근과 스승 황정욱, 그 아들 황혁을 비롯한 西人 인사들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였으며 유근은 이때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sup>9)</sup>

7) 『國朝人物考』 권15, 金昌協, 「柳根諡狀」

8) 김일환, 「임란기 서경 유근의 사환과 지방관활동」, 『한국인물사연구』1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9) 『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7월 2일, 乙丑, 兩司合啓: 兵判黃廷彧, 右承旨黃赫, 左承旨柳根, 戶判尹斗壽, 黃海監司李山甫, 司成李洽, 兵曹正郎任鉉, 禮曹正郎金權, 高山縣監黃慎, 司果具冕, 黨附鄭澈, 傷人害物. 且論廷彧、赫、橫姿貪濁, 請竝罷職. 上 以廷彧赫風聞未必實. 尹斗壽寬厚有才智, 根壽文藝之士, 可惜, 不允. 餘依啓. 後皆允之.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1592년(선조25년), 44세가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宗廟·社稷의 위함을 직감한 유근은 걸어서 상경하여 임금을 알현한 뒤, 피난길에 오르게 된 선조를 호종하였다.<sup>10)</sup>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동안 유근은 지척에서 선조를 모시며 각종 현안에 대해 일선에서 대응하였다.

1593년 2월, 유근은 한성부판윤으로 임명되어 민심을 수습하고, 4월에는 사은부사로 정철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으나 중국 측에 왜곡보도를 했다는 오해를 사 대간들의 격렬한 탄핵상소를 받았다.<sup>11)</sup> 선조는 유근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으므로 탄핵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유근을 경기관찰사, 도성 방어에 중요한 충청도의 관찰사에 임명하여 이몽학의 난 이후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도맡게 하였다.<sup>12)</sup>

1597년, 명나라와의 협상에 실패한 일본은 정유년에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다. 명나라의 원군이 맞서 대응하였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군량을 보전하여 명군에게 손실 없이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조정은 의주에 쌓아둔 군량을 도둑맞고 운반 중에도 군량이 새어나가는 일을 경험한 뒤로 군량을 해로로 수송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때 중국에서 산동의 糧餉 수백 척을 선천과 철산 사이에 잇달아 운반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경강까지 배로 옮기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었다. 이때는 바야흐로 가을바람이 거세고 바닷길이 위험해서 조정 의논이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랐다. 조상 윤두수 공이 차자를 올려 공을 천거하고 또 입대하여 아뢰기를 이일은 柳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하니 선조가 특별히 運餉檢察使로 제수하였다.<sup>13)</sup>

10) 金昌協, 「柳根諡狀」, 『國朝人物考』 권15

11) 「柳根諡狀」, 선조 26년 윤11월, 18일, 19일, 20일, 21일

12) 김일환, 「임란기 서경 유근의 사환과 지방관활동」, 『한국인물사연구』1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3) 金昌協, 「柳根諡狀」, 『國朝人物考』 권15

위와 같이 유근은 이 일의 책임자로 평가받아 ‘諸道海運檢察使’에 제수되었다.<sup>14)</sup> 임무를 맡게 된 유근은 두꺼운 판자로 튼튼한 배를 만들어 한겨울에도 강의 얼음을 깨고 식량을 수송하여 명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선조는 이에 기뻐하여 포상하였을 정도로 그의 업무 수행 결과는 성공적이었다.<sup>15)</sup>

전란이 종식되고 국가가 안정을 되찾아가자, 56세가 되던 1604년(선조37년)에 사직하고 향리에 돌아갔다. 같은 해에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旰食府院君에 봉해진 뒤 10월, 대제학을 제수 받고 우찬성에 올랐으며 중국 사신 주지번을 만나 영접하는 등 안팎의 나라 일에 참여하였다. 1608년(선조41년), 유근을 총애하던 선조가 승하한 뒤, 유근은 대제학으로서 諡冊文을 수찬하고,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08년, 광해군은 즉위한 뒤에 유근을 다시 대제학에 임명하였다. 유근은 이때 사임 상소를 올렸으나 광해군은 다음과 같이 불허하였다.

**문형의 증임이란 함부로 체직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대신으로서 문형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의도가 있어서이다. 경은 사퇴하지 말고 몸을 조리하여 출사하라.<sup>16)</sup>**

그러나 1609년 7월, 유근이 다시 사임 차자를 올리자 받아들여져 유근은 대제학을 그만두고 호조판서, 존숭도감과 화기도감의 제조 등의 자리를 두루 거쳤다. 이후 대북파의 폐모론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자 1617년(광해군9년)에 69세의 나이로 사직하고 괴산에 은거하였다.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른 뒤, 유근은 75세의 나이에 다시 기용되어 비변사 당상을 제수

14) 이숙경, 「조선 선조대 유근의 대외관계 활동」, 『한국인물사연구』15호, 2011

15) 이숙경, 「조선 선조대 유근의 대외관계 활동」, 『한국인물사연구』15호, 2011

16) 『광해군일기』3권, 광해 즉위년 8월 5일 己未, “戊申八月初五日己未答大提學柳根初度呈辭曰 “文衡重任, 不可輕遞. 古有大臣兼之者, 意有所在. 卿宜勿辭, 調理以出.”

받았으나 다음해에 바로 사직하고 은거하였다.

은거하며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려던 유근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27년(인조5년)에 후금의 침략으로 시작된 丁卯胡亂에 사직이 위태로워지자, 유근은 어가 행렬을 호종하고자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급히 떠난 여정은 노년의 유근에게는 무리였다. 어가를 따르던 중 通津의 민가에서 병들어 죽으니 이때 유근의 나이가 79세였다. 谿谷 張維는 祭文에서 유근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嗚呼哀哉 아 슬프다  
羯奴構難 오랑캐 난리로  
兵纏圻遂 도성이 병화에 휩싸여  
鑾輿西狩 임금님 서쪽으로 피난가시고  
萬品波潰 온통 무너지고 궤멸될 때  
公時臥病 공은 병으로 쓰러져  
危儼如綫 목숨이 실날같이 위태로웠다네  
寄命扁舟 조각배에 목숨 줄 의지하고 가다  
摩尼在眼 마니산 눈앞에 두고  
風濤震撼 바람 물결 거세게 요동칠 때  
遂以奄忽 그만 홀연히 눈감으셨네<sup>17)</sup>

유근은 집안 대대로 학문적 뿌리가 깊은 집안에서 천재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문장에 뛰어났다. 집안의 가풍과 천재적인 재능,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사가독서에 뽑히는 등 두루 인정받았다. 유근은 대제학에 임명되어 중요한 공적 문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학문과 문학적 경향에 대하여 직접 목소리를 내며 학문을 하는 바른 방향과 방법

17) 張維, 「忠勳府祭晉原府院君文」, 『谿谷集』

을 제시하며 문단을 이끌었다.

유근은 忠心으로 현안의 부름에 부응하여 대제학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유근의 문집인 『西垞集』에 序文을 쓴 宋時烈(1607-1689)은 앞서 말한 유근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며 칭송하였다.

사람 중에 자기 몸을 도리에 맞게 잘 지키면서 그에 걸맞도록 훌륭한 재주가 있는 자는 있기 어렵다.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마땅한 때를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대개 우리 명종과 선조 사이에 우리나라의 문치가 융성하였다. 공께서는 시와 학문의 명가로서 한 시기의 여러 공들과 함께 국가의 문장을 윤색하고 노래를 지어 올렸으니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후세 사람들이 그 경지를 바랄 수조차 없구나.<sup>18)</sup>

유근의 死後인 현종3년인 1662년에 詩集이 간행되고 현종6년에 문집이 간행되었으며, 숙종 22년인 1696년에는 文靖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 2) 師承 및 交遊關係

### 가. 師承關係

西垞 柳根의 스승이라 알려진 인물은 芝川 黃廷彥·退溪 李滉·高峯 奇大升으로 모두 당시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였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두 다 알 수 없으나, 芝川 黃廷彥은 강서시파의 시풍을 가진 시인이자 당시 관각 문인으로서 유근의 관각문풍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

18) 宋時烈, 「西垞集序」, 『宋子大全』 “人有其身, 而有其才者難也. 雖有其才, 而有其時者尤難也, 蓋我 明宣之際, 本朝之文治隆矣. 公以詞學名家, 與一時諸公, 潤色王猷, 奎章鐘奏, 郁郁洋洋乎. 後世無能望焉.”

을 것으로 보이며, 退溪 李滉·高峯 奇大升은 모두 성리학자로 유근의 철학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근이 芝川 黃廷彧(1532-1607)의 제자라는 사실은 그가 쓴 황정욱의 祭文에 잘 드러나 있다.

### 나는 보잘 것이 없었으나 15세에 그 문하에 올랐다.<sup>19)</sup>

위의 글을 보면 유근이 15세의 나이에 당시 32세였던 황정욱의 문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諡狀」에서는 황정욱에게 수학하였던 유근이 藻思가 날로 진보하여 지천이 크게 칭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근은 황정욱을 스승으로 모신 뒤,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 들어간 뒤에도 정치 및 외교와 관련한 문제는 물론, 각종 정책적 입장을 거의 황정욱과 함께하였다.

황정욱은 유근보다 17세 더 많았으며 선조의 총애를 받아 대제학의 지위에 올라 국가의 문풍을 관장하는 문형으로서,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특히 53세의 나이에 ‘宗系辨誣奏請使’가 되어 조선 초부터 염원하였던 조선 왕실의 잘못된 족보 문제를 바로잡았으며 그 뒤 호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長溪府院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황정욱은 전쟁 중에 왕자인 임해군과 순화군을 배종하다가 陪臣의 변고로 포로가 되었다. 왕자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황정욱의 아들 황혁이 왕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항복권유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왕자들은 무사히 목숨을 건졌으나 임란 후 이 일이 반대파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황정욱은 무수한 탄핵을 받게 되었으며, 선조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린 그는 불우한 여생을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

지속적인 비난과 탄핵에 시달렸던 황정욱의 삶과는 별개로, 그의 문학적 역량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황정욱은 湖陰 鄭士龍, 蘇齋

19) 柳根, 「祭文」, 『芝川集』 “自惟無狀, 十五登門.”

盧守愼과 함께 ‘館閣三傑’로 지칭된다. 각각의 문장을 관장하던 이 세 사람의 시는 뚜렷한 송시의 특징을 보이므로 또 한편 ‘海東江西詩派’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문학적 지향이 비슷한 까닭으로 이 세 사람은 호의 앞 글자를 따서 ‘호소지(湖蘇芝)’라는 명칭으로 함께 거론되고는 한다.

허균은 황정욱 시의 높은 경지를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나는 젊은 날, 지천옹을 뵈게 되었는데 그 지론이 몹시 거만하여 고금의 문예를 이야기함에 허여하는 바가 적었고, 우리나라의 시에 이르러는 더욱 列에 넣어 논란하지 않았다. (중략) 나 혼자 속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공이 몰한 뒤 남긴 글을 概見하지 못하여 늘 한을 두었었고, 그 지은 바가 과연 논한 바와 들어맞는지 아닌지 의심했었다. 그런데 나의 벗 趙持世가 그 近律 1백여 편을 모았으므로 나는 비로소 눈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 증지와 뺏셈과 응송깊고 드넓음은 바로 천년 이래 동떨어진 울림이었다.”<sup>20)</sup>”

허균은 「題黃芝川詩卷序」의 이어지는 글에서는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재주를 활짝 꽃피워 왕세정과 이몽양과도 비교할만한 시인이 되었을 것이라 칭송하고 있는데, 이처럼 황정욱 시의 豪放한 기상은 유근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던 황정욱의 태도는 훗날 유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면모이다.

高峯 奇大升(1527-1572)은 李滉의 문인으로, 유근보다 22세 연상이다. 기대승은 1558년 이황을 찾아가 太極圖說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이 때 감명을 받아 그 후에도 이황과 1558년에서 1570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학문과

20) 許筠, 「題黃芝川詩卷序」, 『惺所覆瓿稿』 “蓋余少日及見芝川翁, 其持論甚倨, 談古今文藝, 少所許, 而至我國詩則尤不齒論, 如容齋而目爲太腴 (중략) 余聞而心駭, 浩如睇河漢, 不可測其深涯也. 然私竊記之, 公歿 遺文不可概見, 每置恨也 而疑其所述果合於所論否, 余友趙持世稟其近律百餘篇, 余始寓目, 則其矜持勁悍, 森邃沈寥, 寔千年以來絕響, 覈所變化.”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그 가운데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 이루어진 四七論辯은 조선유학사상 깊은 영향을 끼쳤다.<sup>21)</sup> 기대승의 정치 사상은 조광조의 지치주의 사상을 이어받아, 전제주의 정치를 배격하고 民意에 따르고 民理를 쫓는 유교주의적 民本政治·王道政治를 이상으로 삼았으며, 그 제자로는 鄭雲龍·高敬命·崔慶會·崔時望 등이 있다.<sup>22)</sup> 유근이 기대승의 제자라는 사실은 다음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高峯爲學有淵源 고봉 선생 학문은 연원이 있으니  
 師事陶山極討論 도산을 배워 남김없이 말씀하셨네  
 凡此厥初成者性 애초에 타고난 성이라는 것  
 苟求其故道之原 진실로 그 옛 도의 연원에서 찾아야한다  
 闡明理氣書猶在 이기를 천명한 글 아직 남아 있고  
 涵養虛靈號曰存 허령을 잘 길러서 存齋라 불렀네.  
 今到光山拜祠宇 이제 광산에 와 사우를 참배하니  
 白首曾是忝登門 늙은 이 몸 예전에 문하에 올라서라<sup>23)</sup>

유근은 기대승의 스승이 도산서원의 이황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性의 근원을 파헤치는 도학적 성취를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스스로도 이 기대승의 문하에 올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 제문에는 작성자가 ‘門人柳根西垞’이라고 되어 있어 유근이 기대승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유근은 기대승의 스승이기도 했던 李滉(1501- 1570)의 문인으로도 소개되고 있는데, 『詩評補遺』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서경 유근은 진주 사람으로 대제학이며 퇴계의 문인이다.<sup>24)</sup>**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3) 柳根, 「謹題高峯先生書院」, 『高峯全書』,

「諡狀」에서도 유근은 22세의 나이로 사마양시에 합격한 뒤 퇴계를 배알하고 經義를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sup>25)</sup> 朴世采(1631-1695)의 『東儒師友錄』에서도 서경이 퇴계에게 及門한 선비임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26)</sup> 그러나 유근은 이황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근의 나이 22세였을 때 이황은 70세였으며 유근이 찾아갔던 해에 이황이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근은 이황과의 대면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분명히 깊은 감명을 받았던 듯하다. 유근은 다음의 시와 같이 이황을 그리워하였다.

贈嶺伯尹可晦 영백인 윤가회(1563년~1640년)에게 주다.

陶丘函丈昔周旋 ‘도산 언덕’은 선생께서 옛날에 노닐던 곳,  
痛哭山顏四十年 산등성이에서 통곡한지 사십 년이네.  
玉色金聲長已矣 옥빛 얼굴 금빛 목소리 이제는 볼 수 없는데  
天光雲影尙依然 하늘 색과 구름 그림자 아직도 의연하구나.<sup>27)</sup>  
(하락)

유근은 「諸府院君筭」에서 이황의 풍모를 들으면 곧 興起한다고 하며 이황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극찬하였다.

이언적과 이황이 돌아가신지 지금 벌써 4-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신명처럼 공경하고 부모님처럼 존경하는데 그중 드물게도 문하에 올라 수업한 사람 중에 그들의 풍모를 들으면 흥기하게 되는 이가 있으니 온 나라의 인심이 화합하여 함께하는데 그것을 당이라

24) 洪萬宗, 『詩評補遺』, “柳根西峒, 晉州人, 大提學, 退溪門人.”

25) 金昌協, 「柳根諡狀」, 『國朝人物考』

26) 朴世采, 『東儒師友錄』

27) 柳根, 「贈嶺伯尹可晦」, 『西峒詩集』

## 부를 수 있겠습니까?28)

이로써 살펴볼 때, 유근은 이항과 기대승으로 이어지는 도학파의 직계 제자로서 도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그가 남긴 문장 중에서 節義를 중시하고 忠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그러한 영향일 것이며, 특히 그의 정치사상과 애민 의식 등은 왕도정치를 지향했던 기대승의 治主義의 영향을 받아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유근의 문인으로는 사위이자 제자인 北渚 金塗(1571-1648)를 비롯하여 竹陰 趙希逸(1575-1638), 鶴谷 洪瑞鳳(1572-1645) 등이 있다. 세 사람은 친구사이이며 김류와 홍서봉은 인조반정의 공신이기도 하다.<sup>29)</sup> 이 외에도 淸陰 金尙憲이 유근의 문하로 자처하고 있는데, 김상헌의 『淸陰集』에는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기록과 함께 七言 絶句詩가 실려 있기도 하는 등 교유의 흔적이 남아있다. 『淸陰集』에는 유근이 스승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집안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외할아버지인 林塘 相國을 섬기며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자 큰형님인 仙源 선생과 당형인 休庵 선생이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 점차 나아갈 바를 알게 되었다. 그 뒤 열여섯 살 때 尹文敬公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하였고, 또 玄軒 申公(申欽), 月沙 李公(李廷龜), 西垞 柳公(柳根)의 문하에서 노닐면서 들은 바를 더 넓혔으며, 鶴谷 洪公(洪瑞鳳), 東岳 李子敏, 李安訥, 竹陰 趙怡叔(趙希逸), 谿谷 張持國(張維) 등과 서로 切磋琢磨하였다.<sup>30)</sup>

28) 柳根, 「諸府院君劄」, 『西垞文集』 李彦迪李滉之沒, 今已四五十年矣, 今世之人敬之如神明, 尊之如父母者, 罕有登門受業之人, 率皆聞風興起者也. 舉國人心, 翕然而同, 其可謂黨同乎.

29) 장숙필, 『한국인물사연구』15호, 「서경 유근의 인물과 실천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30) 金尙憲, 『淸陰集』, 「淸陰草稿自叙」, “余年九歲, 始學于家庭, 逮事外王父林塘相國, 獲承警咳, 伯氏仙源先生, 堂兄休庵先生勤加提誨, 稍稍知向方. 十六謁尹文敬公請益, 又游玄軒申公, 月沙

유근은 해동강서시파로 분류되는 芝川 黃廷彧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詩學의 기초를 세웠으며, 조정에서는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하였다. 또한 도학파의 巨儒인 退溪 李滉·高峰 奇大升을 스승으로 삼아 내면의 덕성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유근은 문장가적 재능을 사위인 北渚 金鑾에게 물려주어 인조 때에는 대제학에 오르게 되었으며, 도학자적 자세는 淸陰 金尙憲에게 물려주어 김상헌은 인조 때의 두 번의 胡亂에서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유근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문장적·도학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나. 交遊關係

유근의 『西垞集』에는 교유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유근의 『西垞集』에 남아있는 시 중,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교유 인물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표이다.

<표 1> 유근의 교유 인물(인명 가나다順)

연번	이름	생몰 및 비고	한시 제목
1	高敬命	1533-1592	次高苔軒韻
2	高傳川	1578-1636년 高敬命의 손자	別高興陽
3	姜鳳壽	?-?	姜(鳳壽)居錦江之上流已久, 今赴平昌郡,贈之
4	姜紳	1543-1615	挽晉興君大夫人
5	金命元	1534-1602	代慶林君, 贈軍門標下戴中軍
			代慶林君, 奉別邢軍門
			奉謝酒隱先生惠韻
6	權倣		挽權正字倣
7	權盼	1564-1631	權安州後彫堂, 次申駱峯韻
8	金謹行	1610-?	謝金同知惠菊 三首

李公, 西垞柳公之門, 以廣所聞, 與鶴谷洪公, 東岳李子敏, 竹陰趙怡叔, 谿谷張持國相切劘.”

9	金德誠	1562-1636	送金都憲出補江陵
10	金塗	1571-1648 유근의 사위	時壻郎金公登第下來
			金郎出爲完山貳車, 奉贈.
11	金文學	?-?	金文學來訪。書贈
12	金尙容	1561-1637 김상헌의 형	贈聖節使金參議 二首, 戊戌
13	金尙憲	1570-1652 유근의 제자	贈別淸陰朝天
			我之朝天也。 石室山人奉使海外。各賦長律贈別
14	金誠一	1538-1593 이항의 제자	贈堂僚金誠一
15	金晬	1547-1615	次戶曹判書金子昂韻
16	金時獻	1560-1613	挽金參判 時獻
17	金蓋國	1572-1657	送金代言 蓋國 出宰洪州
18	金龍	?-?	奉贈石陵惠韻
			代石陵, 贈劉提督標下
19	金弘敏	1540-1594	金典翰 弘敏 反葬尙州先隴
20	南復興	1553-1622	挽南淮陽
21	盧守愼	?-?	偶閱蘇齋集, 有賦雪三篇, 遂次之 二首
22	盧道亨	1571-1615	挽盧醴川
23	盧稷	1545-1618	用挹灑亭韻, 錄奉士馨令兄.
24	睦大欽	1575-1638	送睦 湯卿 赴京
25	朴舜元	?-?	挽朴榮川 舜元
26	朴彝叙	1561-1621	題麻浦水明亭
27	朴孝誠	1568-1617 유근외손의 장인	挽朴善山 孝誠
28	成以文	1546-1618	贈千秋使成參議 以文
29	宋楠壽	1537-1626	題松潭四時畫簇
30	宋德久		宋公 德久 遷葬挽
31	宋希建	1572-1633 송남수의 둘째아들	贈宋察訪
32	申湜	1551-1623	挽申知事 二首
			贈用拙令公謝恩使之行
33	申欽	1566-1628	寄申應教 二首
34	沈悅	1569-1646	贈黃海觀察使沈 悅
			贈驪州牧使沈 悅
35	沈日休		挽豐城君沈 日休
36	沈喜壽	1548-1622	贈忠淸都事沈 喜壽
			用一松韻, 奉石泉公
			李壯元 敏求 新恩慶席,
			次沈一松韻奉祭酒令公 次一松韻

			次沈一松周甲同牢韻
37	安慶昌	?-?	次四耐道人卷中韻以贈, 三首 庚子新春, 四耐來訪黃岡僑寓, 奉次蘇齋老先生韻贈之
38	梁景遇	1568-?	己酉夏, 在龍灣, 寄題霽湖, 梁景遇
39	吳靖	1579-1623 오억령의 아들	題扇面, 贈遠從吳吏部 靖 贈吳參議 靖 朝天
40	吳竣	1587-1666 유근 조카 유시회의 사위	題吳參知 竣 家石陽正畫竹屏 丙午春, 到黃岡, 先寄中和壻吳郎 題吳參知 竣 家石陽正畫竹
41	柳碩	1595-1655 조카 유시회의 아들	贈柳 碩 赴三陟
42	柳成龍	?-?	挽西厓
43	柳時行	?-?	述懷, 贈冬至書狀家姪柳持平 時行, 勸以戒酒
44	柳永吉	1538-1601	辛丑夏, 贈別成川柳使君
45	楊鎬	? ~ 1629? 명나라 군인	楊御史鎬頌德詩
46	柳澗	1554-1621	挽柳同知 澗 夫人
47	尹國馨	1543-1611	挽尹判書 國馨 大夫人 挽尹判書
48	尹暉	1540~?	次伯昭老兄韻 三首 奉次伯昭老兄韻 二首
49	尹根壽	1537-1616	轉運到延安, 本府太守出示海平和篇, 謹依韻求正 七首
50	尹昉	1563-1640	贈嶺伯尹可晦 昉
51	尹斗壽	1533-1601	次梧陰相公韻 題尹政丞耆英會屏 挽梧陰尹相公
52	尹安性	1542-1615	奉贈冥觀令公 聖節使之行 用原韻寄冥觀居士 二首 謹用前韻, 寄冥觀老先生, 二首
53	尹曄	1549-1604	挽尹舒川 曄
54	尹義立	1568-1643	奉贈尹學士 義立 朝天之行 二首
55	尹暄	1573-1623	贈平安方伯尹 暄
56	李光胤	1564-1637	贈江原都事李
57	李達	1539-1612	悲西潭失意歸成川
58	李德薰	?-?	贈 聖節使李參判 德薰
59	李溟	1570-1648	奉贈舒川李使君 溟
60	李敏求	1589-1670	李壯元 敏求 新恩慶席,

			次沈一松韻奉祭酒令公
			贈慶尙觀察使李
			送李承旨 敏求 特除林川
61	李安訥	1571-1637	用晚翠堂韻，追寄江華府伯李子敏
62	李幼澄	1562-1593	挽完興君李 幼澄
63	李山海	1539-1609	次鵝溪相公贈天磨山人韻
64	李尙信	1564-1610	錄奉冬至使李公 尙信 行軒
65	李誠中	?-?	挽李判書 誠中
66	李時發	1569-1626	投贊畫使，兼奉簡易求正，
			贊畫使即李公時發
			贈贊畫使李令公 時發
67	李植立	1567-1636	贈三陟府使李 植立
68	李實之	?-?	彌申臥病，謝李實之來訪。
69	李愷	1559- ?	挽李驪州 愷 夫人
70	李元翼	1547-1634	題完平 賜几杖宴
71	李廷龜	1564-1635	次月沙韻。題慧遠上人詩軸
			次東岳仲春雪後上月沙李相公韻
			次月沙移寓南郭口占示韻
			奉贈謝恩兼陳奏正使 月沙相公
72	李恒福	1556-1618	錄奉右台相公
73	李好閔	1553-1634	次五峯韻贈山人
			次五峯韻，贈琴師盧末終，庚子夏。
			次五峯贈德能韻
			酬五峯
			五峯李相公，頃年奉使 天朝(하락)
74	李滉	1501-1570	讀退溪先生詩
75	李希得		挽李知事 希得
76	林億齡	1496-1568	用一松韻，奉石泉公
77	鄭彥信	1527-1591	挽鄭相 彥信 改葬
78	鄭惟吉	1515-1588	用林塘韻，示從事官
			贈林塘外孫
79	鄭忠信	1576-1636	安州牧使鄭求贈言，書以與之
80	鄭曄	1563-1625	挽鄭公 曄
81	曹植	1501-1572	得惺惺子示韻，有懷伯氏
82	趙緯韓		贈襄陽府使趙 緯韓
83	趙存性	1554-1628	贈關東方伯趙 存性
84	趙希逸	1575-1638	次趙從事 希逸 詩韻
85	崔笠	1539-1612	和簡易道人辱贈近體
			彌申，次簡易寄韻
			次簡易緘奉數詩韻
			次簡易僑居漫賦韻
			次簡易謝左顧寓舍韻
			疊前韻

			投贊畫使, 兼奉簡易求正
			又用前韻贈簡易
			次簡易韻 四首
			和簡易道人近體古詩
			龍灣, 次簡易道人雪月寄韻
			次贈簡易贈吳正字 竣 韻
			次贈崔簡易
			題簡易贈吳參知 竣 序文帖末
86	崔明善		贈書狀官崔正郎 明善
87	韓胤子		錄奉韓陶谷胤子
88	韓述		挽韓參判 述
89	韓浚謙	1557-1627	贈咸鏡觀察使韓公 俊謙 奉贈柳川
90	韓應寅	1554-1614	清平韓 應寅 呼韻題扇 清平要一語, 走草以呈
91	洪瑞鳳	1572-1645	贈洪星州 瑞鳳 贈 聖節使洪 瑞鳳
92	洪履祥	1549-1615	七夕, 贈安東府使洪 履祥
93	洪仁憲	?-?	贈關東方伯洪仁憲
94	洪迪	1549-1591	過荷衣舊宅 金沙寺, 憶故人洪荷衣有作 水樂軒, 次荷衣韻。
95	洪遵	1557-1616	送洪 師古 之任東萊
96	黃謹中 黃敬中	1560-1633 1569-1630	挽黃 大人
97	黃允吉	1536-?	贈黃 允吉
98	黃廷彧	1532-1607	挽芝川先生
99	許思益	?-?	挽許別坐 思益
100	許震	?-?	題許經歷 震 竹村圖詩帖

이 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유근은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시를 주고받은 교류 인물 중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있는 인물은 모두 100여명이다. 이 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崔笠과 관계된 시가 14首로 가장 많다는 점이며, 沈喜壽 5首, 李廷龜 4수, 李好閔 4수 등으로 당대의 문장가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근이 대제

학으로써 당대 조선의 문병을 잡고 있었으며 외교 문제로 자주 중국과 일본의 사신을 맞이하는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유근의 黨色은 西人으로 알려져 있는데, 鄭澈의 建儲事件 東人들의 탄핵 소차의 내용에는 유근 및 유근과 교유하였던 인물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양사가 함께하기를,

“병조 판서 黃廷彧, 우승지 黃赫, 좌승지 柳根, 호조 판서 尹斗壽, 황해 감사 李山甫, 사성 李洽, 병조 정랑 任鉉, 예조 정랑 金權, 高山 縣監 黃愼, 司果 具勉 등은 정철에게 붙어 黨이 되어 사람을 해쳤습니다.”<sup>31)</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그의 스승인 黃廷彧 또한 서인이었고 절친했던 황정욱의 아들 黃赫 또한 서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황혁은 또한 유근이 스승으로 모셨던 奇大升의 제자이기도 하여 황정욱 및 황혁과의 인연은 매우 깊었을 것이다.<sup>32)</sup>

또한 유근은 이항의 문인이었던 梧陰 尹斗壽와 月汀 尹根壽 형제와도 절친했는데 이들도 서인이었다. 유근은 윤두수를 기린 挽詩에서 윤두수(1533-1601)는 어린 시절부터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며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윤근수(1537-1616)는 윤두수의 동생으로 유근은 이들과 함께 노닐며 경치를 감상하고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33)</sup> 尹斗壽, 尹根壽, 그리고 마찬가지로 西人 인사인 一松 沈喜壽가 교류했던 한 장면이 유근의 시에 남아있

31) 『宣祖實錄』 25권, 선조 24년 7월 2일 乙丑, “兩司合啓 兵判黃廷彧, 右承旨黃赫, 左承旨柳根, 戶判尹斗壽, 黃海監司李山甫, 司成李洽, 兵曹正郎任鉉, 禮曹正郎金權, 高山縣監黃愼, 司果具勉, 黨附鄭澈, 傷人害物. 且論廷彧、赫、橫姿貪濁, 請竝罷職. 上 以廷彧、赫, 風聞未必實. 尹斗壽寬厚有才智, 根壽文藝之士, 可惜, 不允. 餘依啓. 後皆允之.”

32) 유승주, 『한국인물사연구』 18호, 「서경 유근의 관계교유인맥과 인조반정세력 연구」, 2012

33) 장숙필, 『한국인물사연구』 15호, 「서경 유근의 인물과 실천사상」, 2011

다.

箭郊口占一律 독섬에서 즉흥적으로 시를 짓다.

沙苑今修楔 모래밭에서 지금 계를 닦는데  
龍灣昔竝遊 용만에서도 예전에 함께 놀았었지  
四圍遙岫合 사방 멀리서 산등성이 합해지고  
中注大江流 중류는 흘러 큰 강으로 들어간다  
對酒無多酌 술을 앞에 있어도 많이 따르지 않고  
尋詩且少留 시구를 찾으면서 조금 머무른다.  
輕陰掛天際 가벼운 구름 하늘가에 걸려 있으니  
歸路不須愁 돌아가는 길 모름지기 걱정되지 않다네

이 시에 대해 유근은 ‘그 때에 梧陰 相公, 一松 相公이 함께 태복제조로써 항상 둔전의 형세를 살펴보았는데 海平 또한 여기에 참여하였다. 나 또한 경조의 장으로써 가서 참여하였다.’<sup>34)</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梧陰은 尹斗壽이며, 一松은 沈喜壽, 海平은 尹根壽를 가리킨다. ‘箭郊’는 지금의 독섬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조선조에서는 독섬을 국영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윤두수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문에 국영 목장이 관리되지 않은 틈에 백성들이 이 곳으로 들어가 경작하며 살기 시작했고 이미 촌락도 만들어졌다고 했다. 윤두수 일행이 직접 찾아와 실정을 살펴보니 차마 백성들을 쫓을 수 없어서 일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고 한다.<sup>35)</sup>

비록 공무로 찾아왔으나 함께 교류하던 벗들은 예전처럼 다시 모여 가볍게

34) 柳根, 『西峒集』, 「箭郊口占一律」 “箭郊口占一律。時梧陰相公, 一松相公俱以太僕提調。相視屯田形勢。海平亦預焉。不佞亦以京兆之長往參”

35) 尹斗壽, 『梧陰先生遺稿』, 「辛丑三月初, 同一松, 西峒, 月汀出箭郊遊賞, 次一松韻」 “國場自兵亂, 爲民入耕, 已成村落, 今來見之, 不忍驅散, 姑許一年仍居.”

술자리를 마련하여 시 한 수씩을 짓는 흥취를 나눈다. 해가 저물어 가며 구름 그림자가 짙게 느껴져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벗과 함께하는 시간이 흥겹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세 명의 인물 중 특히 一松 沈喜壽(1548-1622)는 유근과 더욱 절친하였다. 유근의 문집에는 그와 나눈 교유시가 5편이 남아있는데 모두 각별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심희수는 蘇齋 盧守愼의 제자로 21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1572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1599년 52세의 나이에 동지중추부사 겸 대제학에 제수 받았던 인물로 문장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근이 선조를 호종할 때 심희수도 함께 하며 同苦同樂하였고 평생 40여년의 우정을 지속하며 차운시를 많이 주고받았다. 이런 인연으로 심희수의 「箕田圖說」에 대한 跋文을 유근이 지어주기도 하였다.

유근보다 15세 어린 月沙 李廷龜(1564-1635) 또한 西人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申欽, 張維, 李植과 함께 穆陵盛世로 일컬어졌던 선조 때부터 광해·인조조에 이르기까지 文風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西峒集』에는 유근이 이정귀와 교유한 시가 4편 남아 있으며, 이정귀의 문집인 『月沙集』에도 유근이 이정귀를 초대하여 지은 시가 남아있어 둘의 교유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7월 6일, 西峒公이 술상을 차려 놓고 나를 초대하였다. 이때 나는 그 이웃에 寓居하던 터라 나막신을 신고 걸어가서 술 몇 순배를 돌리는 데 소낙비가 내리기에 입으로 읊고 적어 올리다. 이날은 處暑이다.<sup>36)</sup>

이정귀의 시집에는 위와 같은 설명이 있으며, 이정귀의 시 아래에는 유근의 문집에는 남아있지 않은 유근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

36) 李廷龜, 『月沙集』, “七月初六日, 西峒公置酒相邀, 時余僑寓其隣, 步履而往, 酒數行, 遇急雨, 口占錄奉, 是日處暑.”

老相柴門靜 늙은 재상 사립문 고요한데  
良辰荷見招 좋은 날에 고맙게도 초대 받았네  
(중략)  
論文從被肘 글 논할 땐 붙들려도 괜찮은 건  
歸路幸非遙 돌아가는 길 다행히 멀지 않아서요 37)

-李廷龜의 詩-

僑寓爲隣並 사는 집이 나란히 이웃 사촌이라서  
經過不待招 늘 지나는 길이라 부를 것도 없지  
(중략)  
參尋須數數 부디 자주자주 나를 찾아오시길  
東郭望遙遙 동쪽 성곽 아스라이 바라본다네38)

-柳根의 詩-

유근은 西人과의 교류과 활발하였으나 교유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색에 상관없이 여러 인물들과 교유하며 우정을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전부터 교유한 詩友들은 久菴 韓百謙, 一松 沈喜壽, 荷衣 洪迪, 荷谷 虛封, 柳川 韓浚謙 등이었다.<sup>39)</sup> 이들과의 교유는 각별하였으며 그만큼 오래 지속되었다. 한준겸(1557-1627)의 『柳川遺稿』年譜에는 이들이 함께 노닐었던 기록이 있다.

**봄. 자형인 하곡 홍적을 따라 삼청동에서 노닐며 하곡의 絕句詩에  
차운하였는데 시가 문집에 실려 있다. 이로부터 詩名이 크게 드날렸**

37) 李廷龜, 『月沙集』 “老相柴門靜, 良辰荷見招, 天孫會明日, 酷吏去今朝, 急雨尊仍在, 微涼酒易消, 論文從被肘, 歸路幸非遙.”

38) 李廷龜, 『月沙集』, 柳根, “僑寓爲隣並, 經過不待招, 佳期逢七夕, 爽氣自前朝, 河朔思留飲, 文園奈病消, 參尋須數數, 東郭望遙遙.”

39) 유승주, 『한국인물사연구』 18호, 「서경 유근의 관계교유인맥과 인조반정세력 연구」, 2012

다. 일시의 명류인 하곡, 서경, 일송과 같은 이들이 매년 하의를 방문 하였는데 그때마다 먼저 한준겸의 안부를 물으니 마침내 망년지교가 되었다.<sup>40)</sup>

이 때는 유근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이었던 1571년, 선조4년 봄이었다.<sup>41)</sup> 이들은 촉망받던 신진문사들로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가독서를 하였으며, 관직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정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荷衣 洪迪(1549-1591)은 이황의 문인이면서 經學에 밝고 論思를 잘하여 홍문관에서 ‘學士全才’라 불렸던 인물로 시문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썼다.<sup>42)</sup> 許篈과 함께 사가독서를 했으며 이듬해 홍문관에 들어가 10년을 봉직하는 동안 유근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해인 1591년 사망하여 오랜 시간 교류하지는 못하였는데<sup>43)</sup> 유근의 문집에 荷衣를 추억하는 시가 세 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유근이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로서 오랜 시간 잊지 못했던 듯하다.

金沙寺, 憶故人洪荷衣有作 금사사에서 고인 홍하의를 생각하며 짓다.

雪嶽高低白 눈 덮힌 산 높건 낮건 희기만하고  
螺鬘小大靑 산봉우린 크건 작건 푸르구나  
鏡中多島嶼 거울같은 물속엔 섬도 많은데  
松外卽沙汀 소나무 숲 너머엔 모래밭이라  
地軸分關海 땅은 관새와 바다를 나누고  
天容接混冥 하늘은 큰 바다와 맞닿았네

40) 韓浚謙, 『柳川遺稿』, 「年譜」, “五年辛未 春, 隨姊夫荷衣洪公迪, 遊三清洞, 次荷衣絕句, 詩在集中, 自是詩名大播, 一時名流如荷谷, 西峒, 一松。每訪荷衣, 輒先問公, 遂爲忘年之交。”

41) 유승주, 『한국인물사연구』 18호, 「서경 유근의 관계교유인맥과 인조반정세력 연구」, 2012

4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3) 유승주, 『한국인물사연구』 18호, 「서경 유근의 관계교유인맥과 인조반정세력 연구」, 2012

荷衣去不返 하의는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詩就更誰聽 시 지어도 다시 누가 들어주겠나

이 시에 대해 유근은 ‘荷衣曾幸長淵’라고 하여 하의가 장연의 부사였다는 사실을 부연하고 있다. 시의 제목인 金沙寺는 황해도 장연에 있는 규모가 작은 절이다. 어떤 연유로 인해 이곳을 찾게 된 유근은 자연스레 장연의 부사였던 흥적을 떠올리게 된다.

기구에서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대비를 통해 원경을 묘사하고 승구에서는 섬의 모습과 소나무 너머의 모래밭을 통해 근경을 보여준다. 전구에서는 지축과 관해, 하늘과 바다가 등장하여 풍경의 단절과 만남을 보여준다. 지축이 관해를 나누는 것과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만 함께 수평선을 이루는 하늘과 바다처럼 어찌면 바로 옆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러나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흥적의 존재를 풍경을 통해 보여주는 듯하다. 절구에서 유근은 삶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벗을 생각하며, 이렇게 그를 위한 시를 지었으나 들려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관직에 재직하며 더욱 다양한 인물들을 접하게 된 유근은 문장가 및 예술가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유희춘의 문인인 五峯 李好閔(1553-1634), 대북파인 李山海의 아들인 石樓 李慶全(1567-1644), 남인인 柳成龍(1542-1607)과 그의 문인인 愚伏 鄭經世(1563-1633), 퇴계의 문인인 藥圃 鄭琢(1526-1605)과 교류하였으며 남인인 芝峯 李晬光(1563-1629)과 그의 아들 李敏求(1563-1628)와도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남인으로 평가받는 漢陰 李德馨(1569-1626)과 鰲城 李恒福(1556-1618)과 교류하였으며, 簡易 崔笠(1539-1612)과는 차운시를 많이 남겼고, 조선중기 한문 四大家인 象村 申欽(1566-1628)과 月沙 李廷龜(1564-1635)와도 수창시를 남겼으며 삼당시인 중 한 명인 蓀谷 李達과도 시를 주고받았다.<sup>44)</sup>

44) 장숙필, 『한국인물사연구』 15호, 「서경 유근의 인물과 실천사상」, 2011

五峯 李好閔(1553-1634)은 1584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다음해에 史官으로 발탁됐으며 응교와 전한을 역임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는 이조좌랑에 있으면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다. 임진왜란 중에는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명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 이호민은 문장에 뛰어나 敎書는 물론 한시에 더욱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sup>45)</sup> 유근의 문집에는 이호민과의 차운시 및 증시가 다섯 편이 남아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최립과의 교유시가 14편이며 가까운 사이와의 교유시도 대부분 두 세 편 정도나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는 꽤 많은 분량이라 할 수 있다. 이호민의 문집에도 유근과 주고받은 시가 있으며 특히 그 중에는 유근의 외교능력을 칭송한 시가 남아있다.

西峒柳宗伯將赴燕京，以詩見寄，仍次其韻。<sup>46)</sup>

서경 유종백이 연경으로 가려하며 시를 부쳐 보이니 이에 그 운을 차운하다.

(중략)

尹喜定知前度客 윤희가 전에 왔던 손님 진정 알았던 것처럼  
靑牛行李又秦關 푸른 소 타고 행장 꾸려 다시 진관 가셨구려

이 시는 사신의 업무 차 연경으로 향하는 유근과의 이별 자리에서 이호민이 유근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의 尾聯 부분이다. 이 시의 頷聯에서는 번갈아 빈주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보면 이호민과 유근이 사신의 업무로 서로를 전송하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關令內傳』에 보면 函谷關의 關令 尹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 오는 紫氣를 보고 성인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과연 老子가 푸른 소를 타고 왔다는 고사를 활용하였다. 윤

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6) 李好閔, 『五峯集』, 「西峒柳宗伯將赴燕京，以詩見寄，仍次其韻」 “乘槎八月雨連灣 京口何如在鳳山 別席三年互賓主 征塵萬里損容顏 遼陽樹色浮天外 弧竹城陰落鏡間 尹喜定知前度客 靑牛行李又秦關”

희가 미리 알고 노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중국 조정도 유근의 대단함을 알고 서(知) 유독 유근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신 행차에 참여하게 된 유근에게 본인이 노자와 같이 중요한 인물이기에 자주 선발되는 것이라며 추켜 세워주면서 칭송하고 있다.

蓀谷 李達(1539-1618)은 삼당시인 중 한 사람으로 유근의 문집에는 이달에게 보낸 시가 한 편 실려 있다.

悲西潭失意歸成川 서담이 실의하여 성천으로 돌아감을 슬퍼하다

客有佯狂者 미친척하는 손님 있어서  
人皆欲殺之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죽이자 했네  
長哀幾漂母 빨래터 아낙네 표모 몇이나 애달파 했나  
自古一鍾期 예로부터 종자기도 한 사람이지  
憔悴無衣食 초췌하게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飄零泣路岐 쓸쓸히 갈림길서 눈물 흘리네  
鷄鳴與狗盜 닭 울음 소리에 개 도둑까지  
猶得荷恩私 되려 주군은혜 입었었는데

이달은 서인 출신이지만 문장으로 이름이 났던 까닭에 종종 외교 사절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유근과는 그러한 인연으로 알고 지내게 되었던 듯하다. 위의 시는 이달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성천으로 떠날 때 지어진 시로 보이는데 이달의 재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전전하는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유근의 마음이 담겨있다.

象村 申欽(1566-1628)은 유근보다 17세 연하로 漢文四大家 중 한 사람이다. 둘은 유근이 군량미를 운송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을 때 이 일을 도와 진행하며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象村集』에는 ‘미관진에 머물러 검찰사 서경 유공

과 함께 바닷길로 들어온 중국의 군량미를 감독하여 운송하고 바닷가 마을에서 지내면서 회포를 쓰다[留彌串 同檢察使西垞柳公 督運天朝海糧 寓居海村]’라는 제목의 시가 16수 실려 있다. 또한 신희의 문집을 보면 유근과 함께 김상헌이 살던 집에 함께 찾아가 절구를 써서 유근에게 화답하게 했다는 기록<sup>47)</sup>이 있다. 모임에서 만나 서로 차운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자주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근의 시에는 신희에게 보내는 애뜻한 마음이 잘 담겨있다.

贈玄翁申敬叔 현옹 신경숙(申欽)에게 주다

燕京迢遞惜相違 연경 오고 갈 때 길 어긋나 서운터니  
 咫尺終南翰札稀 지척인 종남서도 서찰 주고받기 드무네  
 何日東還投絃去 어느 날 동쪽 가서 인끈 던져 떠나가서  
 石潭晴月閉松扉 석담의 개인 달 아래 솔사립문 닫을까나

簡易 崔笠(1539-1612)과의 교류는 유근에게 더욱 특별하였다. 유근의 문집에는 최립과의 교류시가 14편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다. 최립은 유근보다 10세 연상의 개성 출신 문장가로, 그의 문장은 五山 車天輅의 시, 石峯 韓濩의 글씨와 함께 松都三絶로 일컬어졌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자세히 상고하기는 어려우나, 임진왜란이 발발한 뒤에는 외교가 더욱 중요해져 신분 구별없이 能文者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최립의 외교관련 활동이 활발하였으므로 사신으로서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갔던 유근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이루어졌을 것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승문원에서 일한 인연으로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7) 申欽, 『象村集』, 「清陰公方爲省郎中書堂, 故有梨花會, 亂後廢而不行, 不復見盛事矣. 今見清陰寓舍遞有梨花樹而同行如西垞, 乃是曾經中書, 欽亦於十年前忝居此堂, 故以一絕戲之, 仍屬西垞求和, 以續中書故事云」

최립은 가문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弘齋全書』에 따르면 ‘다행히도 이름을 날린 자는 위항에서 매우 뛰어났던 최립과 같은 이가 있었다.[幸而揚名者, 委巷別有崔岬若而人]’라고 한 것으로 보아 최립은 서인 출신이었던 듯하다. 이렇게 최립은 보잘 것 없는 집안의 출신자라 그의 출세 길은 순탄치 않아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어도 작은 군현의 현감 자리나 전전하고 있었다. 반면에 선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유근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유근이 최립을 따르며 자주 찾으니 이를 고마워하는 시를 많이 남겼다. 유근 또한 최립의 문장에 경탄해마지 않고 최립의 고문 사상에 매료 되어 최립을 본받고자 했다. 유근이 최립에게 보낸 시를 살펴보면 유독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담은 시들을 보낸 것으로 보아 정신적으로도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次簡易僑居漫賦韻 간이의 ‘교거부’에 차운하다

莫道參商隔 參星 商星 멀다고 말하지 마라  
 須論臭味同 취미가 같은지를 보아야하니  
 暮雲迷極浦 저물녘 구름에 먼 물가 아스라하고  
 晴月掛長空 맑게 갠 달 머나먼 하늘에 걸렸네  
 事業功名際 사업은 공명 사이에 있고  
 交遊意氣中 교유는 의기 속에 있는 것  
 葵誠常向北 해바라기 항상 북쪽 향해 섰는데  
 馬首幾時東 말머리는 언제 동쪽으로 돌릴까

起聯의 첫 구에 나오는 參星과 商星은 만나지 못함의 상징이다. 삼성은 동쪽 하늘에 있고 상성은 서쪽하늘에 있어서 각각 뜨고 지는 시각이 다르기에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없는데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유근은 이 두 별이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

에 드러나 있다. 바로 ‘臭味’가 같아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면 만나지 못함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만큼 유근은 최립과의 교류에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이렇게 알아봐주는 유근에게 최립 또한 다음과 같이 사례하고 있다.

謝巡相獎和 巡相이 장려하며 화답해 줌에 사례하다.

蘿蔦施松上 솔을 타고 붙어사는 겨우살이  
蒹葭倚玉傍 옥나무에 기대어 선 억새풀이라  
鄙人固癡絕 비루한 이 몸 진실로 어리석은데  
君子愈謙光 군자께서는 더더욱 겸손하시네  
嘗怪盛名下 이상도 하다, 성대한 이름 낮추어  
少憐寒士長 쓸쓸한 선비 어여쁘다 여기니  
由來度量遠 도량이 원대한 것 말미암아서  
右道幸非亡 바른 도 다행히 없어지지 않았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巡相은 바로 유근이다. 유근의 관심에 최립은 자신을 다른 나무에 의지해 사는 보잘 것 없는 들풀로 비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유근 자신의 명성을 낮추어 寒士인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아껴주는 그 도량이 원대하다고 하며 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라 추켜세우고 있는 것이다.

최립은 또 「重謝巡相辱教之意，蓋不在淺淺也」라는 시에서 ‘웃지마라, 재주도 없는 작은 무당이 명장 옆에서 부끄럼 잊고있다고. 날 알아주는 이에게 할 말 다하는 것, 남을 포용하는 도량 빛이 나는 걸.<sup>48)</sup>’ 라고 하며 유근을 ‘知己’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督運檢察使柳西垞先生在彌串，寄和道中韻 四首，今爲謝」 시에서는 유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최립 자신임을 자신만만하

48) 崔笠, 『簡易集』 “莫笑小巫拙, 忘羞大匠傍, 言從知己盡, 量爲受人光(후략)”

게 말하며 유근의 ‘憂國’이 자신의 집안을 걱정하는 것같이 열심히 공무에 매진하는 모습을 매우 칭송하고 있다.<sup>49)</sup>

최립의 문집인 『簡易集』에는 다음과 유근이 찾아와 최립의 시를 찾아보고 술상을 제공해 주는 일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謝柳檢察西垞公來訪 檢察 柳西垞이 방문해 준 것을 사례하다.

(중략)

寒暄展甫已 안부 묻는 일 서로 끝내자마자  
文囿恣所披 글 상자를 뒤지기 시작하여  
徵我閑中作 한가할 때 지은 글 보자하기에  
舉公取次爲 잡힌 대로 가져와 공께 보이네  
覺穢珠玉側 주옥의 시와 비교하자니 먼지같아서  
立新風斤施 그대의 새로운 시 도끼에 바람 일듯  
恨不長追陪 한스럽네, 그대와 함께 다니며  
壘簾忝迭吹 사이 좋게 형제처럼 지내지 못함  
俄有府吏告 좀 있다 부사가 와 보고하고  
簞壺適携持 음식을 가지고 와 대접하려니  
公笑此不妨 공은 웃으며 괜찮다 하네  
邇來非向時 요즘 상황 옛날 같지 않다하면서  
重重潤少海 거듭해서 우리나라 운택 케하니  
永永清南陲 남쪽 변방 이제 길이 맑아졌도다

49) 崔笠, 『簡易集』, 「督運檢察使柳西垞先生在彌串, 寄和道中韻 四首, 今爲謝。」 “吾衰又今日, 旅泊卽爲家, 硯破書難食, 囊空酒莫賒, 寧論仲子粟, 且灌主人花, 尙賴葑菲妾, 彌能執敬和. 病休三世藥, 窮謝五行家, 報主心雖耿, 爲臣迹故賒, 亂中僑舍酒, 春後異鄉花, 亦有舒憂作, 眞成臭味和, 右二首自敘, 知公誰似我, 憂國獨如家, 海上能輕瘴, 天涯詎覺賒, 幾催千丈髮, 又了萬重花, 肯使軍興乏, 殘甃恐失和. 登臨隨地眼, 消息見人家, 痛切南荒聳, 憂分北極賒, 偶因閑把筆, 寧有夢生花, 猶覺百六十, 不將凡語和. 右爲先生敘.”

餘生屬相慶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축하하면서  
一醉安足辭 한 번 취함 사양할 수 있냐 하시네  
我惟公所命 나는 오직 공의 명함 따르니  
滋味驚調飢 맛있는 음식에 주린 배가 놀라고  
下筯乍生熟 수저 드니 바로 날것과 익은 것 먹고  
盃杯集喜悲 술 마시니 희비가 교차하네요

(하락)

최립은 「重謝巡相辱教之意，蓋不在淺淺也」 시에서 유근의 글솜씨를 大匠, 즉 위대한 장인으로 표현하였고 본인은 巫拙이라며 유근을 칭송하였는데, 이 시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한다. 유근의 시를 ‘珠玉’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시가 사람의 살 끝에 맺힌 흠을 도끼로 휘둘러 벗겨낼 만큼 대단한 장인정신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문학이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문장가인 최립의 인정은 유근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유근의 교유관계를 살펴보았다. 유근은 어릴 적 학문을 배우며 교유했던 벗들은 물론 조정에서 만난 이들과도 나이는 물론 신분차이와 당색을 뛰어넘어 두루 교유하였다. 또한 한 번 교유한 벗들은 그 교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그의 특징이다. 유근의 문집을 보면 당대 名文章家부터 조정의 대신들, 중인과 스님까지 다양한 인사들과 교유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유근의 문집에 贈詩와 次韻詩가 많은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 Ⅲ. 유근의 문예활동과 문학의식

#### 1. 유근의 문예활동

유근의 문장력은 24세의 나이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사가독서에 선발된 것으로도 대략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詩에 長處가 있음을 인정받고 있었다.

당세의 선비인 東臯 崔筮에게 序를 쓰게 하고, 西垞 柳根·蓀谷 李達·汝章 權驪·子敏 李安訥에게 詩를 쓰게 하고, 石峯 韓濩·南窓 金玄成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李楨 懶翁에게 색채를 베풀어 像을 만들게 하였다면 아마도 모두 그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허균이 남긴 「詞翰傳芳序」에서 언급된 이들은 당시 조선에서 예술의 각 분야별로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인물들이다. 이 글에 따르면 문장은 최립, 시에서는 이달·권필과 더불어 유근이 가장 뛰어나다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었다. 허균은 위의 글에서 「詞翰傳芳」의 그림에는 서거정과 강희안 등이 시를 썼는데 ‘藻響이 부족하여 卑俗에 떨어져’ 옛날 물건이라 해도 볼 것이 없다고 평하고 있다. 허균은 조향이 풍부하고 비속하지 않은 시인으로 이달과 권필, 유근을 뽑은 것이다. 유근은 당시 기라성과 같은 여러 문인들 속에서도 최고로 꼽힐 정도로 詩作능력을 인정받았다.

南龍翼의 글에도 유근의 詩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 있다.

우리나라 東槎의 성대함은 공용경 때를 능가한 적이 없다. (중략)

50) 許筠, 『惺所覆瓿藁』, 「詞翰傳芳序」 “若使當世之士東臯爲序, 西垞, 蓀谷, 汝章, 子敏爲詩, 而石峯, 南窓書之, 李楨設色模像, 則又詎必盡出其下耶.”

五峰 李好閔과 西垞 柳根이 迎慰가 되고 簡易 崔笠이 마침 기성에서  
타관살이를 하니 당시 사람들이 文星이 관서지방에 모였다고 하였  
다.<sup>51)</sup>

南龍翼의 글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이호민과 유근, 최립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들이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迎慰使는 중국의 사신들과 수  
창을 해야 했기에 漢詩로 이름난 이들이 임무를 맡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그  
당시 詩분야에서 유근의 명성은 당대 최고라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송시열  
은 『西垞集』 유근의 시가 뛰어난 이유는 바로 유근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五峯 李好閔 李公과 詩에 대한 명성이 가장 서로 비등하였는데,  
나는 비록 詩賦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찍이 前輩들 談論을 들  
어본 바에 의하면, 天才에 있어서는 西垞이 五峯만 못하고, 人功에 있  
어서는 오봉이 서경만 못하다고 하자, 評하는 이가 말할 줄 안다고 하  
였다.<sup>52)</sup>

시에 있어서 天才보다는 人工에 의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  
아, 유근의 시 또한 해동강서시파로 분류되었던 황정욱의 시세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빼어난 시적 능력을 일찌감치 인정받은 유근은 승문원에서 필요  
한 공문서를 담당하고 중요한 국제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외교관으로서 활약  
하였다. 유근은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1580년(선조13년)에 일본의 사신 玄

51) 南龍翼, 『壺谷詩話』, “李五峰好閔·柳西垞根爲迎慰, 崔簡易立適僑居于箕城, 時人爲之文星聚關西云.”

52) 宋時烈, 『西垞集』, 「西垞集序」, “公最與五峯李公 詩名相埒焉 不佞雖未涉聲病之流 而嘗聞前輩譚藝之餘論 西垞不如五峯之天才 而五峯不如西垞之人功 評者以爲知言云爾.”

素와 平調信이 왔을 때 선위사로 선발되었다. 이후 1587년(선조20년)에 일본의 승려 현소가 다시 방문하자 선조는 문장과 재지를 두루 갖춘 인물, 곧 유근을 지명하여 재차 선위사로 제수하였다. 선위사를 제수할 당시, 선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웃 나라의 사신을 接伴하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일본 사람은 詩에 능숙한데, 시를 주고받을 적에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필시 그 나라에 비웃음을 살 것이니, 관계가 가볍지 않다. 宣慰使는 職秩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당대의 문장으로 이름난 선비로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조 정랑 柳根을 선위사에 제수하라.<sup>53)</sup>

선조의 발탁을 받은 유근은 기대에 부응하여 그 외교력과 문장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선위사 유근의 접대를 받고 유근의 시에 매우 감복한 현소는, 다시 조선을 찾았을 때 유근의 행적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이 때 유근은 모친상을 당하여 괴산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현소는 충주를 거쳐 가게 되자 유근이 어디에 사는가 묻고는 멀리서나마 유근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였다.<sup>54)</sup>

유근은 중국과의 외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근은 선조9년(1576)에 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임진왜란이 발발한 선조25년(1592년) 義州迎慰使로 발탁되어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였다. 이 때의 사안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조선의 수복을 위해서는 명나라의 군대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명에서는 조선이 왜와 손을

53) 『宣祖實錄』 21권, 선조 20년 10월 22일 丁丑, “傳曰 接伴隣使, 其任極重. 況日本人能詩, 酬唱之際, 如或未盡, 必傳笑於其國, 所關非輕. 宣慰使勿論職秩高下, 極一代文章之士, 差遣可也. 吏曹正郎柳根, 除宣慰使.”

54) 「柳根」諡狀, 金昌協, 『國朝人物考』15. “明年, 遭所後內艱, 廬于槐山墓下, 蘇之還之, 路過忠州, 問公所居何在, 遙拜致敬, 至於涕出云.”

잡고 조선을 침략하였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대신들 중에서는 명나라의 구원병이 오히려 우리 국토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근은 명나라의 의심을 풀어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조선의 백성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명나라 군대의 주둔 기간을 짧게 잡아야 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 명의 오해를 풀고 구원병을 요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606년, 詩書畫에 빼어난 안목을 가졌던 중국 사신 朱之蕃과의 만남은 남달랐다. 선조 39년의 실록에는 주지번이 황자 탄생을 기념하여 조선에 오게 되자, 이를 맞이하기 위한 논의가 보인다. 선조가 주지번이 어떤 인물인지 묻자 이호민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朱之蕃은 곧 을미년에 장원한 사람인데 중국의 과거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장원은 반드시 가려서 시키므로 이름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본다 해도 그가 심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신이 그저께 이덕형을 보았더니, 덕형이 ‘중국 사람들이 학사 문장을 꼽을 때는 焦竑·黃輝·朱之蕃 세 사람을 든다.’ 하였습니다. 아마 이름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sup>55)</sup>

이렇게 문장으로 이름난 주지번이 사신으로 오게 되자 조선 또한 문장 능력이 뛰어난 이들을 위주로 접대 일행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유근은 대제학으로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행의 책임자인 원접사로서 주지번을 맞이하였다. 주지번은 원접사로 만난 유근 일행과 수창한 시를 중국에 돌아가 『東方和音』<sup>56)</sup>으로 간행하였다. 조선에서 중국 사신들이 지은 시를 ‘皇華集’으로 간행

55) 『宣祖實錄』 195권, 선조 39년 1월 23일 壬辰, “李好閔曰 朱之蕃乃乙未年壯元也. 天朝科舉, 不如我國, 壯元必擇而爲之, 非有名則不得爲之. 以此見之, 亦知其非尋常之人也. 且中朝之人有新作書冊者, 使此人爲之序云. 臣頃見李德馨則德馨云 中原之人, 數學士文章, 只稱焦竑、黃輝、朱之蕃三人. 蓋有名之人也.”

56) 박영민의 「유근의 문예활동과 시세계 연구」에 따르면 『東方和音』은 주지번의 문집인 『奉仕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선의 원접사 일행의 시를 중국에서 간행하여 유포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사신으로 온 주지번은 원접사 유근 및 그 일행과 수창한 시를 모아 중국에서 간행하고 전파하였다. 『東方和音』의 제일 첫 부분에는 유근의 시 26수를 수록하고 그 아래에는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한두 수씩 수록하였는데<sup>57)</sup> 成海應의 기록에 따르면 주지번은 유근을 특별히 대우하였다.

괴산의 孤山亭은 옛날 서경 유근의 별장이었는데 달천의 상류인 괴산탄이라는 곳에 있었다. 중국 조정의 사신 주지번이 우리 동방에 왔을 때, 화공을 보내어 눈으로 본 풍경을 묘사하도록 하고, ‘隱屏’이라는 두 글자를 바위에 새겼다.<sup>58)</sup>

주지번이 『東方和音』에 유근의 시를 26수나 실어 간행하고 화공을 유근의 별장에 보내어 그림을 그려오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주지번이 유근의 詩, 혹은 유근의 개인적인 매력에 호의를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근의 외교 활동은 조선 문학사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유근은 본인의 詩를 알리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의 詩를 중국에 알리고 조선의 詩人を 중국에 소개하는 통로를 여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이는 유근이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에 제술관을 대동하는 일을 정식으로 만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59)</sup> 제술관 대동의 시작은 李廷龜가 車天輅·權鞞 등을 위시한 세 명의 문인과 함께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이후 유근이

---

朝鮮藁』의 부록으로 남아있다고 하였으며, 『사고전서총목』을 인용하여 이 문집의 제2책이 바로 『東方和音』이며 조선국 의정부 좌찬성 유근 등이 시라고 밝히고 있다.

57) 박영민, 『한국인물사연구』15호, 「유근의 문예활동과 시세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58) 成海應, 「名塢志」, 『研經齋全集』, “槐山之孤山亭, 故西坳柳根之別業也, 在達川上流, 爲槐山灘, 皇朝詔使朱之蕃東來時, 遣畫工移摹以看, 寫隱屏二字以刻厓.”

59) 박영민, 『한국인물사연구』15호, 「유근의 문예활동과 시세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606년과 1609년 두 차례에 걸쳐 김현성 및 차천로 등을 대동하였던 일로 제술관 대동이 정식이 되었다고 하였다.<sup>60)</sup> 제술관은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구성되었기에 원접사는 당대의 문인을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원접사로서 중국 사신을 접빈하였던 유근은 당대의 문사들을 종사관, 제술관, 능서관 등으로 불러내어 중국 사신에게 소개하거나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洪瑞鳳·許筠·金尙憲 등이 유근과 함께 원접사 일행이 되어 중국사신에게 이름을 알리고 文名을 떨쳤다.<sup>61)</sup>

또한 주지번과 양유년이 찾아왔던 17세기 초의 조선 문예 환경은 전쟁의 여파로 이전의 내용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상태로 혼란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나갔다. 많은 책들이 전란에 불타 없어져 조선은 사신을 파견하며 중국의 서책을 새로이 수입해오도록 하였는데, 이 때 중국의 출판물들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조선의 문화와 융합되어갔다.<sup>62)</sup> 사신들은 이렇게 새로운 문예 환경을 재편해 나가는데 교량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대제학이면서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며 중국 사신들과 자주 교류하였던 유근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604년(선조37년), 56세의 나이에 대제학을 겸하게 된 유근은 考試官으로서 조선의 문풍을 진작시켜 문인을 육성하며 詩選集을 찬집하고 국가의 공용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선 문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다. 考試官으로서 유근은 매우 엄격하였으며 文風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38년, 대제학에 임명된 유근은 선조와 함께 주역을 講하는 자리에서 당시 과거시험의 文風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본인과 같은 이가 主文官이 되었기에 문폐가 생겼다는 검사로서 시작된 이 토론에서 당시 문풍을 바라보는 선조의 시각과 이에 대한 유근의 해결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60) 許筠, 『惺翁覆瓿藁』, 「惺翁識小錄上」 “無製述官帶行者, 壬寅顧, 崔之來. 月沙帶金玄成, 車天輅, 權鞞三人, 丙午西峒又請金, 權二人, 權辭而金往, 己酉西峒又帶車天輅及梁慶遇, 遂爲定式云.”

61) 박영민, 『한국인물사연구』15호, 「유근의 문예활동과 시세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62) 신영주, 『한문학보』16권, 「주지번의 조선사행과 문예 교류에 관한 일고」, 2007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문장은 어떠한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근래 문체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여 년 이래 韓愈詩와 東坡의 글을 모두 읽지 않기 때문에 문체가 이러합니다. 이때에 권장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요즈음 사람들은 전혀 古文을 師受하지 않고 다만 東詩로 전업을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체가 날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韓愈詩는 곧 문장의 근본이며 원기인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한시를 많이 읽으면 시를 짓는 데에만 유효할 뿐 아니라 行文하는 데 있어서도 통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권장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sup>63)</sup>

요즘 문장에 대하여 선조가 묻자 유근은 조선 문장의 병폐가 韓詩와 蘇東坡의 글, 즉 古文을 읽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진단하였다. 남근은 유근의 말을 보충하여, 古文을 배우기보다는 東詩, 즉 우리의 시를 짓는데 열중하기 때문에 문체가 약해진다고 보았다. 이들의 말을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조선의 詩風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東詩는 개성적이며 현실적인 조선의 시를 짓는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고문으로 기초적인 수업을 튼튼히 하지 않기 때문에 詩의 구성과 내용이 단단하지 못하고 수식에 치우치

63) 『선조실록』 선조 38년 11월 3일 癸酉, “上曰 近來文章何如 柳根對曰 近來文體大變. 十數年來, 韓詩、東坡皆不讀之, 故文弊如是. 願及此時 勸獎幸甚. 南瑾曰 今之人 專不師受古文 只以東詩爲業 文體之所以日卑也. 柳根曰 韓詩乃文章根本元氣也. 古人云 多讀韓詩則非徒見効於作詩, 雖至於行文, 亦可通暢矣.”

는 폐단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조선의 詩壇에서는 중국 시와 다른 조선 고유의 시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성찰이 활발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선조 및 관료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變化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유의 시에 대한 모색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일 것이나, 이러한 현상이 지나쳐 시의 기본을 잃는 과실이 잦아 이를 우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古文을 강조하는 유근에 대하여 선조는 ‘요즘 선비들이 榜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1등으로 입격한 자의 글을 傳書하여 韓愈와 柳宗元의 글을 읽듯 한다고 한다.’는 점, 독서를 소홀히 하는 점 등이 또한 문체 저하의 이유로 들면서 유근에게 맡은 책임을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날의 대화에서 유근은 조선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문풍 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근은 월과의 주제로서 ‘예조가 괴이한 문자를 취하지 말라고 청함’으로 하여, 문폐를 바로잡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으로 유근 본인 또한 괴벽한 문자사용에 대한 경계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sup>64)</sup> 토론의 끝에 박홍로가 한 말은 유근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엄격하였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유근이 문폐에 대해 한 말은 옳습니다. 유근이 문폐를 바로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근이 考官이 되면 응시자가 입장할 때 유근이 가는 곳을 피한다고 합니다.<sup>65)</sup>**

유근은 이렇듯 약화된 문체를 보완하기 위해 애쓰는 동시에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로 폐지되

64) 『선조실록』 선조 38년 11월 3일 癸酉, “柳根曰 今月課題以 禮曹請勿取險怪文字. 出此題者, 小臣欲矯文弊之意也”

65) 『선조실록』 선조 38년 11월 3일 癸酉, 朴弘老曰: “柳根文弊之言是也, 柳根欲矯文弊, 故柳根爲考官, 則舉子入場時, 避柳根所去之處云矣.”

있던 사가독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유근은 끊임없이 환기 시켰다. 유근은 선조와의 토론에서 '선왕조에는 문사 6~7인을 선발하여 文章 養望이라 불렀다하니 지금의 문체가 어찌 조종조와 같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sup>66)</sup>'하며 독서당을 다시 설치하여 걸 맞는 인재를 뽑아 독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본인의 의견을 돌려서 이야기하였으나, 선조는 독서당을 설치하더라도 실효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한다.

그러던 유근이 독서당 설치의 염원을 이룬 것은 광해군 때였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다시 문형을 맡게 된 유근은 광해군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사변을 겪은 이후로 온갖 규모가 차츰차츰 예전대로 회복되는데, 인재를 기르는 한 일만은 아직 저를이 없습니다. 국가가 讀書堂에 휴가를 주고 공부시키는 제도를 두어, 主文의 신하가 예조·이조의 당상과 회동하여 유신 가운데서 재주와 인망이 있는 자를 골라 뽑아서 番을 나누어 휴가를 주고 오로지 책만을 읽힌 것은 매우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17년 이래로 다시는 이 법이 없어져서, 영재는 있으나 능히 책을 읽고 학문을 강론하는 것으로 자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인재를 장려하여 성취시키는 일은 아침에 명령하여 저녁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祖宗朝에서 인재를 배양했던 훌륭한 뜻을 진실로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sup>67)</sup>

광해군은 유근의 건의를 받아들여 독서당을 다시 설치하는 일을 운허하였다.

66) 『선조실록』 선조 38년 11월 3일 癸酉, “柳根對曰: 臣少時間之, 先王朝選文士六七人, 號爲文章養望. 今之文體, 安敢望祖宗朝乎?”

67) 『광해군일기』 광해 즉위년 9월 14일 戊戌, “大提學柳根啓曰: “經變以後, 凡百規模, 稍稍復古, 獨儲養人才一事, 尙未遑焉. 國家設賜暇讀書堂, 主文之臣, 會同禮曹, 吏曹堂上, 揀擇儒臣中有才望者, 分番賜暇, 專責讀書, 甚盛舉也. 十七年來, 無復是規, 雖有英才, 其能以讀書, 講學自任者鮮矣. 獎掖成就, 非可以朝令而夕有效也. 祖宗朝培養人才之美意, 誠不可廢而不行. 讀書堂舊基在於東湖, 而漢江別營, 今方虛棄, 姑於此處, 設爲讀書之所, 未爲不可. 將此意議于大臣, 施行何如?” 傳曰: “依啓.”

광해군이 즉위한 때를 기다려 독서당에 대해 다시 건의하였던 유근의 모습에서 독서당의 재설치에 대한 유근의 양망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유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 어갈 인재 양성에 대한 유근의 남다른 책임감의 발로였다.

유근은 대제학으로서 선조의 명을 받아 『東人詩賦』를 간행하는 일을 맡아 완성하였는데 이는 조선 중기의 유일한 시선집 편찬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실록에 따르면 선조가 『東人詩賦』의 간행을 명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 시, 조선의 대표적인 시를 선별한 문집을 만들어 조선의 한시 수준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는 특히 ‘대체로 우리나라 행문(行文)의 체재는 별로 볼 만한 것이 못 될 듯하고 오직 시부만은 유려하여 볼 만하기 때문 이<sup>68)</sup>’라고 하여 조선의 시문이 문장보다 수준이 높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많은 시인들의 뛰어난 詩作들이 유실되었으며, 잔존한 것이나마 모아두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선조가 『東人詩賦』 편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였던 이유였다.

선조는 이 일을 당시 대제학 맡았던 申欽에게 명하였으나 신흠이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대제학인 李好閔에게 부표를 붙인 초록본과 여러 문집을 넘겨주며 시집 편찬을 맡겼다. 그러나 이호민은 1605년(선조38년)에 『동인시부』의 편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직을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였다.<sup>69)</sup> 선조는 이를 윤허하고 바로 유근을 대제학으로 임명하여 시집편찬의 임무를 부여하

68) 『선조실록』 183권, 선조 38년 1월 15일 庚寅

69) 『선조실록』 183권, 선조 38년 1월 14일 己丑, “延陵府院君 李好閔啓曰: 東人詩賦抄錄事, 命下已久。 臣申欽, 始承於爲提學之日, 頗加付標, 及臣待罪文衡, 申欽啓屬于臣, 玉堂吏將申欽所付標者及他餘諸集, 歸之于臣。 臣試取諸集, 將爲下手, 則製作固難, 抄人作尤難。 製作工拙, 隨分而人辨之, 至於人作, 則古人運意、遺詞, 各有所指, 而已辨之。 前輩風流, 固不以一詩句去取, 而有所加損, 間有文人詞客, 或以一句褒貶, 而未免介於平生者。 身在堂下, 辨人堂上妍醜, 其不免乖舛者幾希, 吟魂有知, 想必冷笑於泉下。 茲不敢遽其事, 沈吟度日, 不覺歲月變遷, 臣之逋慢, 不勝惶恐待罪。 第臣既遞文衡, 凡一時大小述作, 宜出文衡, 請依前屬之文衡, 以畢其事, 允爲便益。 且臣之前日, 竝解所帶諸局者, 皆以坐次禮貌之不便, 則所帶同知經筵事, 謂有司自當照例竝遞, 而至今未有處置, 卒卒混帶。 正二品之判書, 既以體面有礙, 而遞之, 則獨可仍兼帶從二品之同知乎? 臣所帶同知經筵事, 請命遞改。 惶恐敢啓。 傳曰: 允, 勿待罪。 同知經筵事, 令吏曹議處。”

였던 것이다. 유근은 역대 시인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  
다며, 대제학을 사양하였으나, 선조는 친히 중국의 이백과 두보, 소식 등의  
대시인들도 다양하게 평가당한 사례가 있음을 예로 들며 사양하지 말고 시집  
을 편찬할 것을 강력히 명하였다.

명을 받은 유근은 1605년, 이호민·오억령·신흠·윤근수·이정구·한준겸·홍경신·  
정협 등과 함께 조선 사람의 詩賦를 초선하였다. 1605년 8월 8일, 선조임금  
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初選이 완성된 뒤 오류를 정정해야한다는 내용과  
유근이 이 책에 대한 序文을 담당하게 되었던 일, 그리고 시집의 이름을 의논  
하여 『海東詩賦選』이라 지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70)</sup>

『海東詩賦選』이라는 詩選集을 편찬하였던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漢詩史  
적 의의를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詩選集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여러 조선 문인들의 문집과 시모음집을 수집하였기에 문인들이 개인적으로  
한시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  
례로 觀閣에서 許筠에게 『동인시부』에 들어갈 虛封의 한시를 요구하자, 허균  
은 이를 위해 형인 虛封의 시 114편을 추려 「荷谷詩鈔」로 만들고 나머지  
136편을 모아 補遺로 붙였다고 하였다. 허균은 이를 황해도 遂安 郡守로 나  
가면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두 번째, 중국과는 다른 개성적 시세계를 이룬 조선 漢詩의 독자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였다는 점이다. 선조는 조선의 시가 중국의 시에  
비해 역사가 짧으나 가치가 아예 없을 수 없다<sup>71)</sup>면서 조선 한시의 독자적 가

70) 『선조실록』 190권, 선조 38년 8월 8일 庚戌, “大提學啓曰: “東人詩賦, 前日啓下, 中書今當選入. 但鄭希良 〈讀宋史〉七言律詩有 ‘半夜相傳揖讓規’之語, 曾於天使抄給之時, 自有勿抄之教, 而臣等未及聞知, 并爲編入於七言律詩之類, 今始聞之, 極爲未安. 今欲就鄭希良集中, 抄選他作, 編入其中, 此一篇去之然後選入, 未知如何? 且曾有下教, 令臣製進序文, 拾遺一編, 隨後抄選事, 已爲啓下. 今方收聚私藁, 欲待抄完, 然後製進, 而今既罷本廳, 未知何以爲之? 冊名曾以《海東詩賦選》議定. 若爲無妨, 當書於卷面第一行, 敢此并稟.” 傳曰: “序文製進, 啓下後, 并於卷首, 并書以入.”

71) 『선조실록』 183권, 선조 38년 1월 15일 庚寅 “前因天將贈給, 偶下東人詩賦抄選之命, 蓋我國行文之體, 似不足觀, 惟詩賦流麗可愛. 中朝之人, 或以江左譏之, 然未可盡輕之. 數百年來, 中間傑作何限, 而兵火之餘, 零落散失, 豈非可惜? 失今不抄, 湮沒無存者矣.”

치를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 한시의 유실을 걱정하며 이를 모아 두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이는 국가적으로 조선 한시만의 개성과 독자적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였던 당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海東詩賦選』은 중국에 조선 한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였다. 『海東詩賦選』이라는 시선집의 편찬 목적은 바로 중국 사신에게 수준 높은 조선의 최근 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1605년, 대제학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 사신에게 시를 抄給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海東詩賦選』의 내용이 전부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교적인 자리에서 조선의 한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선집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한시의 본령인 중국에 수준 높은 조선 한시를 널리 알리고, 조선의 최신 한시 동향을 알리는 매체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유근은 대제학으로서 국가의 주요 공문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아 많은 문장을 작성하였다. 선조29년, 유근이 48세 되던 해에 승문원에서 글 짓는 인재가 부족하여 중대한 문서작성이 자꾸 지체되자 경기 감사 유근이 문장에 능하므로, 승문원 제조를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청하자 선조가 승낙하는 것으로 보아<sup>72)</sup> 유근은 대제학이 되기 전부터 주요 공문서 작성에 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04년, 대제학이 된 유근은 본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조선의 문장가를 대표하여 글을 지어 올렸다. 선조 37년 10월, 王世子가 大殿에게 올린 箋文과 中殿에 올린 전문 및 백관이 올리는 전문을 모두 지어 올렸으며, 선조의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왕세자가 올리는 賀箋과 백성에게 반포하는 선조의 赦文을 직접 작성하였고, 선조가 승하하자 諡冊文을 지어 올렸다.

유근의 공용문 작성 능력은 인목대비 폐모론 이후 조정의 움직임에서도 잘

72)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20일 丙戌, 承文院啓曰: "近日, 本院重大文書, 逐日填委, 製造之人, 只爲一二員, 力未能及, 緊急之事, 動至稽緩, 臣等尋常憂慮, 不知所處. 京畿監司柳根, 長於文翰, 近以外任之故, 未兼承文院提調, 不參於文書(閏)(潤)色之事. 京畿監司, 雖云外任, 本職乃知中樞府事, 在京日多, 卽是京官也. 請柳根, 本院提調兼帶差下. 使之參與文書之事, 何如? 傳曰: 依啓"

드러난다. 1613년 인목대비 폐비론이 일자, 유근은 등청하지 않고 괴산으로 숨었고 광해군 측근은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탄핵하여 유근은 조정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문장 능력이 필요한 일에 직면하게 될 경우, 조정의 대신들은 유근을 불러들여 다시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국가의 辭命을 만들고 다듬는 일은 문장 솜씨가 있는 자가 하는 일이니, 어찌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柳根과 李廷龜 같은 자는 문장이 매우 뛰어나니, 咨文·奏文·계첩 등을 이 사람들이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sup>73)</sup>

신들은 李滉과 朴淳이 대제학이 된 뒤에도 제학으로 내려 제수한 분명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이정귀와 柳根을 제학에 의망하여 사명을 맡기려고 하였습니다.(중략) 또한 文翰에 노련하고 중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는 이정귀와 유근을 뛰어넘을 자가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sup>74)</sup>

유근을 매우 총애하였던 선조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근의 외교관으로서의 수창 능력과 공문서 작성 능력은 꾸준히 인정받았으며,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였던 능력이었던 것이다.

유근은 詩로 명성이 높아 문과에 급제한 뒤 외교 사절로서 여러 차례 활약하였으며 대제학으로서 공용문서를 작성하고 조선의 문풍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문장의 발전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앞장섰다. 유근은 이

73) 『광해군일기』 57권, 13년 8월 21일 庚寅, “國之辭命, 草創潤色, 當出其手, 豈可人人而當之. 如柳根、李廷龜, 文章妙世, 咨、奏、揭帖, 舍是其誰.”

74) 『광해군일기』 58권, 광해 13년 9월 10일 戊申, “臣等查得李滉、朴淳, 皆經主文後, 降授提學, 明有前例, 欲以李廷龜、柳根備擬, 稟授提學, 專委辭命. (중략) 且老於文翰, 諳委中朝事情, 無出於廷龜、柳根等, 惶恐敢啓. 伏候聖裁.”

런 노력을 통해 조선의 문예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2. 유근의 문학의식

### 1) 官僚的 文學意識

조선왕조는 崇文을 건국이념으로 事大를 외교정책으로 삼아 弘文館·藝文館·成均館 등의 三館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러한 館閣機關에서는 국정을 논하고 사명을 주관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등 국가의 禮樂制度를 관장하여 文風을 주도하였으므로<sup>75)</sup> 이에 종사하는 관리들은 문인으로서 뛰어난 자가 아니면 안 되었으며, 서로 일정한 문체와 사상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관각에 종사하였던 문인들 중 관각풍 문학을 구사하는 일군의 문인들을 관각파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이들이 공유하였던 사상은 바로 문장이 ‘道’를 싣는 도구라는 의미의 ‘文以載道’라는 용어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유근 또한 오랫동안 文衡을 맡아 관각의 공용문을 담당하였던 인물로, 「正氣錄跋」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각파의 문학사상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자고로 문장과 절의를 한 사람의 몸에 모두 갖춘 사람은 드물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문장은 진실로 작은 재주이나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자득하기 어렵다. 오로지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문장보다 중요한 절의에 대해서 혹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은 괴이한 일이 아니다. 절의는 실로 의로운 행동이라 말소리나 웃는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세운 뜻이 탁월하다면 작은 재주에 혹여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이 어찌 병이 되겠는가.<sup>76)</sup>”

75) 진단학회, 『韓國史 近世前期篇』, 을유문화사, 1981

76) 柳根, 『西坳文集卷之六』, 「正氣錄跋」, “自古文章節義鮮備於一人之身, 其故何哉, 文章固小技也, 不專心致意則不得也, 惟其所重在此, 則於其大者, 或有所曠闕也非怪, 節義實懿行也, 非聲

유근은 文章과 節義를 비교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文章을 작은 재주라 표현하면서 절의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節義의 행동은 곧 ‘道’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 체제에 대한 사상적 충성과 이를 위한 인격적 수양이 문장의 기교적 연마보다 선행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근은 文章과 道를 비교하여 道를 더욱 우위에 두고 있어, ‘文以貫道, 文以載道’의 관각파적 문학관과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詩로서 성정을 도야하고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시의 뜻이 인간의 성정과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하며, 화려한 수식이나 문장의 탁월함은 그 다음 문제였다. 공자가 말한 ‘繪事後素’나 ‘詩三百思無邪’라는 표현 또한 시의 감상에 있어서 문사의 수식보다는 뜻을 중시하는 문학관, 즉 ‘以義爲主’의 문학관을 내포한다.

그러나 오래도록 공유되었던 ‘文以載道’의 문학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개인의 사상적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나타나므로 유근이 생각하던 ‘文以載道’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는 조선 초와 당대의 관료 문인들의 문학사상과 비교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관각파 문인으로 대표되는 서거정은 ‘문은 도를 꺾는 그릇<sup>77)</sup>’이며 ‘경은 도를 심는 그릇<sup>78)</sup>’이라고 표명하였으며, 권근은 ‘문이 천지간에 존재하여 이 道와 함께 消長한다.<sup>79)</sup>’고 하였다. 조선 초, 관각 문인들은 성인의 마음이나 도의 구현은 당대의 문화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겼으며, 특히 ‘訓誥誓命과 禮樂刑政, 그 중 특히 宸章과 御札은 文의 지극한 것<sup>80)</sup>’이라 하여 제왕의 글이 가장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관각문학이 가장 훌륭하다는 논리이다.<sup>81)</sup> 곧 文章이 道에 종속된 개념으로 문

音笑貌所可爲也, 惟其所立卓然, 則於其小者, 或所不屑焉何病.”

77) 徐居正, 『四佳文集』, 「東問選序」 “況文者, 貫道之器.”

78) 徐居正, 『四佳文集』, 「成均館尊經閣記」, “經者, 載道之器.”

79) 權近, 『陽村集』, 「陶隱李先生崇仁文集序」, 卷二十, “文章隨世道升降, 是蓋關乎氣運之盛衰, 不得不與之相須.”

80) 徐居正, 『四佳文集』, 「御製飛氷詩後序」, “訓誥誓命, 禮樂刑政, 皆聖人之文, 而宸章御札, 其文之至也.”

장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조선 중기의 관각파의 문학관은 조선 초기 관각파의 문학관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月沙 李廷龜는 관각파의 현실참여 문장은 당대에 잊혀지고, 草野의 문장은 후세에 전하여 잊혀지게 된다고 주장<sup>82)</sup>하였다. 이는 곧 초야의 문장 또한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으로 문장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발언이다.<sup>83)</sup> 象村 申欽은 ‘문장은 작은 기예로서 도를 당하지 못한다.<sup>84)</sup>’라고 말하며 道本文末의 문장관을 주장하여 道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히려 문장이 아니면 도를 쫓 수 없다는 의미로 문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과 같다.<sup>85)</sup> 당시의 문장가인 谿谷 張維 또한 ‘문장은 스스로 정해진 가치가 있다.<sup>86)</sup>’고 말하면서 문학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유근은 조선초 관각파 문인인 서거정, 권근에 비해 200여년 뒤에 활동한 인물이며, 조선 중기의 관각파를 대표하는 이정구, 신희, 장유와는 같은 시기를 살았으며, 이들보다는 이십여 년 이상 먼저 태어났다. 유근의 「正氣錄跋」에서 확인한 ‘文以載道’의 문학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여러 관각파 문장가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문장이라는 독자적 분야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正氣錄跋」에서 유근은 ‘문장은 진실로 작은 재주’라고 하여 ‘文章小技論’을 제기한다. ‘小技’는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자 한다<sup>87)</sup>’고 했던 공자의 철학에 맞추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짓는 재주를 겸손히 표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 ‘小技’라는 용어 자체에 ‘道’와 ‘德’을 더욱 중시하는 관점을 은연중 내포하

81) 申福浩,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논문, 2003

82) 李廷龜, 『月沙集』, 「芝峯集序」, “文章之顯晦, 係世道消長, 遇其時則化於今, 不遇時則傳諸後, 遇者恒少而不遇者恒多.”

83) 申福浩,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논문, 2003

84) 申欽, 『象村稿』, 「晴窓軟談」, “文章小技也, 於道無當焉, 而贊文者目以貫道之器, 何也. 蓋雖有至道, 不能獨宣, 假諸文而傳, 然則不可謂不相須也.”

85) 윤재민, 『조선시대, 삶과 생각』, 「조선시대 문인 학자들의 문학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86) 張維, 『谿谷漫筆』, “文章自有定價, 其一時輕重, 或繫於名位, 而千秋不朽, 則顧其實如何耳.”

87) 孔子, 『論語』, “子曰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근은 뒤이어 ‘小技’에 ‘마음과 뜻을 다 하지 않으면 자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小技’는 ‘節義’에 비해 그 가치가 낮으므로 먼저 연마해야 할 것은 바로 ‘節義’로 대표되는 ‘道’이고, 이 ‘道’의 연마에 힘쓰다보면 문장의 연마에 소홀하게 되어 재주가 높지 않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유근은 ‘道’와 마찬가지로 ‘文章’ 또한 전력을 다해야 일가를 이룰 수 있는 분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장의 독자적 영역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희의 ‘문장은 작은 기예로서 도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正氣錄跋」에서 유근은 ‘文章’과 대비되는 용어로 ‘道’가 아닌, ‘節義’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집의 작가는 고경명과 그 아들들로서 고경명은 임란 중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전투 중 사망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節義’는 문집의 작가인 고경명과 그 아들들에 대한 찬사이자 ‘道’를 대표하는 행위 중 하나로, 壬亂과 胡亂으로 혼란스러웠던 유근의 시대에 절실한 실천적 도덕률이었기에 선택된 용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유근이 직시하고 있던 시대적 당면 과제가 포착되어 있다.

전쟁은 인간 본성의 추악한 면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극한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겪었던 유근은 추상적인 ‘道’가 얼마나 허망한지 뻗속까지 체험하였을 것이다. 또한 유근은 전쟁의 수습에 나서 여러 관직을 거쳤기에 경세가적인 관점에서 ‘道’의 실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근에게 이상적인 ‘道’는 실체가 없는 막연한 허상이 아니라 실천하는 道, 행동하는 道이다. 유근은 「正氣錄跋」에서 절의에 대하여 ‘實懿行也’라고 하였다. 곧 실체가 있는 의로운 행위가 바로 절의이며, 잠시 지어내는 겉모습으로 절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근은 전쟁이라는 체험을 통해 관습화된 ‘道’가 아닌, 들으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용

어인 ‘節義’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道’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유근의 ‘文以載道’에 관한 체험이 녹아 있는 해석일 것이다.

이렇듯 유근은 조선 중기 관각파 문인들의 문학관과 그 궤를 같이 하여, 문학의 고유한 가치와 영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文章이 담아야 할 가치는 허상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실천해야하는 道, 행동으로 옮기는 德이어야함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 2) 江西詩派의 影向

北宋의 黃庭堅(1045년-1105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江西詩派는 宋詩의 특질을 최대한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기실 그 理想은 곧 唐의 杜甫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詩를 기질과 재능을 통해 一家를 이루는 것이 아닌, 부단한 학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盛唐의 높은 수준의 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황정견은 杜甫 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 학습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은 宋詩의 특질로 이어지게 되었다.

江西詩派는 奇字의 단련을 통해 기이함과 질박함을 추구하며 助字를 사용하거나 熟어를 단련하며 궁벽하고 어려운 글자를 사용한다. 詩語를 확장하여 詩語로서 비속한 표현, 경전의 문자, 성리학적 개념어, 인명과 지명 등을 활용한다. 구법을 변화시켜 산문적 느낌을 강화하고 문학적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던 전통을 詩作에 끌어들이는 등 전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은 詩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經書와 史書 및 古文과 관련하여 체계적이며 풍부한 독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시의 조직과 구성에 치밀하더라도 겉으로 화려함이 드러나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질박한 느낌이 주거나 굳센 기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sup>88)</sup>

유근이 남긴 글을 살펴보면 문학의식의 형성에 강서시파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근의 「密山世稿序」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문 또한 부화한 수식보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의 나이가 겨우 십삼 세가 되었을 때, 사서와 이경과 양사홍이 선한 唐音을 학습하여 시를 짓게 되었으며 자라서는 사서와 역사서에 큰 힘을 쏟아 시문을 지으면 침착·균셈을 위주로 하였고 浮靡한 것을 경계하였으니 학사가 되고난 뒤부터는 신기재와 정호음과 같은 이들이 모두 이미 그를 종장으로 여길 정도였다.<sup>89)</sup>

이 글에서 유근이 시를 짓는데 중요한 학습서적으로 여긴 것은 書와 史, 즉 사서와 역사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서와 역사서를 읽고 침착하고 균센 기풍을 가진 시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뜻이 없이 浮靡한 시문을 경계하는 것이 올바른 詩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에 대해 신기재와 정호음이 종장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함께 관각 문학을 주도하였던 申光漢과 鄭士龍도 유근이 앞서 말한 한시의 이상적 모델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의 글에서 보이는 한시의 이상적 작법을 정리해보면, 역사서와 사서의 독서·침착하고 균센 기상·浮靡함 경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江西詩派에서 추구하는 시와 닮아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에 공감했다는 정사룡 또한 해동강서시파로 분류되고 있다. 곧 유근은 江西詩派의 시인들과 자주 교류하였으며 江西詩派적 경향의 시 作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 이종목, 『해동강서시파연구』, 태학사, 1995

89) 柳根, 『西垞文集卷之六』, 「密山世稿序」, “公年纔十三, 學四書二經及楊士弘所選唐音輒成誦, 及長, 大肆力於書史, 爲詩文, 以沈著適健爲主, 專以浮靡爲戒, 自爲學士時, 如申企齋鄭湖陰已皆以宗匠期之.”

유근은 江西詩派적인 作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단련하였으되,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의 역사를 두루 꿰뚫어보아 받아들이기 용이하면서 최상의 시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三唐詩人으로 널리 알려진 白光勳의 시집에 써준 서문, 즉 「玉峯詩集序」을 보면 유근이 역대 시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유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란 무엇인지 더욱 정확하게 드러난다.

육봉의 시는 진실로 唐을 잘 배워 자득한 자이다. 대개 詩라는 것은 氣를 위주로 하는데, 동방의 사람들은 치우친 곳에 태어나 그 기가 약하니 만약 唐詩의 음조를 본받고자 하면 그 시가 쇠약하여 볼 만한 것이 없게 된다. 시경 삼백편 이후로 시가 당나라 때보다 성한 적이 없었는데 배워서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천근하고 쇠약한 데에 빠져 끝내는 소동파나 황정견, 진사도 진여의의 더 나은 점을 따르는 것만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설이 유행한지 오래되어 의례 당풍을 배우는 자도 드물고 배워서 唐音에 방불한 자는 더욱 드물었다.<sup>90)</sup>

이 글에서 유근은 시의 가장 이상적 모델은 바로 시경의 시이며, 이상적 목표로 盛唐 시대의 시인, 즉 李白과 杜甫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삼백편의 詩經의 시는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의 選을 입은 작품이기에 理想으로 그칠 뿐, 후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경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의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백과 두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황정견이 盛唐시기의 杜甫를 목표로 하여 시의 작법을 연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근 또한 이백과 두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90) 柳根, 『玉峯集』, 「玉峯詩集序」, “玉峯詩, 眞能學唐而有得焉者也. 蓋聞凡爲詩, 以氣爲主, 東方人, 生於偏壤, 其氣弱, 若欲效唐詩音調, 其詩蕭然不可觀, 三百篇之後, 詩莫盛於唐, 學之而不類焉則反歸於淺近衰頹, 終不若從事蘇, 黃兩陳之爲愈, 此說之行久矣, 宜學唐者之鮮而學之而仿髣焉者, 爲尤鮮也.(후략)”

을 확인할 수 있다.

유근은 「玉峯詩集序」에서 ‘蓋聞凡爲詩，以氣爲主’라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氣라고 하였다. 이는 盛唐을 목표로 하여 시를 짓되, 盛唐의 자구나 기교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盛唐의 시와 같은 기상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이백과 두보를 배우다가 잘못하면 기가 허약하고 짧아져 오히려 송시를 대표하는 황정견, 진사도의 강건한 음률을 배우는 것만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 시인들의 기상은 약한 편이므로 배우는 자의 자질과 기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백과 두보를 바로 익히는 것 보다는 기상이 굳센 황정견과 진사도를 바로 배운 뒤 두보와 이백의 수준을 바라야한다는 것이 유근의 견해이다. 유근은 조선의 시인들이 이런 점을 우려하여 황정견과 진사도를 주로 공부하여 唐音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시인이 매우 드물었다고 하며 조선 시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유근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氣’라고 하였다. 이는 송시풍을 대표하는 강서시파의 영향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면에는 친밀히 교류하였던 최립, 윤근수 등 고문을 중시하는 문장가들과의 교류에서 더욱 공고해졌으리라 생각된다. 강서시파의 특질 자체가 古文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기상을 닮기 위해 노력한데서 발전하였기에 古文學습과 밀착되어 있다.

「陶峽叢說」에서 李宜顯은 조선 전기 문인들은 고문 중에서 과거에 도움이 되는 글만 가려 보아 관각문장의 실용 위주로 활용하였으나, 선조 때에 최립과 윤근수가 ‘古文’을 숭상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91)</sup> 최립은 특히 고문을 숭상하여 여기에 힘을 쏟아 조선의 고문을 한 차원 성장시킨 인물로 널리 인정받는 인물이며 유근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은 유근의 교류관계를 알아보며 이미 언급하였던 사실이다.

유근이 「彌串，次簡易寄韻」에서 최립을 ‘末路論文友’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91) 李宜顯, 『陶谷集』, 「陶峽叢說」, “我國人最重科業, 雖文詞超羣者, 無不折入於科業, 所製惟表策而已, 曾不着力於古文, 不過以韓, 蘇爲範, 用作科場館閣酬應之資而已, 至 宣廟朝, 崔簡易, 尹月汀數公, 始崇長古文, 一時習尚頓變, 其功可謂大矣.”

보아 최립과 문장을 논하고, 그의 문장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韓愈’를 중시하는 문장관이라 할 수 있다. 유근은 문학 사상적인 면이나 시적 풍모에 있어서 韓愈를 모범으로 삼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한유가 추구하였던 문학적 이상과 그 역할, 한유가 행했던 일상생활의 몸가짐부터 신하된 자로서의 도리까지도 그 궤적을 따랐던 흔적이 문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선조 38년 11월 3일, 周易講에서 한유라는 이름을 처음 꺼냈던 이도 바로 유근이었다. 유근은 과거시험을 중시하는 문장의 폐단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으로 ‘韓愈’를 읽어야한다고 두 세 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확산에 찬 어조는 바로 詩와 文章의 창작에서 ‘韓愈’를 중심에 두었던 그의 평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古文 중에서도 특히 韓愈를 중시하던 문인들의 경향과 맞닿아있다. 최립이 유근과 함께 ‘한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흔적이 『簡易集』에 남아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柳根)으로 말하면 바야흐로 문장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宗匠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이 경사에게서 서책을 구한다면 아무래도 문장과 관련된 것들이 위주가 되리라고 여겨진다. 대저 문장이라고 한다면, 韓愈나 歐陽脩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략) 그런데 韓愈가 자기의 문장에 대해 스스로 말하면서 ‘위로 본받고 아래로 미친 것[上規下逮]’으로는 몇 권의 서책을 꼽았을 뿐이다. (중략) 지금 중국에 가서 아직 보지 못했던 서책들을 구해 보려고 할 때에, 공이 쓸데없이 힘을 허비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여겨진다. 언젠가 공과 대화를 나눌 적에, 공이 館閣에 머물고 있는 시간 동안 다른 것은 차치하고 韓愈의 글 한 帙만이라도 다시 더 숙독을 하면 좋겠다고 내가 말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sup>92)</sup>

위의 글은 1601년 가을, 冬至兼陳奏使로 북경에 가는 柳根에게 序文의 일부이다. 이 때 유근은 진주사로 북경을 가면서 전란으로 탕진된 서적들을 재구입해 와야 하는 별도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 최립은 유근을 보내는 서문에서 문장으로써 종장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근의 위치를 재확인하며, 문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책을 구매하기 보다는 한유나 구양수의 서적을 구입해오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유근에게는 개인적으로 북경의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한유의 글을 한 질이라도 더 속독하라 당부하고 있으니 최립이 문장 공부에 있어서 한유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604년, 유근은 대제학을 겸하게 되었고, 조선의 문단을 이끌었다. 유근은 선조 앞에서 한유 및 구양수 등의 古文 독서의 효과에 확신을 보이며 고문의 독서를 국가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이 현실 가능한 이상 목표로서 盛唐의 시를 제시한 점, 강건한 氣像을 중시하였던 점, 한퇴지의 詩를 학습하고, 한유 및 구양수, 소식과 같은 古文의 독서 권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근이 江西詩派의 영향을 뚜렷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근은 강서시파의 作法으로 익힌 높은 기상 안에 감성적인 唐詩風 또한 아우르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백광훈에 대한 유근의 찬사는 결국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음을 고백한 것과 같다.

---

92) 崔笠, 『簡易集』, 「送柳西垞赴京師序」, “且公方以文章, 負宗匠之望於一時, 其所求書, 尤必以爲文章也. 夫文章得如韓子, 歐陽子可謂能矣. (중략) 韓自道其爲文章, 上規下逮凡幾書耳矣, 柳自道其爲文章, 本之參之凡幾書耳矣(중략) 今求觀夫未觀之書, 則公果可以省事, 而日者奉話, 欲公於留館之日, 却取韓子文一帙而更加溫熟焉者. 意已有在云.”

## IV. 시세계의 특징

『西垞集』은 1권부터 4권까지가 詩, 5권부터 8권까지가 文으로 시와 문장의 균형이 알맞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 그 양을 살펴보면 1권부터 4권까지 실려 있는 시가 526수이며, 5권~8권에 실린 문장은 총 67편으로, 한시의 분량이 文部의 분량을 압도하고 있다.

文集 중에서 詩集에 실린 시를 체제별로 정리하여 각각의 분량을 파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西垞集』 1권~4권 시의 형식별 편수

詩의 形式	詩題	篇 首	합 計	
五 言 絕 句	16題	27首	131題 158首	370題 470首
五 言 律 詩	84題	101首		
五 言 排 律	22題	22首		
五 言 古 詩	9題	10首		
七 言 絕 句	47題	78首	239題 312首	
七 言 律 詩	177題	219首		
七 言 排 律	13題	13首		
七 言 古 詩	2題	2首		
皇 華 詩	157首		627首	

표를 참고해보면, 유근의 문집인 『西垞集』에 남아있는 시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七言律詩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칠언율시는 177首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며, 오언율시는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자 수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자면 칠언시가 오언시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다. 산일된 시가 많아 문집에 남아있는 시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조심스러우나 표의 결과로만 보자면 유근은 글자 수로는 칠언, 형식으로는 율시를 위주로 창작하였던 듯하다. 또한 문집에 실린 시 중 황화시만 157시가 실린 것으로 보아 유근의 외교적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시를 남긴 유근에 대한 역대 문인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詩話集에서 찾을 수 있는 유근 관련 자료는 네 편정도로, 『小華詩評』·『詩評補遺』에 관련 일화가 각각 한 편씩 실려 있으며, 『西浦漫筆』에는 두 편이 실려 있다.

『小華詩評』에는 유근이 송도에 갔다가 젊은 시절 나라 안에 이름이 자자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기생을 우연히 만났던 일화가 전해진다. 유근은 이 나이든 기생에게 시 한 편을 지어 주었는데, 이 시에 대하여 석주 권필은 말이 지극히 쓸쓸하고[淒] 아름답다[婉]면서 잘된 시라고 칭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93)</sup>

『詩評補遺』의 일화에서는 이호(李浩, 1820-?)가 유근의 시에 대해 은근히 지적하자, 이를 웃으며[笑] 받아들이는 유근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sup>94)</sup>, 『西浦漫筆』의 두 가지 일화에서는 유근이 자신의 시를 칭찬하는 이에게 무엇이든 내주는 위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평이 함께 실려 있다.

**서경의 시는 정련[精鍊]·운당[穩帖]하여 관각에 뛰어났다.<sup>95)</sup>**

『西浦漫筆』의 이 기록은 일화의 첫 문장으로 등장하여 유근을 소개하고 있

93) 洪萬宗, 『韓國歷代詩話類編』, 「小華詩評」, “西垞柳根, 賞於松都, 遇一老娼, 乃小時擅名京國者也. 遂贈詩曰 瑤琴橫抱發纖歌, 宿昔京城價最多, 春色易凋鸞鏡裡, 白頭流落野人家. 詞極淒婉, 石州稱善云云.”

94) 洪萬宗, 『韓國歷代詩話類編』, 「詩評補遺」, “西垞笑曰 我知君意, 改生掛二字, 曰空自. 齋湖笑而伏曰 何敢云.”

95) 金萬重, 『韓國歷代詩話類編』, 「西浦漫筆」, “西垞之詩, 精鍊穩帖, 長於館閣”

으므로, 유근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精鍊’이라는 말에서 유근이 시의 조직과 구성에 매우 힘을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穩帖’이라는 말을 통해 완성된 시에서는 오히려 치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이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精鍊’은 유근이 詩作의 방법이며 ‘穩帖’은 유근 시의 총평인 것이다. 또한 유근은 관각 문학에서 뛰어났다는 평가를 보면 유근은 당시에 관각파 문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근의 시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관각 문학을 황화시와 그 외의 공무관련 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서 유근의 자연시와 교유시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논하고 강서시파적 성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근의 개인적 정감이 담긴 시를 모아 유근 고유의 감수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공적인 문인으로서의 유근과 문학인으로서의 유근, 그리고 개성을 가진 인간 유근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 그 정체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官僚的 面貌가 드러난 詩

유근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관각파 문인으로서 사신으로 발탁되어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 업무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으며 외교 활동의 결과물인 황화시는 문집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유근의 문집에는 황화시 외에도 업무 도중 느껴 지은 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 위정자로서의 의식이 투영된 시가 꽤 남아있다. 이러한 시들은 유근이 24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예조 좌랑·병조좌랑·좌승지·예조참판·한성부판윤·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며 공직 생활을 이어갔던 모습과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 1) 外交詩-皇華詩로 드러난 自負心

예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외교를 특히 중시하였다. 능란한 외교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을 차단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차단과 선진 문물의 수입은 국가 발전의 첩경이었으니 외교는 王朝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公務였던 것이다. 詩 三百篇을 읽고 이를 외교에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孔子의 정치·교린적 관점<sup>96)</sup>으로 보아도, 관각문신을 확보하여 능력 있는 사신을 양성하고 파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sup>97)</sup> 이렇듯 중요한 임무에 유근은 여러 차례 발탁되어 朝宗의 存亡을 가르는 중요한 자리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외교 상황에 대하여 李瀾은 「朱太史孤山圖詩跋」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소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로 일컬어져 왔다. 따라서 명나라 천자가 조서(詔書)를 내릴 때는 반드시 당대의 명망 있는 사람을 시켜서 작성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명예롭게 여겼다. 그런데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벼슬이 높지는 않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도 그 책임자가 아니면 감히 말지 못하였으므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정밀한 선발을 거쳤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시문들은 반드시 수합하여 시문집을 만든 다음 중국으로 부쳤는데, 태사가 중국으로 돌아가자 그 또한 『奉使朝鮮稿』 1권을 간행하여 西峒에게 보냈으니, 거룩한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다.<sup>98)</sup>

96) 孔子, 『論語』, 「子路」, “子曰, 誦詩三百,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97) 최두식, 『한국 사행시 연구 : 14세기-17세기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98) 李瀾, 『星湖全集』 「朱太史孤山圖詩跋」 “東邦素稱文明, 明天子降詔, 必命一時之望, 世以爲

이 글은 유근이 주지번에게서 받은 「孤山圖 36韻」을 유근의 방계자손인 柳德祖가 이익에게 보여주고 받아온 跋文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이익에 의하면 중국의 사신은 벼슬이 높지 않아도 문장을 잘 하는 사람을 뽑아 보냈으며 조선에서도 이를 맞이할 책임자를 찾아 정밀하게 선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리에 유근은 여러 차례 발탁되었으며 함께 수창했던 주지번은 시를 모아 출판하여 보내주었으니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이었다.

이익의 일반적인 설명을 통해서도 조선에서 외교가 얼마나 중시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특히 유근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의 위기를 중국의 도움으로 극복해내면서 중국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였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수록 빠른 시일 내에 유리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야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들이 사신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야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유근은 이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天朝救屬國 天자의 나라 속국을 구원하시니  
 終始濟艱危 시종일관 간난과 위기를 구해주셨네  
 吾王事大誠 우리 임금께서 진실되게 섬기시니  
 天地鬼神知 천지와 귀신이 모두 알겠지  
 憶昨請援初 도움을 요청하던 처음 그때를 생각해보면  
 使价頻西馳。사신들이 서쪽으로 분주히 달렸지  
 古稱詞命重。예전부터 사명 중요 말해왔는데  
 如公才是宜。그대와 같은 재주 여기에 마땅하다네<sup>99)</sup>

이 시는 유근이 의주에 있을 때 간이 최립에게 보낸 五言古詩이다. 개인적

榮，故有使東者宦不達之諺，我之儂接，亦非其人不敷，從事諸賢莫非妙揀，其來往唱酬，必合成集，付達於華夏，太史之西還，亦刊布奉使朝鮮稿一編，送之西垞，卽聖代之盛事也。”  
 99) 柳根, 『西垞集』, 「和簡易道人近體古詩」 ‘時以檢察使在龍巖’

으로 보낸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天朝’, ‘屬國’, ‘事大誠’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조선을 한껏 낮추고 중국을 높이고 있다. 이는 평상시에도 유근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얼마나 ‘事大’의 개념을 중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국가의 위기를 중국의 도움을 통해 극복했던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古稱詞命重’이라는 시구는 유근의 외교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詞命이란 대국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교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詞命’에 대해 유근은 옛날부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고 하며 사신의 문학적 능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유근은 스스로도 여러 차례 사신을 접대하며 외교적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576년, 선조9년, 질정관으로 중국에 다녀옴.
- 1580년, 선조13년, 32세, 宣慰使가 되어 일본 사신 현소 등을 영접함.
- 1587년, 선조20년, 39세, 선위사가 되어 일본 사신 현소를 영접함.
- 1592년, 선조25년, 44세, 의주영위사로 중국 사신을 맞이함.
- 1593년, 선조26년, 45세, 사은부사로 중국에 다녀옴.
- 1596년, 선조29년, 53세, 진주사로 중국에 감.
- 1606년, 선조39년, 58세, 원접사가 되어 중국 황태손 탄생 조서를 반포하러 온 주지번·양유년 등을 영접함.
- 1609년, 광해군1년, 61세, 원접사가 되어 중국 사신을 영접함.

유근은 29세의 나이에 질정관으로 중국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하여 자주 중국과 일본의 사신 영접에 참여하였으며,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원접사로 참여할 만큼 외교에 필요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특히 1606년, 명나라 황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正使 翰林院修撰 朱之蕃과 副使 禮科左給事 梁

有年이 조선에 찾아왔던 일은 유근의 외교 활동 중에서도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었다.

유근은 대제학으로서 遠接使로 임명되었는데 館伴으로 예조판서 李好閔과 함께 許筠·趙希逸·李志完을 從事官으로 삼아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다.<sup>100)</sup> 허균은 「惺所覆瓿藁」에서 중국 사신들에 대한 비평을 하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李五峯은 顧·崔 두 조사를 접대하면서, 물품을 요구해 오는 데  
에 고통을 겪었고, 柳西垞은 朱·梁을 접대하면서 詩賦를 唱酬하느  
라 고통을 겪었다. 汝章 이 말하기를, “五峯은 몸이 고달팠고, 西垞  
은 마음이 고달팠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 하였다.<sup>101)</sup>

이 글을 살펴보면 사신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알 수 있다. 李五峯은 李好閔으로, 壬寅年인 1602년, 중국에서 온 사신 顧天峻과 행인 崔挺健이 太子를 봉한 조서 반포를 위해서 찾아왔을 때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대느라 바빴으며, 柳根은 주지번과 양태사를 접대하며 계속하여 시를 짓느라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汝章 權驪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느라 이호민은 몸이 고달팠고, 유근은 마음이 고달팠다고 하였고 이 말에 다들 동의하였던 것이다. 허균이 남긴 글을 통해 보면, 유근이 중국의 사신과 매우 많은 분량의 시를 주고받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유근은 주지번과 破字형식으로 추리가 필요한 東坡體의 柝字詩만 12차례에 걸쳐 24수를 주고받았다고 하니<sup>102)</sup> 시를 짓느라 마음이 고달팠다고 한 진술이 결코 과장은 아닐 것이다.

100) 「宣祖實錄」 39年 4月 11日, 20日

101) 許筠, 『惺所覆瓿藁』, 「惺翁小識錄」, “李五峯儻顧, 崔, 苦於需求, 柳西垞接朱, 梁, 困於酬唱, 汝章曰 五峯勞力, 西垞勞心, 人皆謂然.”

102) 신영주 『한문교육연구』, 「탁자시를 활용한 한자놀이 수업방안에 관한 제언」, 2017

이 때 수장한 시는 『奉仕朝鮮稿』와 『皇華集』 38권~42권에 실려있다. 또한 『奉仕朝鮮稿』는 이후 2책으로 증보되는데 제1책은 『奉仕朝鮮稿』로 앞부분은 詩, 뒷부분은 雜著를 수록하였으며, 제2책은 『東方和音』으로 유근을 위시한 조선 관료들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sup>103)</sup> 유근의 문집에는 이러한 외교 활동의 성과물인 황화시의 일부가 실려있는데 『西峒集』에 실린 황화시는 총 157수로, 문집에 실린 시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상 중요한 황화시는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詩作法이 존재한다. 그 방법이란 풍경을 과장하여 묘사하고, 교유 상대국에 대한 강한 칭송을 통해 지속적 우호를 도모하는 경향을 띄며 기상이 溫潤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표출한다. 한편 황화시의 시적 표현에 있어 전반부에는 정경의 화려한 묘사, 혹은 조회나 잔치의 묘사가 이루어지며 후반부에는 천자나 중앙관료들에 대한 칭송의 내용이 구성되어 그 내용이 首尾相關을 이루어야한다. 이러한 시에 쓰인 시어는 富華하고 華麗하며 원색의 색채 대비를 자주 활용하여 시적인 분위기가 맑고 밝으며 따뜻하다. 이러한 시를 문학사에서는 館閣氣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sup>104)</sup>

유근의 皇華詩도 위와 같은 구성 및 시어, 시적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밝고 부드러운 정경의 묘사와 천자에 대한 칭송으로 이어지는 首尾相關의 시적 구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龍灣館，登聚勝亭曉發，次副使韻

용만관에서 취승정에 오르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며, 부사의 시에 차운하다.

江上層城城上亭 강가에 층층의 성, 성위엔 정자 있는데

水分三派四圍屏 세 갈래로 나뉜 물결 병풍처럼 사방 둘렀네

103) 『四庫全書總目提要』

104) 최두식, 『한국 사행시 연구 : 14세기-17세기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東人盡在恩波裏 동쪽 사람들 모두 은혜로운 파도 속에 있는 듯  
草色烟光滿海汀 풀빛이며 안개 봄빛은 바닷가에 가득하네

龍灣館은 의주에 있는 숙소로서 사신들의 왕래 시 숙박시설로 이용하였던 곳 중 하나였다. 의주 가까이에 있는 압록강을 龍灣이라고 했던 데서 그 이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의주로 피신하여 이 용만관에서 투숙하여 국사를 처리하였으며 명나라의 장수나 사신의 접대도 주로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sup>105)</sup>

이 시의 전반부는 취승정의 풍경 묘사로 시작한다. 강 위엔 성, 성위엔 정자가 있다는 표현은 마치 직접 탑을 쌓듯이 바닥에서부터 단계를 따라 정자의 위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위를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일행의 시선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자를 강 물결이 나뉘어 정자의 사방을 두르고 있다고 하였다. 후반부는 정경의 모습을 천자의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다. 정자를 감싸고도는 물결이 마치 황제의 은혜가 조선을 감싸 안은 것과 같다고 하며 東人, 즉 조선인이 천자의 사랑 덕택에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풀빛과 아스라한 봄빛은 약동하는 생명의 상징으로, 미물에 까지 미치는 천자의 은혜가 더욱 두텁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시는 정경의 묘사가 전반부를 이루고 이를 받아 풍경 자체가 천자의 은혜로 묘사된 首尾相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敬次副使泛大同江韻

부사의 '대동강에 배 띄우다.'시에 공경히 차운하다.

倏忽清和替艷陽 음력4월 어느새 화사한 봄 날씨로  
柳花飄蕩似繁霜 버들 꽃 표표히 흩어져 무성한 서리 같네

10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天邊劍戟群峯出 하늘 가 못 봉우리들 검과 창처럼 섰고  
 城上虹蜺列炬長 성 위엔 무지개처럼 횃불 길게 늘어섰네  
 禮絕敢言賓主會 높은 예우에 감히 빈주의 모임 말하는데  
 詩成多在水雲鄉 지은 시 대부분 은자 사는 수운향에 있는 듯.  
 東韓草木渾生色 동한의 초목이 모두 생명의 빛 띄는 것은  
 盡被皇家玉燭光 진정 황가의 옥촉의 빛 입어서 라네

을사년(1605, 선조 38) 겨울에 황제의 元孫이 탄생하자 명나라에서는 1606년 4월, 朱之蕃을 正使로, 梁有年을 副使로 임명하여 조선에 사신을 보내왔다. 이 시는 이 때 수창한 듯 보인다. 제목으로 보아 이들은 대동강 주변에서 노닐 듯한데, 유근은 이 날의 화창한 봄 날씨를 소재로 삼아 풍경을 묘사하고 후반부에는 이러한 생동하는 봄은 모두 황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례를 잊지 않았다. 이 시 또한 전반부와 후반부의 首尾相關을 잘 지키고 있으며 ‘淸和’, ‘艷陽’, ‘水雲鄉’, ‘玉燭光’ 등의 시어 또한 화려하고 따스하여 富華한 관각의 시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시는 특히 화려한 관각풍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색채감과 과장된 풍경 묘사가 돋보인다.

敬次大同江船遊韻 ‘대동강에 배 타고 노닐다’시에 공경히 차운하다.

朝來微雨歇 아침 되자 내리던 가랑비 그쳐  
 畫裏列仙遊 그림 속 신선들 노니는 듯  
 彩檝移蓮葉 화려한 배 연잎 새로 떠다니고  
 香醪灑玉舟 향긋한 술 배속 옥빛 술잔에 넘친다  
 霞紅鳥外落 붉은 노을은 나는 새 너머로 지고  
 天碧鏡中浮 푸른 하늘은 거울 속에 떠있다네

萬炬星芒亂 형형한 별빛이 하늘 가득 어지러운데  
層城枕翠丘 층층 성곽 푸른 언덕 기대서 있네

이 시는 풍경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색채 대비가 강렬하여 경쾌하면서 흥취를 돋우고 있다. ‘彩檝’과 ‘香醪’, ‘玉舟’는 ‘彩’, ‘香’, ‘玉’을 통해 시에 등장하는 소품을 매우 화려하게 수식하면서 색채감을 넣어 시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이어지는 풍경의 묘사 또한 매우 아름답고 화사하다. ‘霞紅’과 ‘天碧’은 붉은 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강렬하다. 특히 ‘落’과 ‘浮’라는 동사는 어둑해지는 광경을 묘사하면서도 시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경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炬星’과 ‘翠丘’ 또한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고요함에 잠기는 성곽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더구나 ‘枕’이라는 글자는 성곽을 擬人化하여 시적 재미를 더하고 있다. 황화시는 특히 화려한 풍경 묘사에 천자의 은택을 칭송하는 뜻을 밝히는데, 결구의 枕이라는 시어는 특히 은연중 천자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름다움을 지속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어 황화시로서의 특징을 모두 잘 갖춘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근의 황화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실제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여 사신이 함께하는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도록 하여 흥취를 돋우며, 전반부의 정경과 후반부의 천자에 대한 칭송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는 首尾相關의 방식으로 관각시의 기풍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근은 황화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황화시가 본인의 특징점이라고 인정하였다. 外孫 吳挺緯가 작성한 跋文에는 유근의 황화시가 문집에 실린 경위와 함께 유근이 황화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외할아버지 진원부원군서경유공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문**

인의 문집 간행은 자손의 일이니 내가 다시 바랄 것이 없다. 다행히도 황화집이 한 편 남아있으니 훗날 날 알아볼 자는 이 책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 말을 외워 들려주셨는데, 그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왕부께서는 평생 남기신 문자가 몇 천편인지 알지 못할 정도이나 병란 중에 상실된 나머지만 수습하여 저우 열에 두 세 개꼴로 남아있는 지경이니 항상 이것마저도 전해지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웠다. 그런데 하물며 황화집이라. 이때 조정에서도 밀서로 명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으나 널리 배포되지 않아 세상에 행해진 것이 많지 않았으니 이 어찌 다만 한 집안의 애통함이 될 뿐이겠는가! (중략) 저우 집에 소장된 시의 원고 약간 편과 황화집에 담겨있는 시를 나누어 상하권으로 만들어 오래 전해지도록 바라 취병서원에 비로소 안치하였으니 이는 우리 외왕부의 사당이다.<sup>106)</sup>

이 글에서는 유근이 황화집을 지목하며 ‘훗날 날 알아볼 자는 이 책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유근 본인이 자신의 황화시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시를 대표하는 것 또한 황화시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근 스스로 황화시가 문인으로서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라 규정한 것을 보면, 유근은 개인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문학가’로서라기보다는 국가를 대리하는 ‘관료적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유근은 문장이란 개인적 감성을 노래하는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적 기능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충족시켜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시 중에서도 황화시는 유근의

106) 吳挺緯, 『西垞集』, 「西垞集跋」, “外王父晉原府院君西垞柳公嘗語曰 文人遺集之刊行, 子孫事, 吾不復望也, 幸而皇華集一編在, 後之知我者, 觀此足矣. 先母常誦此言而詔之, 輒泫然. (중략)而況皇華集, 伊時 朝家命祕書印以鑄字而布之不廣者, 行于世已無多, 斯豈但一家之慟惜而已哉.” 王父平生文字不知幾千篇. 而撫拾於兵燹蕩佚之餘者. 僅什之二三. 恒恐并與是而無傳焉. 而況皇華集. 伊時 朝家命祕書印以鑄字. 而布之不廣者. 行于世已無多. 斯豈但一家之慟惜而已哉(중략)謹將家藏詩藁若而篇及皇華集所載詩. 分爲上下卷. 擬壽其傳. 藏諸始安翠屏書院. 卽吾外王父之祠宇也.”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유근 본인이 시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위의 글을 살펴보면 유근은 수창한 시가 황화집으로 간행되고, 이 책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이렇듯 유근은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文才를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던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김만종의 ‘관각에 뛰어났다’<sup>107)</sup>는 평가와 같이, 유근의 長處는 바로 황화시와 같은 관각시였고 그의 자부심은 바로 ‘국가에 위해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황화시에서 비롯된 유근의 자부는 자신의 시 전반으로 확대되었던 듯하다. 유근의 시에 대한 자부와 인정욕구가 『西浦漫筆』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김공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 헤져 마침내 서경을 뵈며 말하였다. “장인어른의 새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유근이 한 편을 꺼내어 보여주자 김공이 반도 채 읽기 전에 숙연히 응모를 고치며 말하였다. “제가 지난번에 망령되게 장인어른의 문장은 精緻은 넉넉하나 氣力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작품을 보니 峻壯·奇拔하여 전에 보았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야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것이 미진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근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이러한가? 내가 근래에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더니 그 효과가 아닌가?” 하니 김공이 말하길 “이는 반드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하며 칭찬하길 말에 끼어들 새도 없이 하였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 신발 코에 이슬이 조금 젖어들었다. 유근이 그 헤진 신발을 보고 말하길 “그대는 어찌 헤진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는 급히 여증을 불러 말하길 “지난번에 서장군이 보내준

107) 金萬重, 『西浦漫筆』, “西峒之詩, 精練穩帖, 長於館閣”

사슴가죽 신발을 가져오너라!”하였다. 김공은 즉시 앉은 자리에서 예전 신발을 벗고 새 신발로 갈아 신고는 벌떡 일어나 길게 읊하며 말하길 “장인어른의 문장은 실제로는 곤쟁이 젖 같습니다. 제가 칭찬한 것은 새 신발을 얻고 싶어서였을 뿐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나가버렸다. 유근은 경악할 뿐이었다.<sup>108)</sup>

이 글에서 등장하는 金公은 유근의 사위인 金鑾인데 仁祖 朝에 대제학을 지낼 만큼 문장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시화의 특성상 이야기가 매우 희화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일화를 통해 유근이 자신의 詩에 대한 칭찬을 매우 기꺼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인과 사위의 격의없는 사이를 반영하기도 한만큼 유근이 김류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나를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화를 통해 유근의 노력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유근은 峻壯·奇拔한 시를 추구하였으나 精緻함이 지나쳐 기력이 약해보이는 면모가 있었으며 유근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司馬遷의 『史記』를 열심히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소개할 일화 또한 유근이 자신의 시에 대한 칭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유근이 자신의 시에 대한 인정욕구가 매우 크며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李實之는 천성이 경솔하여 남의 인품을 잘 말하였다. 어느 날 나에게 柳晦夫는 수염 난 어린애라 하여,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이실지가 답하였다.“남이 어찌다가 자기의 글을 칭찬하면 비록 원수라 하더

108) “一日金所着靴弊，遂見西峒曰，願見丈人新作。柳出示一篇，金讀未半，肅然改容曰 小子間嘗妄謂丈人之文精而有餘而氣力差欠。今見此作，峻壯奇拔，鈍異前見。乃知小子前日知之知之猶有未盡也。柳大喜曰 信如此乎？吾近讀馬史，無亦其效耶？金曰 是必無疑矣。稱之不容口。坐久，故微露靴絨，柳見其破也 曰 郎何着弊靴而不言也？急喚婢子曰 取向日西帥所送鹿皮靴子來！金卽於所坐脫古着新，蹶起長揖曰 丈人之文 其實紫蝦醢，吾之陽讚者，欲得新靴耳！遂移出，柳愕然而已。”

라도 잊어버리고, 어쩌다 흠을 잡으면 마음에 기쁘지 않아 실망한 듯 합니다. 그가 행동함에 남이 자기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함 일이 더욱 심하니, 진정 수업 난 어린애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澄源이 옆에 있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자못 편협하여 부인네같소.” 하였다.109)

이실지는 『西垞集』에 실린 「彌申臥病，謝李實之來訪」이라는 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이실지라는 인물은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한 교유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유근이 병상에 있을 때 찾아온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종종 만나 교유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晦夫’는 유근의 또 다른 호이니, ‘유희부’는 바로 유근을 가리키는 말로, 이 일화 또한 앞서 살펴 본 『西浦漫筆』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유근의 이러한 자부심은 자신을 한껏 낮추어 겸손함을 드러낸 시에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나고 있다.

宗匠交承之際，奉還大硯，寄以小詩，卽故事云。

문단의 종장으로 서로 이어 갈 때에 큰 벼루를 받들어 돌려드리며  
짧은 시를 부쳐 옛일을 말하다.

月沙先我主文盟 월사께서는 나보다 먼저 문맹의 주인이셨고  
我老公今再秉衡 내가 늙어 공이 지금 다시 문형을 잡으셨네.  
大硯奉還完趙璧 큰 벼루로 조나라 벽옥처럼 온전히 돌려드리니  
續貂曾愧竊虛聲 일찍부터 헛된 명성 부끄러웠네

유근은 광해군 즉위 시부터 대제학에 임명되어 6월에 사임 상소를 올렸다.

109) 朴東亮, 「寄齋史草」, 『大東野乘』 “李實之性率爾, 善形容人品. 一日謂余曰 柳晦夫着髯兒也. 曰何謂也. 人或贊己之文. 則雖仇敵亦忘之. 若或疵賊. 則不悅於心. 若有所失. 其行事之際. 悅人譽己. 爲尤甚. 眞可謂着髯兒. 澄源在傍笑曰 此人頗偏暗似婦人.”

『光海君日記』에 따르면 광해군 1년 7월 1일, 대제학을 체차하고 7월 15일에는 다음 대제학으로 月沙 李廷龜를 삼았으니 이 시는 1609년 7월 즈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시의 옆에는 ‘己酉七月’이라는 詩作 시기가 첨부되어 있다. 이 시에서 유근은 ‘完璧’이라는 고사를 차용하여 전임 대제학이자 이제 후임 대제학이 된 月沙 李廷龜에게 그 자리를 온전히 넘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유근은 결국에서 자신의 명성을 ‘虛聲’이라 평하며 이정귀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유근의 文名이 당시에 매우 높았으며 유근 또한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는 『西浦漫筆』의 일화에서 나왔던 사위 金鑾에게 보낸 것이다.

癸亥春，北渚典文衡，以七絕一首，用泥金手書硯匣，送于北渚所。

계해년 봄, 북저가 문형을 잡아 7언절구 한수를 니금으로 손수 베투 갑에 써서 북저 있는 곳으로 보낸다.

冰玉爲名四十春 빙옥같은 장인과 사위라 이름한지 40년  
 在傍眞覺穢形神 곁에 있어 몸과 정신 때 묻은 줄 알겠구나  
 舊時丹石今持贈 옛날의 참된 마음 지금 전해주려하니  
 衣鉢相傳愧昔人 의발을 전하는 일 옛 사람에게 부끄럽네

‘癸亥’는 1623년으로 인조 즉위년이다. 金鑾는 호가 ‘北渚’로 인조반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인물이다. 『인조실록』 인조1년 3월 14일의 기록에는 김류가 병조참판에 제수된 사실을 기록하고 김류 대한 인물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기국이 고매하고 위풍이 호쾌하였으며 소시부터 문장에 능하고 또 병가(兵家)에 통달하여 당시에 중망이 있었다’고 하였다.<sup>110)</sup> 인조는 인재 등용 문제부

110)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4일 “鑾器局峻整，風儀豪爽，自少能文章，且達兵家，名重一時。光海時，不參廢母庭請，爲兇黨所忌嫉，至目以三清洞結義，幾陷不測。自是長在散地，杜門屏居，而以素有將望，其時亦擬元帥之薦。居常慨念時事，有扶樹彝倫之志，乃與李貴、申景

터 밤에 경보가 울린 뒤의 논의까지도 김류와 함께할 만큼 김류를 총애한 듯 보인다. 김류가 병조판서를 세 번이나 사임하였는데도 윤희하지 않았고 인조 1년 10월에는 김류에게 大提學, 元勳을 加資하였다.

김류가 대제학에 임명되고 유근은 매우 기뻐하였다. 한 집안에서 2대를 이어 대제학을 역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었고, 유근은 이 기쁨에 벼루를 선물로 보내며 니금으로 시를 썼으니 기쁨의 표현도 매우 특별했다.

이 시의 기구와 승구에서는 장인과 사위로 40년을 보낸 세월 동안 사위의 고매한 인품에 감격했음을 스스로에 대한 겸사로 표현하고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벼루를 선물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의발을 전해주는 일이 옛 사람에게 부끄럽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유근은 이렇듯 겸사로써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으나 여기에서 결구에서는 이전 대제학으로서 의발을 전해줄 수 있는 자신의 이력에 대해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근은 시로 명성을 얻어 외교 활동을 통하여 詩才를 분출하였고 그 능력 또한 널리 인정받아 여러 차례 중국과 일본의 사신과 수창하였다. 유근은 본인의 정체성을 황화시에 둘 만큼 스스로도 관각시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유근은 이렇게 국가의 대리자로서 문장을 짓는 외교 사절과 대제학이라는 위치에서 활약한 사실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유근은 당시 쟁쟁한 문인들이 많았던 만큼 문형이라는 자리가 스스로에게 정당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였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숨기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평가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겸손은 조선시대 文士들의 형식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근의 시에서 표현된 겸손은 스스로 문장에 대해 자부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조심스러워했던 흔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뛰어난 문인들을 제치고 문형을 잡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다.

---

禎、李曙等，合謀舉義，衆推以爲大將，遂成靖社之功。”

유근은 穆陵盛世의 뛰어난 문인들과 경쟁하면서 대제학이라는 중책을 맡아 본인 보다 더욱 이름난 문인들을 이끌고 나가야했기에 그 어깨가 더욱 무거웠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였으므로 공부를 더욱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류의 해진 신발과 관련한 일화에서는 유근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서 언급했던 “天才에 있어서는 西峯이 五峯만 못하고, 人功에 있어서는 오봉이 서경만 못하다.”는 宋時烈的 평과 相通한다.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노력한 만큼 유근은 문장으로서 인정받았으며 부여받은 임무 역시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유근의 자부심은 한눈팔지 않고 한 길만 보고 걸었던 그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官僚意識-愛國忠情과 責任感

유근은 철저한 관료문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유가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 유근은 국가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던 중,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자발적으로 인조의 피난 여가를 따라가다 목숨을 다하였던 그의 최후만 보아도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알 수 있다. 유근의 충성심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서 다져진 것이었으며 성찰을 통해 다져진 내면의 德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근의 생각이 다음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又賦九絕,漫興 또 9절을 짓는다. 흥에 취하다.

吾儒問學異禪家 우리 유가 공부 방법 선가와 달라서  
 動察恒資靜養多 움직일 때 살피는 것 항상 정양 자료 되네

九十武公猶自警 90세의 武公도 되려 스스로 경계하니  
用工如切又如磨 공부할 땐 자르고 갈아서 그릇 만들 듯 해야지

위는 유근의 「又賦九絕,漫興」 중 한 수이다. 시에서 나오는 武公은 춘추시대 衛나라 사람으로 95세의 나이에도 자신이 깨우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달라고 나라사람들에게 당부했던 제후였다. 이 시에서 유근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 바로 마음공부의 자료이며 ‘衛武公’의 사례를 통해 이 공부는 생을 다할 때까지 꾸준히 절차탁마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가의 공부방법이며 ‘禪家’와는 다르다는 말 속에는 유가철학을 몸소 실천했던 유근의 자부심이 담겨있다.

결구의 ‘如切又如磨’는 『논어』의 「學而」편에서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자공이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자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공자는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라고 대답하였다.<sup>111)</sup> 그러자 자공은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라고 하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일정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한다는 깨달음을 표현했다. 유근은 경서의 내용을 시어로 사용하여 스스로도 이와 같이 꾸준히 공부하는 삶을 살 것이라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詩經』에서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그치지 않았던 ‘衛武公’을 칭송하며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라 하였으니, 결구의 내용은 ‘衛武公’에 대한 설명이지만 ‘衛武公’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고 있는 유근의 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져진 유근의 덕성은 임진왜란의 발발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더욱 빛을 발하였다. 먼저 다루게 될 유근의 애국충정은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지어진 시에 자주 드러나고 있

111) 『論語』, 「學而」,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다.

奉次伯昭老兄韻 백소노형에게 차운하여 드리다.

艱虞今八載 전쟁의 어려움 올해로 8년 째  
收復荷皇天 하늘의 도움으로 나라 회복되었네  
萬死干戈際 창칼에 많은 목숨 죽어갈 제에  
餘生雨露邊 살아남은 이 목숨 임금님 곁에서  
相期歌擊壤 태평성대 격양가 부르기 바라  
何意賦歸田 전원에 돌아가자 어찌 시 짓나  
絕塞煙花晚 인적 없는 변방에 저물녘 봄경치  
家山客夢牽 꿈속에서 고향산천 객을 부르네

위의 시는 ‘전쟁이 일어난 지 8년’,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유근이 1599년~1600년 경 지은 시로 보인다. 1597년, 丁酉再亂의 발발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1598년 11월,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이 마무리 되었다. 1599년 2월, 실록에 의하면 전쟁 이후 명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주둔하게 될지, 이를 위한 식량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해 논의하며 ‘체찰사 유근’이 언급되는데 유근은 1599년 초까지만 해도 2년 전 임명된 체찰사로서 군량미 수송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 시를 지었던 때에도 유근은 체찰사로 근무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客’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보이는 시에도 임금에 대한 충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역시 倭亂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쓰인 시이다.

丁酉秋, 在三和之廣梁. 정유년 가을, 삼화군의 광량에서.

潮頭夜夜送行舟 강가에서 밤마다 배를 떠나보내니  
強半江華半義州 반은 강화로 반은 의주로 가네  
未死孤臣長北望 죽지 못한 못난 신하 오래 북쪽 바라보며  
海天秋月獨憑樓 하늘바다 가을 달 아래 홀로 누대에 기대본다.

이 시의 제목에 드러난 丁酉年은 일본이 협상에 실패하자 다시 조선을 침략을 감행한 해로 ‘丁酉再亂’이 발발한 때였다. 유근은 이 때 ‘體察使’로 임명되어 배에 군량을 실어 명나라 군대에 공급하는 중대한 업무의 책임자였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패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삼화군에서 군량을 싣고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는 작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유근은 스스로를 ‘未死’라 표현하여 겸손함을 비추는 동시에 아직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孤臣’ 또한 못난 신하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으로 ‘長北望’하며 조선의 임금을 지켜야하는 것이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유근은 절구에서 밝힌 것처럼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충절을 다시 한번 다지며 生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근은 임금에게는 忠을, 백성에게는 仁을 잃지 않았으며, 선조가 요구하는 임무가 어떤 것이든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충실한 관료였다. 선조는 이러한 유근을 매우 신임하였고, 임란 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근을 찾았다. 이 때문에 유근은 倭亂이 진행되는 내내 사신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여러 번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현장의 민심을 달래고 전쟁에 대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전전하였는데, 유근의 남다른 책임감과 노력으로 부여받은 임무마다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유근의 책임감은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임란 중의 군량 수송 업무와 관련된 일화가 유명하다.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은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수장인 임금의 피난이라는 치욕과 더불어 국토가 초토화되어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렸던 거대한 사건이었다. 1597년, 유근은 윤두수의 천거로 運餉檢察使에 서용된다. 명나라를 먹일 군량을 확보하고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리였는데, 명나라가 산동에서 의주로 옮겨놓은 군량을 바람이 거센 수로를 이용하여 옮겨야하는 험난한 일이었다.<sup>112)</sup> 명나라에서 의주에 보낸 군량은 해운을 통한 운송이 적절하였으나 선박 확보와 인력, 기후의 영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다. 명나라 군대는 1593년,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성에 있는 明軍을 평양으로 후퇴시켰던 전적<sup>113)</sup>이 있었기에 전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량 수송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유근은 밤낮으로 방법을 궁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공이 명을 반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심초사하며 두꺼운 판자를 써서 큰 배를 많이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둔해서 행선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자 공은 담하기를 후에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곡식을 50여척에 나누어 싣고 배마다 군관과 기고를 태우고 일제히 출발하였다. 이때는 벌써 한겨울이어서 강강이 거의 얼어붙었는데 명나라 장수는 날마다 사람을 보내 강가에서 살피고 조정 역시 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하루 50여척의 배가 조수를 타고 돛을 펴고 강을 거슬러 오르니 군관은 각기 깃발 아래서 서서 북을 울리고 각을 불어 일제히 선인을 독려해 강의 얼음을 깨뜨리고 차례로 용산에 정박하였는데 대개 배의 판자가 두꺼웠기 때문에 얼음에 부딪쳐도 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사람들이 비로소 탄복하였고 명나라 장수도 먼저 알고 군교를 보내 예궐하여 치사하니 선

112) 이숙경, 『한국인물사연구』15권, 「조선 선조대 유근의 대외관계 활동」, 2010

113) 『선조실록』 권35, 26년 2월 26일 신해. “禮曹判書尹根壽馳啓曰 當日臣到鳳凰城, 呈上書于經略, 則曰 大兵暫回平壤, 非實退兵也. 頃日, 住筍開城時, 馬死者幾萬餘. 且開城當賊退殘破之地, 又無草, 不可仍住, 不得已暫回平壤, 休息喂養, 待後軍之來. 卽進兵勦賊, 一半在開城防賊, 一半須還平壤者, 欲使咸鏡之賊, 聞先聲而不敢來也.”

조가 매우 기뻐하여 한 계급을 올려 포상하고 군관 이하에게도 등급에 따라 벼슬과 상을 내렸다.<sup>114)</sup>

유근의 諡狀에 있는 내용으로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공익의 『練藜室記述』에도 실려 있다. 이 일은 유근이 수행한 공무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할 받을만한 것으로, 내용 전개가 영웅담처럼 전개되어 있어 그 중요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근의 문집에는 운향체찰사로 근무 중에 지은 시가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運船去後，風雨大作，病中偶吟。

운선이 떠난 뒤, 풍우가 크게 일어나 병중에서 우연히 읊다.

極浦蒹葭白 아득한 물가에 갈대 하얗고  
遙空島嶼靑 머나먼 허공에 섬이 푸르네  
風高波洶洶 바람 높고 파도 세차게 일어  
雲黑晝冥冥 먹구름 한낮에도 어둡하다  
雨勢無端急 비 기운이 까닭 없이 급하게 쏟아져  
舟行幾處停 떠난 배는 몇 군데나 멈추어 설 건가  
殊方氣候異 먼 지방은 기후도 달라서  
九月有雷霆 9월에도 우레벽력 치고 있네

起聯에는 아득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먼 바다가 끝이 보이지 않아 마치 하늘인가 싶고, 그 곳에 떠있는 푸른 섬만이 바다의 경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運船을 걱정하느라 비 오는 중에도 서성거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있다.

114) 金昌協, 「柳根諡狀」, 『國朝人物考』 권15

頷聯과 頸聯에서는 시인이 걱정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거센 바람에 파도가 높고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하다. 기후가 나빠 군량을 실은 運船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후에 근심이 더해가는 작가의 푸념이 이어진다. 시의 아름다움은 뒤로 한 채,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걱정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시의 면면을 볼 때,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관료로서의 책임감이 잘 드러나고 있다.

1596년, 유근은 도성 방어에 중요한 거점지역인 충청도 관찰사로 파견되었다. 충청도는 아산만을 중심으로 수로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병참과 인력조달을 위한 배후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곳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력을 상시적으로 수탈당하여 민심이 극도로 이반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다. 이런 때에 유근은 호서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고 충청도의 군사 방비를 강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관찰사로 파견된 것이다. 유근은 민심의 수습을 위해 공납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파괴된 산성을 수축하고 포루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의 대가나 세족들이 유근의 무리한 징세에 반발하여 파직 요청을 하였고, 유근은 1597년 3월 체직되었다. 이 당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 두 편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公山北城舊無門，新作北門，設爲砲樓，以通江路，未及畢役而去。

공주산성에 오랫동안 문이 없어 새로 북문을 만들고 포루를 설치하여 강로에 통하도록 하였으나 부역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

一片公山錦水頭 한쪽 편이 공주산성 금강의 물가  
湖西控扼此咽喉 호수 서쪽 차지하니 바로 예가 숨쉬는 곳  
經營未半身先去 반 도 다 못 짓고 나는 먼저 떠나는데

尙有巍然百尺樓 높디높은 백척 누각은 아직 저기 있다네.

선조 35년인 1602년, 두 번째로 충청도관찰사가 된 유근은 공산성의 북쪽에 문이 없자 북문을 새로 중건하고 포루를 설치하기 위해 공산성 수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조 37년, 유근은 의정부 좌참찬이 되어 상경하게 되어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 위의 시는 이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15)</sup>

기구에서는 금강의 머리에 있는 공주의 지역적 위치를 소개하고 호서에서도 중요한 요충지임을 승구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인 공주이므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떠나는 유근의 아쉬움이 전구와 결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전구에서는 절반도 다 이루지 못한 공주산성의 수축을 뒤로한 채 떠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산성은 사람마냥 유근을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는 유근을 그대로 보내고 만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결구에서 산성의 누대는 여전히 그대로 서 있다는 표현은 아쉽다는 말이 한마디 없는데도 아쉬움이 똑똑 묻어난다. 특히 ‘先去’와 ‘尙有’라는 시어는 떠나는 유근과 남아있는 산성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대비시켜 그 아쉬움을 더욱 진하게 드러낸다. 이렇듯 유근은 맡겨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 柳成龍의 『西厓集』에는 임진왜란 시절, 유근의 활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기 감사 유근(柳根)을 시켜서 백성을 모아 진지를 짓고, 목책을 만들어서 도적을 방비하게 하고, 또한 나그네들로 하여금 머물러 자고 갈 수 있게 하였다. 그해 봄에 강원도와 양호의 곡식 종자를 옮기고, 황해·평안의 소를 모집하여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 유근이 지성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여 오게 하였다. 갑오년 가을은 풍년이 들었으

115) 김일환, 『한국인물사연구』제15호, 「임란기 서경 유근의 사환과 지방관활동」, 2011

므로 굶어 죽는 자가 차츰 드물게 되었다.<sup>116)</sup>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유근은 전쟁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애썼다. 진지와 목책을 지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포용하며 백성을 위로하여 국가 내부적 혼란을 수습해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유근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지성으로 하여 임란의 대응과 그 수습 시에 공로가 컸다. 특히 ‘根至誠勞來’라는 대목은 백성에게 정성을 다하였던 유근의 ‘愛民’정신까지도 아울러 볼 수 있다.

전쟁의 혼란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어려운 임무들을 받아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유근의 태도는 역시 그의 애국충정과 책임감의 발로였다. ‘창칼에 많은 목숨 죽어갈 제, 살아남은 이 목숨 임금님 곁에서 태평성대 격양가 부르기 바라 전원에 돌아가자 어찌 시 짓나.’<sup>117)</sup>라고 부르짖었던 그는 군주와 나라에의 충성, 격양가를 부르기로 약속했는데 전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결행할 수 없다는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였다.

이렇듯 유근이 국가와 임금을 위해 마음을 다 한 것은 바로 나라의 안정적인 발전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624년, 전쟁의 위기를 이겨내고 광해군의 거친 정치 행보도 저지된 인조 2년에 76세의 노년기를 보내던 유근은 국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한 편의 시를 남겨 조선의 안정적인 발전을 소망하였다.

---

116) 柳成龍, 『西厓集』, “又令京畿監司柳根。聚民作屯。設木柵以備盜賊。亦使行旅得止宿, 其春, 移江原道, 兩湖穀種。募黃海, 平安牛隻, 散給之, 根至誠勞來, 甲午秋穀熟, 人死者漸稀”

117) 柳根, 『西厓集』, 「奉次伯昭老兄韻」

甲子三月十八夜在舟中 갑자(1624) 3월 18일 밤, 배 안에서 짓다.

輕舟吹角沂龍灘 뿔나팔 소리 속에 가벼운 배 용탄을 거슬러 가는데  
潮滿風驅不覺難 물결 가득 바람 달려 어려운 줄 모르겠다  
獨夜孤臣瞻玉宇 홀로 남겨진 못난 신하 하늘 궁전 바라보니  
明朝佳氣向金鑾 밝은 아침 고운 기운 관각을 향해 있구나

이 시의 기구와 승구는 넘실대는 물결과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에 배가 빠르게 순항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장애물 없이 질주하는 배 속에서 유근은 이리도 순항하는 배의 모습에서 어려움 없이 발전해 나가는 국가의 모습을 연상한다.

전구에서는 孤臣으로 지칭된 시적 자아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본다며 임금에 대한 관습적인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유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결구에서 드러난다. 결구에서는 아침 해의 밝고 고운 기운이 ‘金鑾’을 향해간다는 것이다. ‘金鑾’이란 당나라 덕종이 지은 鑾殿의 줄임말로 보통 관각을 가리킨다. 관각은 국가의 통치기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임금 계신 곳을 상징하기도 하며, 임금 및 신하를 위시한 이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정치에서 물러난 유근은 관각에 대한 예찬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원 및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시 서두에서 가볍게 거슬러 올라가는 배 궤적이 바로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고 고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3년 뒤, 丁卯胡亂이 일어나 국가는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고 유근은 인조의 어가를 자진해서 뒤쫓다 목숨을 잃었다. 유근의 축복과 바람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나, 다시 찾아온 나라의 비극은 유근이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충절을 실천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는 최후까지도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막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유가적 사상을

실천하였던 관료로서 삶을 마감했던 것이다.

## 2. 個人 情感과 日常的 敘情

관료 시인으로서의 西垞 柳根은 국가의 대리자로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으며 대제학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문장을 대표하여 작성하는 등 문장력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 발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한 개인의 자부심 또한 컸으며 이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였고, 정당한 결과를 얻었기에 형성될 수 있는 자부심이었다. 유근은 전란이 지속되었던 나라에서 애국충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현안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시 속에 형상화하였다. 그의 애국충정과 책임감은 꾸준히 공부하여 얻어진 내면적 덕성으로 생애 내내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애썼던 면모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유근 또한 개인적인 삶이 있었기에 그의 시에는 공적인 인물로서의 한시 외에 유근 개인의 모습이 반영된 한시도 있다. 이런 시들은 유근이 자연을 바라보며 호연지기와 덕성을 길렀던 단편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란에 의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극복 방법을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근은 강서시파의 영향으로 송시풍의 鍛鍊과 精緻의 방법으로 시 짓기를 추구했으나 여러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당시풍의 감수성도 함께 수용하였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유근의 개인적 시적 성취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 높은 氣象과 節操

유근은 浩然之氣와 節操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호방한 기운의 시와 절조를 다짐하는 시를 다수 지어 이를 형상화하

였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늘그막의 절개가 어렵다.”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말을 듣고서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은 늙었는지라 내 몸에 이미 시험해보니 옛 사람들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혈기가 이미 쇠하였을 때는 재물을 얻는데 경제를 해야한다하셨으니 더욱 어렵다는 말씀이시다. 진실로 정해놓은 노력이 없다면 비록 당연히 경제해야함을 알면서도 누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밤새 자지도 않으면서 생각해보았는데 이익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다.”하셨으니 늙어서도 쇠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학문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는 도리는 무엇인가? 맹자께서 이전 성인들께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것을 확장하여 “나는 말을 알고,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라 밝히셨으니 늙어서도 쇠하지 않을 방법은 자신의 기를 기르는데 있지 않겠는가!<sup>118)</sup>

이 시는 「贈洪星州」시의 序文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근은 스스로에 대한 화두로 ‘만년의 절개’를 꼽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넘치는 의욕으로 충정과 절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지만, 만년에는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근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공자가 제시한 끊임없는 ‘學’의 자세를 취하였으며, 무엇을 공부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는 맹자의 ‘浩然之氣’를 취하였다. 즉, 유근은 맹자가 제시한 ‘浩然之氣’를 기르는 공부를 ‘學而時習知’<sup>119)</sup>의 자세로 삶의 매 순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만년까지도 節操를 잃지 않으리라고 결론짓고 있다. 『西垞

118) 柳根, 『西垞集』, 「贈洪星州」, 人有恒言曰 晚節難, 余少時得聞斯語, 不知爲何所指也. 余今且老矣, 於身固已試之, 古之人豈欺余哉. 孔子曰 血氣既衰, 戒之在得, 茲其所謂難歟. 苟無定力, 雖知當戒, 誰得以制之. 孔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以思, 無益, 不如學也, 老而不衰, 其必由學乎. 學之道奈何, 孟子擴前聖所未發曰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老而不衰, 其不在養其氣乎

119) 『論語』, 「學而」,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集』에는 유근의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시가 여러 편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유근이 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호연지기의 기상은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유근은 호방한 시를 짓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으며 그의 시의 호방함은 특히 자연을 노래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맹자는 무엇을 잘 하느냐는 공손추의 질문에 ‘나는 말을 알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sup>120)</sup>’고 답하였다. 이어서 맹자는 ‘浩然之氣’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공손추에게 ‘대답하기 어려우나 그 기(氣)됨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바르게 기르고 해를 가하지 않으면 곧 천지공간에 가득하게 된다<sup>121)</sup>’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근은 자연을 돌아보며 맹자가 말하였던 ‘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음에 기른 ‘浩然之氣’를 다시 시에 담아내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이황과 이이 등이 詩에 理를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유근은 시에는 氣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맹자가 말한 ‘浩然之氣’와 상통한다. 맹자는 ‘浩然之氣’를 설명하며 ‘其爲氣也，至大至剛，以直養而無害，則塞于天地之間<sup>122)</sup>’라 하였다. 맹자가 매 순간 호연지기를 기르는 문제를 큰 화두로 여겼던 것처럼, 유근 또한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가진 시를 접하여 시의 기운을 기르는데 힘써야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유근의 이런 호방함은 그의 산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연을 노닐며 호연지기를 길렀던 구체적인 사유와 감수성이 『重遊鴨綠江記』에 담겨있다.

압록강은 천하의 3대 강중 하나인데, 함경의 백두산 봉우리에서  
수원이 시작되고 나뉘어져 세 갈래 물줄기가 되는데 용만의 서해에  
유입되어 만나 넘실댄다. 이것이 이른바 압록강, 중강, 서강이 합하

120) 『孟子』, 「公孫丑上」, “公孫丑曰 敢問, 夫子, 惡乎長? 曰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121) 『孟子』, 「公孫丑上」, “敢問, 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122) 『孟子』 「公孫丑上」

여 하나가 된다는 것 이니 호호탕탕하여 끝이 없는 그 장대함이 조금도 손색이 없다. 내가 병자년 가을에 명나라에 사신의 임무를 받들어 갈 때였다. 비로소 용만에 도착하여 바로 이 곳에 배가 떠있는데 맑은 하늘이 거울과 같아 물빛과 하늘빛이 한가지였다.(중략)올해 봄에 또 이곳에 왔는데 부백인 부훤공이 나를 맞이하여 함께 목란배를 띄워 구룡연을 떠돌았다. 이날 밤엔 비가 조금 지나가 강가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예전의 풍경과 같이 조금씩 평화로운 느낌이 깃들어가고 있었다. 천하로 보면 큰 강이 셋이오, 우리 동쪽에서 보면 하나의 큰 강이 있는 것이다. 큰 강의 맑은 바로 중국의 땅이다. 변란을 맞이한 초기에 이 강의 상류에 임금의 가마가 머물렀던 것은 명 황제 가까이 있어야 구원병을 청할 길이 있기 때문이니, 이 강물이 국가가 회복하는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공자께서“물이여! 물이여!”라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에 국가의 억만년 한없는 업이 바로 이 강물의 길고도 원대한 속성과 같다고 한 것이리라.<sup>123)</sup>

이 글은 제목과 같이 압록강 경치를 다시 와 구경하며 쓴 글이다. 글의 서두는 압록강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며 강의 드넓음을 강조하였다. ‘浩浩蕩蕩’과 ‘厥大’는 함께 어우러져 물결이 넘실대는 드넓은 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풍경은 더욱 더 크다. 강은 거울처럼 맑아 드넓은 하늘의 빛깔을 그대로 강물에 품는다. 그러자 그 순간, 세상은 그저 하나의 색이 된다. 푸르름 한 가운데 떠 있는 일엽편주. 자연이 한없이 광대해지는 순간이자,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유근은 이어지는 단락에

123) 柳根, 「重遊鴨綠江記」, 『西峒集』, “鴨綠江即天下三大江之一也, 發源于咸鏡之白頭山頂, 分而爲三派, 流入于龍灣之西海, 每遇潦漲, 所謂鴨江中江西江合爲一. 浩浩蕩蕩無津涯, 厥大宜無與讓. 余於丙子之秋. 奉使朝天, 始到龍灣, 泛舟于此, 晴天如鏡, 上下一色. (중략)今年之春又來此. 府伯負暄公邀余, 共泛蘭舟沂迴九龍之淵, 于是夜雨纔過, 岸花始發, 方之去年景色, 漸有太平氣象, 自天下觀之, 大江有三, 自吾東觀之, 有此一大水, 大水之外便是上國地, 遇變之初, 駐駕於此水之上, 蓋以密邇天朝, 請援有路故也, 以此而爲國家恢復之基, 孔子有言水哉水哉, 以余觀之, 國家億萬年無疆之業, 正如此水之長且遠.”

작디작은 인간사가 강물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략된 부분의 내용은 바로 유근이 압록강에 어떤 일로 몇 번이나 왔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니, 사신의 임무를 띠고 여러 번 압록강을 건넜던 유근 개인의 역사이다. 유근은 자주 압록강을 찾았으나, 매번 막중한 임무를 지고 건넌기에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였다. 나라가 임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도록 훌쩍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압록강에 찾아온 유근은 負喧堂 吳祥(1512~1573)의 호의로 배를 타고 함께 압록강을 유람한다. 임무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강가를 떠돌던 유근은 넓은 강물도 바라보고 예쁜 꽃들도 바라보며 이제 다시 평화를 찾기 시작한 조선의 자연을 만끽한다. 이렇게 강물 위를 유람하던 유근은 커다란 압록강의 모습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압록강은 곧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생각에 미치자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며 강물의 원대하고 장구한 속성은 곧 국가 역만년의 업과 같다고 느껴워하는 것이다.

유근은 ‘압록’이라는 너른 강물을 묘사하면서, 이 강물이 곧 개인의 역사이자 나라의 역사가 되며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가 된다는 깨달음을 기록하였다. 유근이 묘사한 자연은 無常한 자연이지만, 결코 무정하지는 않다. 개인적인 恨과 국가적인 浮沈을 모두 끌어안고도 평화로이 흐르는 강물의 모습은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온갖 마음의 소용돌이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내적 힘이다. 이는 곧, 공자가 시경을 찬미하며 시의 모범으로 제시했던 ‘思無邪’의 경지인 것이다. 강물은 유근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끊임없이 ‘思無邪’를 실천해나가는 존재이기에 길고도(長) 원대(遠)하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였던 바로 그 水이며, 곧 유근이 닮고 싶은 水이다. 압록강은 그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仁’할 수 있기에 더욱 큰 것이다. 유근의 사유는 이토록 ‘浩然之氣’로 가득 차 있었다. 단편적인 글이기는 하지만, 이런 글이 나오기까지 유근이 자연을 바라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해왔을 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유근은 이렇게 키

워온 굳센 기상을 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送人出幸嶺東 영동의 수령으로 나가는 이를 보내며

嶺外分符看日出    부절 나누고 고개 넘어 해돋이 바라보면  
洛山金碧壓蓬萊    낙산의 금빛옥빛 봉래산도 압도한다네.  
何如萬二千峯頂    어떠한가. 일만 이천 봉우리 위에서  
俯視東溟若一杯    동해바다 내려다보면 한잔 술 같겠지.

「送人出幸嶺東」은 『西峒集』에 실린 칠언 절구시이다. 제목을 살펴보면 이제 명을 받아 영동의 수령으로 나가는 누군가에게 이별을 마음을 담고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부절은 신표로서 임금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러 감을 상징한다. 유근은 근무지로 향해 떠나는 이에게 ‘日出’을 바라보라 한다. 낙산을 물들인 일출의 색채감이 신선이 사는 봉래산을 압도할 정도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일만 이천 봉우리 아래에 펼쳐진 동해 바다가 술잔에 담긴 술과 같지 않겠느냐며, 거대한 자연을 한 손아귀에 들어오는 한 잔 술로 바꾸어버린 호방한 시상이 매우 흥미롭다. 유근은 길마다 다른 아름다운 풍경들을 제안하며 길을 떠나는 이에게 걸음마다 달라질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면서, 먼 길을 떠나는 부담감과 고단함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日出’과 ‘俯視’라는 시어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고 임금의 명을 받고 떠나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過天磨山 三首 中, 朴淵觀瀑 천마산을 지나며, 3수 중, 박연폭포

丙子曾遊地    병자년에도 이곳에서 놀았었는데

今垂四十霜      지금은 마흔 살이 되어 왔도다  
 飛流畫難似      나는 듯한 폭포수 그리기도 어려운데  
 誰識倒銀潢      은하수 뒤집힌 줄 알기나 할까

이 시는 천마산을 지나며 지은 시 중, 박연폭포를 주제로 삼은 것이다. 예전에 한 번 와서 노닐었던 곳이라 그 때의 추억이 고스란히 떠오르는데, 마흔이 된 지금 다시 한 번 찾아왔다. 예전에는 젊음이 한창이었으나 세월이 흐른 내 모습은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 흰 머리가 희끗해질 만큼 변해있다. 그러나 폭포수의 장대함과 날렵함은 예전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이다. 유근은 비상하듯 아름다운 폭포수가 그림으로 그려도 비슷하게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아름답게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을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폭포수가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은하수가 내려와 뒤집힌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결구의 내용은 폭포수에서 떨어져 날리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하늘의 별로 치환하여,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의 아름다움을 어둠 속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전구와 결구의 결합으로 인해, 장엄한 폭포수와 반짝이는 별들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눈앞의 광경을 더욱 신비롭고도 웅장하게 만든다. 이렇게 자연의 풍광을 더욱 크게 인식하도록 묘사하는 것이 유근 시의 특징이며, 그는 이렇게 커다란 자연을 자신의 사유 안에 모두 품고서 그 굳센 기상을 닮고 싶어 하였다.

유근의 문집에는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을 중심 소재로 하여 쓴 시가 많이 남아있다. 대나무와 매화 등의 자연물은, 물론 모든 한시 작가들이 흔히 주제로 삼아 많은 작품을 남겼던 시적 대상이기도 하였다. 유근의 시 또한 그 창작 동기를 다른 한시 작가들의 작품과 일직선상에서 생각하여, 관습적 소재로 정형화된 상징성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본다면 유근만의 독특한 사유 방식을 잡아낼 수 있다. 유근의 문장인 「霧峯集跋」에는 ‘절개’와 ‘詩’의 관계에 대한 유근의 개성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왕유와 저광희의 시가 우뚝하니 맑고 고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大節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안태사와 장중승은 그 大節이 진실로 더할 것이 없다. 두 공께서는 천부적인 자질이 매우 뛰어났으니 문예에 있어서도 어찌 남들보다 매우 뛰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시중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모두해서 불과 한 두 편에 불과하니 어찌 시가 있는데도 다 전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시 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 태사와 중승의 시 중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곤산의 편옥만도 못하나,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감탄을 그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떳떳함을 잡고 덕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니,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다.<sup>124)</sup>

이 글에서 유근은 大節이 없이 시적 완성도만 뛰어난 그룹과, 남아있는 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에 힘쓰지 않았으나 大節로 이름이 난 그룹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자는 '왕유'와 '저광희'를, 후자는 '안태사'와 '장중승'을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안태사는 당나라의 충신이자 서예가인 顏眞卿으로, 안녹산의 난 때 의병을 모집하여 반란군 토벌에 앞장섰으며, 반란을 일으킨 이희열을 찾아가 역적이라고 꾸짖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다.<sup>125)</sup> 장중승은 당(唐)나라 장순(張巡)으로, 안녹산의 반란 때 수양성(睢陽城)을 수비하였는데, 군량이 바닥나고 구원병도 오지 않자, 자기의 애첩을 죽여 군사를 먹이고 가죽 갑옷을 불에 구워 먹을 정도로 고군분투하였으며 성이 함락된 뒤에도 적을 꾸짖다가 살해당했던 인물이다.<sup>126)</sup> 장순은 한유가 「張中丞傳後敘」를 작성

124) 柳根, 「霽峯集跋」, 『霽峯集』, “王維, 儲光羲之詩. 非不翛然清遠也. 顧於大節何如耶. 顏太師, 張中丞其大節. 誠不可尚已. 二公天資甚高. 其於文藝. 亦豈不大過人也. 其詩之行于世者. 皆不過一兩篇. 豈有之而不盡傳也耶. 雖謂之不屑爲之可也. 噫. 太師, 中丞之詩. 流落人間者. 不啻若崑山之片玉. 而世之人重之. 詠歎不能已. 誠以秉彝好德. 人之所同然也.”

125) 『新唐書』卷192 「顏眞卿列傳」

하여 더욱 유명해진 인물로, 특히 한유가 이 글에서 ‘男兒死耳，不可爲不義屈’<sup>127)</sup>이라며 ‘大節’에 대하여 정의한 구절은 특히 널리 알려졌다.

유근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이들의 모습을 ‘大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시를 잘 짓는 것으로 유명해지기 보다는 시는 남긴 것이 별로 없더라도 大節을 실천하다가 죽임을 당한 안태사와 장중승과 같은 인물이 후대에 더욱 추앙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詩보다는 大節에 무게를 두었던 이 글을 통하여, 유근은 문장을 잘 짓는 시인으로서 알려지기 보다는 현실에서 大節을 실천하는 행동가로서 알려지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황화집’이 간행되었으니 그걸로 되었다며 본인의 생전에 문집 간행에 소홀하였다는 일화<sup>128)</sup>는 詩로 이름을 알리는 데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여러 역사적 사료를 통해 유근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면 大節의 실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실천력은 이와 같이 자기만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유근은 ‘大節’의 실천을 중시하며 ‘詩’로 이름을 남기는 데 연연해하지 않았지만 大節을 시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大節’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나 그 자연물을 그린 그림들을 가까이 두고, 자주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맑고 고원한 詩作보다 大節의 실천을 훨씬 중시하였던 유근은 大節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노래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에 표상을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자연물을 통하여 大節을 노래한 시는 매우 맑고도 청신한 분위기를 띠는 것이 특징이며 왕유와 저광의의 시를 설명하였던 ‘儵然清遠’이라는 용어와도 상통한다.

126) 『新唐書』卷192「張巡傳」, “巡呼雲曰南八，男兒死耳，不可爲不義屈。”

127) 『昌黎文集』, 「張中丞傳後敘」

128) 吳挺緯, 『西峒集』「西峒集跋」, “外王父晉原府院君西峒柳公嘗語曰 文人遺集之刊行，子孫事，吾不復望也，幸而皇華集一編在，後之知我者，觀此足矣，先母常誦此言而詔之”

題松潭四時畫簇 송담의 사계절 그림족자에 시를 짓다.

一樹梅花發 한 그루 매화나무 꽃이 필적에  
千山雪色寒 온 산에 쌓인 눈빛 시리도록 차  
短童驢在後 동자 아이 노새는 뒤에다 두고  
獨立澹忘還 가만히 갈길 잊고 홀로 섰노라

松潭은 宋楠壽(1537-1626)의 호로, 유근과 친분이 있었다. 송남수의 문집인 『松潭集』에는 附錄으로 「檢身要訣」이라는 글이 남아있다. 이 글은 ‘孝悌忠信’과 같은 성리학적 사상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글귀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송남수가 본인의 검속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데 이러한 면에서 유근과 상통하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화는 눈이 상징하는 찬 계절에 피어나기에 곧 大節의 상징이 된다. 시인은 길을 가다 매화가 피어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붉은 매화 뒤로는 시리도록 하얀 눈빛만 가득하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붉은 색과 하얀 색의 색채 대비가 특징적으로 차가운 눈 속에 핀 매화의 존재가 더욱 도드라진다. 매화에 매료된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시종들던 동자의 존재도 잊고 타고 있던 노새에서도 내려와 총총히 매화 앞에 선다. 눈빛을 배경으로 피어난 매화를 바라보느라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린 족자 속 선비의 모습은, 大節을 오롯이 마음에 새기느라 애쓰는 유근 자신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림 속 선비와 유근은 아마도 매화 너머에 존재하는 충신들의 정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題石陽正畫竹 석양정의 대나무 그림에 제하다.

宿昔江南面 예전의 강남의 모습들이

須臾筆下生    잠깐 사이 붓 끝에 살아났구나  
秋風吹雨斷    가을바람 불리던 비 그치고나니  
滿壁不勝清    벽 한가득 맑은 기운 이길 수 없네

石陽正은 종실로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규(李璆)의 증손인 이정(李霆, 1541~1622)을 말한다. 호는 탄은(灘隱)이며 석양정(石陽正)에 봉해졌다가 뒤에 석양군(石陽君)으로 올랐다. 이정은 특히 묵죽화에 뛰어나 조선 시대 3대 화가로 꼽히는데, 최립의 문집인 『간이집』의 「琅玕卷序文」을 살펴보면, 이정의 대나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

근래에 石陽正이 그린 대나무 그림을 보면 그야말로 逼真해서 이 세상에서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가 戰亂 중에 팔뚝을 부러뜨린 이후로 그 솜씨가 더욱 기막히게 되었으므로, 내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에게, “어쩌면 세상의 의사들처럼 팔뚝을 부러뜨리고 나서야 名醫가 된 모양이다.”고 농담을 한 적도 있었다.<sup>129)</sup>

최립은 이정의 대나무 그림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솜씨라고 하였는데, 대나무 그림이 이토록 유명하기에 이정은 당시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그린 대나무 그림을 자주 선물로 건네곤 했다. 최립의 글을 보면, 최립이 이정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최립과 끊임없이 차운시를 주고받았던 유근도 이정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정에게 대나무 그림을 받아 이에 題하여 시를 쓴 것으로 보인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이정의 그림솜씨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중국의 강남은

129) 崔崱, 『簡易集』, 「琅玕卷序文」, “近者石陽正所爲逼真, 殆世所稀見, 而自渠折臂後愈奇, 余嘗戲之曰 折臂而成醫, 俗之醫耶.”

대나무로 유명한 지역이다. 승구에서 유근은 강남의 대나무 그림이 이정의 붓 아래에서 순식간에 되살아난다고 하며 이정이 얼마나 재빨리, 그리고 사실적으로 대나무 그림을 그려내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구와 결구에서는 계절감과 촉각·시각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대나무 그림으로 인해 느끼는 청량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다. 가을바람은 비 갠 뒤의 맑은 공기를 더욱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며 대나무 그림의 ‘淸’, 즉 맑은 기운을 더욱 북돋는다. 얼마나 맑은지 그림이 걸린 벽이 온통 맑은 기운을 이기지 못할 듯하다는 과장법은 대나무를 사랑하는 맑은 흥취와 곧은 절개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

#### 風竹 바람결의 대나무

松枝遇風折 솔가지 바람 맞아 꺾여 지기도  
 竹樹隨風亞 대나무 바람 따라 휘어 견디네  
 等是傲霜姿 이들 모두 찬 서리에 오만한 자세  
 淸標孰高下 맑은 표상 어느 것이 더 높다 할까

역시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지은 시로 대나무의 절개를 소나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람 속에 서 있는 소나무와 대나무는 혼한 일상적 자연의 모습이지만 유근은 이를 시로 형상화하며 그 둘의 미묘한 차이를 매우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시의 기구와 승구는 바람에 대응하는 소나무와 대나무의 모습을 제시한다. 소나무는 바람을 만나게 되면 ‘꺾여지고(折)’, 대나무는 바람을 따라 ‘휘어져(亞)’ 상황을 견딘다. 전구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는 모두 다 차가운 서릿발에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두 자연물의 굳센 기상을 찬양한다. 그러나 결구에서 시인은 ‘맑은 표상’으로 따지면 둘 중 어느 것이 더 고원한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시인은 사실 제목에서 결구에 대한 대답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둘 다 찬 서리에 오만할 만큼 굳센 기상을 띠고 있으나 대

節의 표상으로서 더욱 고원한 존재는 바로 ‘대나무(竹)’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기구와 승구에서 소나무와 대나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서 알 수 있다. 소나무는 바람에 꺾여 자란다. 즉, 소나무는 거센 바람에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대나무는 바람이 부는 순간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잠시 휘어지더라도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곧은 그 모습을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折’과 ‘亞’의 차이인 것이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유근의 현실 대응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처 방식을 가지면서도 본연의 곧음, 즉 大節을 잃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중 의병 선발과 세금 감면 등의 매우 실리적인 극복 방법을 제시하였던 유근, 노구에 인종을 호종하는 일이 죽음을 앞당기는 일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였던 유근의 모습이 이 대나무의 모습 속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꾸준히 마음속에 ‘淸標’를 세운 유근이었기에 나라 안팎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大節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閑居詠物 한가로이 거하며 자연물을 읊다.

赤木連香葉 적목은 향나무와 같이 있고  
 黃楊倚杜沖 황양은 두충에 의지하나니  
 高標今寂寞 높은 뜻대 지금은 적막하지만  
 留待雪霜中 눈서리 내리기를 기다려봐라.

자연물로서 ‘高標’를 논한 또 한편의 시이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赤木과 黃楊이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며 색채의 대비가 잘 드러난다. 적목과 황양은 보잘 것 없는 나무의 상징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고 다른 존재에 기대어 자신을 높이 세운다. ‘連’과 ‘倚’라는 시어는 적목과 황양이 눈에

띄지 않게 은근히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높이 선양 으스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구에서 등장하는 高標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잘난 체 하지 않고 묵묵히 있을 뿐이다. 그러나 ‘雪霜’이라 표현된 어려움이 닥친 뒤에는 어떤 존재가 진정한 高標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눈서리가 날리는 매우 추운 날이 되어서야 高標는 똑바로 서서 이 위기를 버텨낼 것이다. 여기에서 적목·황양과 대비되는 高標는 직접 드러나 있지 않으나, ‘閑居詠物’이라는 제목을 통해 볼 때 ‘物’, 즉 적목·황양과 같은 자연물일 것이며, 앞서 유근의 시에서 만났던 대나무가 바로 이 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시에 의하면 시인에게 진정한 ‘高標’란 평시에는 으스대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이를 이겨내는 겸손하고 굳센 속성의 자연물이다. 유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료의 모습 또한 이러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시들은 모두 자연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화, 대나무, 소나무 등을 지조와 절개의 상징물로서 형상화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바람이나 눈, 서리 등으로 표현된 고난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굳센 기상을 자랑하며 굽히지 않는 존재이며 ‘淸標’로서 시인의 마음에 우뚝 서 있다. 이러한 경향의 시는 전반적으로 ‘세속을 뛰어넘는 듯 맑고도 고원함(儵然淸遠)’을 특징으로 하며, 大節을 실천하고자 하는 유근에게는 座右銘이 된다.

## 2) 戰爭의 아픔과 克服의 所望

유근은 생애 동안 여러 차례의 당쟁과 7년간 지속된 임진왜란의 상처가 반복되며 개인이 느꼈을 상처와 슬픔, 분노와 좌절감 등이 상당했다. 전쟁과 당쟁의 결과 백성들은 물론, 친우들의 죽음과 정치적 축출을 목도해야했던 것으로 모자라 개인적으로도 비운의 상황들을 자주 겪었기에 그의 시에는 자연스럽게 비장함이 드러난다.

又用前韻贈簡易 또 전운을 써서 간이에게 주다.

簿牒恒無暇 공무는 항상 겨를이 없고  
親知不在傍 친지는 아무도 곁에 없다네  
勞生爲物役 수고로운 삶 외물에 부림당해  
過隙送年光 말 타고 틈 지나치듯 한 해 보내네  
北望雲天遠 북쪽 보니 하늘 멀리 구름만 떠있고  
南留川路長 남쪽에 머물자니 물길은 머네  
孤燈照虛幌 외로운 등불 텅 빈 휘장 비추이는데  
金燼半銷亡 불뚱도 반 이상 녹아 없다네

이 시는 簡易 崔笠의 시를 차운하여 다시 최립에게 보낸 것이다. 起聯과 頷聯을 살펴보면 유근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지 잘 드러나 있다. 起聯에서는 먼 곳에 혼자 떨어져 공무에 쫓겨 바쁘게 일을 하면서,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지내는 서러움이 잘 드러나 있다.

頷聯에서는 기련에서 언급한 외로운 삶이 끝없이 반복되며 쏜살같이 또 한 해를 보내는 유근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頷聯의 내용에 따르면 유근의 삶은 어찌지 못하는 새에 금새 지나가 버린다. 좁은 틈사이로 말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는 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한 해 보내고 마는 삶인 것이다. 頸聯에는 무상한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풍경은 더욱 사람을 그림계 만든다. 북쪽으로는 구름 가득한 하늘만, 남쪽으로는 길게 뻗은 강물만 보일 뿐인 것이다.

尾聯의 내용처럼, 이렇게 세상 끝과 같은 곳에서 등불을 벗 삼아 견뎌 보지만, 어느 새 등불도 닳아 조만간 곧 꺼져버릴 듯 위태롭다. 이렇게 유근을 둘러싼 세상은 외롭고 황량하고 쓸쓸한 곳에서 의지할만한 친구하나 없이 해

야 할 일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次簡易韻 간이 시에 차운하다.

昔值龍蛇會 예전 용과 뱀이 만났던 해에  
西州久作家 서주에 오래 전 집을 지었지  
七年光景急 칠년 세월 급히 지나가고  
千里驛程賒 천리 역정은 멀기만 하네  
種種頭添雪 드문드문 머리는 하얗게 세고  
茫茫眼著花 침침하게 눈에는 눈꼽이 끼네  
傷時猶未死 시절에 마음상해 죽지 못하고  
贏得損天和 마냥 온 몸의 원기가 다 손상되네

이 시 역시 간의의 시에 차운하여 보낸 것으로 전쟁 중의 힘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起聯에서 ‘용과 뱀이 만났던 때’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이 용띠 해이며 그 다음해인 1593년 계사년이 뱀띠 해이기에 임진년과 계사년 사이 즈음,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를 말하는 것이다. 頤聯에서 전쟁의 시기인 7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하면서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千里길을 분주히 다녔던 자신의 신세를 토로한다. 頸聯에서는 희끗한 흰머리와 침침하여 좋지 않은 눈을 들어, 7년 세월에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늙음만 찾아왔음을 말한다. 尾聯에서는 더욱 비통한 심정이 엿보인다. 왜란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근은 이 때를 ‘傷時’라고 규정하며 매우 우울하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 모두 손상되었음을 토로하는데, 이는 유근의 육체적 한계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시대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장미가 가득한 이 시는 전쟁을 거친 한 인간의 파괴된

자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유근은 신희에게 보내는 시에서도 ‘풍토병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있다면서 ‘전쟁과 이별은 인간사를 날로 쓸쓸하게 한다’<sup>130)</sup>고 하면서 삶의 비장함을 곱씹으며, 전쟁 전 느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

유근이 이렇듯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는 그의 개인적인 아픔에도 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7년간의 전쟁은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으로도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게 된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1606년, 유근은 대제학 체직을 신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 안에는 유근의 개인사가 구구절절 담겨 있다.

신이 예로부터 신하로서 나라의 증책을 맡아 끝내 보전하지 못한 자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아닌 게 아니라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은 모르며 살줄만 알고 죽을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신은 죄가 극도에 이르러 재앙이 참혹하여 10년 전에 다섯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立後를 정하였습니다만 후사가 된 자가 또 죽었으므로 살아남은 자는 臣 뿐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얼마 남지 않은 위태로운 목숨으로 저녁에 곧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신에게 痰疾이 없더라도 장차 견디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신의 나이가 쉰 여덟이고 버들 같은 허약한 체질에 가지가지 노쇠한 증세가 점점 더하여 가는 데야 말해 뵈하겠습니까.<sup>131)</sup>

유근이 살았던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으므로 인간 유근이 느꼈을 개인적인 상처와 슬픔, 분노와 좌절감 등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

130) 柳根, 『西垞集』, 「寄申應教」 旅泊淹留瘴海天, 亂離人事日蕭然

131) 『宣祖實錄』, 선조 39년 9월 18일 甲申, 臣歷觀, 自古人臣受國重任, 而終不能保者, 未必不由於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耳. 況臣罪戾所極, 殃禍甚慘, 十年之前五子俱死, 已定立後, 而爲後者又死, 所存者臣身耳. 朝露危喘, 夕死是矣. 使臣無痰無疾, 猶將不支, 況今犬馬之齒, 五十有八, 蒲柳之質, 望秋先零, 種種敗證, 有加無減者乎.

는 전쟁과 당쟁으로 백성들은 물론, 친우들의 죽음과 축출을 목도해야했던 것으로 모자라 다섯이나 되는 아들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데다 양자로 데려온 조카마저 자신보다 일찍 죽게 되는 등, 가장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근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섯 아들의 죽음은 유근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유근의 체직 상소에 의하면 1596년 경 다섯 아들이 모두 사망하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데, 이 때는 시기적으로 倭亂 도중이었으므로 유근은 전쟁 중에 아들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유근은 현실세계에서 끊어진 인연에 대한 절절한 아픔을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다.

洒淚雨 칠월 칠석에 내리는 비

金井梧桐一葉飄 금정에는 오동나무 잎새 하나 날려 떨어지는데  
銀河烏鵲已成橋 은하수에 오작교는 이미 만들어졌겠지.  
香車洗盡天將曉 향기로운 수레 비에 씻겨 새벽 되려는데  
寶蓋飛時路不遙 수레 덮개 날아갈 제 길은 멀지 않다네  
隔歲佳期纔洒淚 1년에 한번 아름다운 때 눈물을 뿌려서  
滿空涼雨忽侵宵 하늘 가득 처량한 비 홀연 밤하늘 가득내리네  
世間遠別終難合 세상에 머나먼 이별 끝내 다시 만나기 어려워  
無限魂消鬢亦凋 끝없이 혼이 녹아 귀밑머리만 하얘지네

起聯은 우물 위를 떠다니는 오동잎 하나에 주목하여 시상을 열고 있다.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오동잎은 ‘一葉’인지라 쓸쓸함과 외로움을 상기시키고, ‘飄’라는 시어는 어쩔 수 없이 세상풍파에 흔들리는 인간사를 연상시킨다. 오동잎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물결 따라 몸을 맡길 수밖에 없

는데, 이는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생겨나는 세상의 비극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고 견디며 살아가야하는 존재에 대하여 무한한 悲感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悲感속에서 칠월 칠석을 맞이한 시인은 칠석의 오작교가 만들어져 견우와 직녀의 재회 자리가 준비되었음을 상상하고 있다.

額聯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를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칠월 칠석 전날에 내리는 비를 洗車雨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리는 비로 수레를 씻고 시간이 되어 날아오른 수레는 나는 듯 달려간다.

頸聯에서 시인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을 ‘佳期’라고 표현하였다. 1년에 한 번 있는 재회의 시간이기때문에 그 감격과 안타까움이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을 씻기기 위해 비가 내린다고 하였다. 다시 만났으나 또 헤어져야하는 현실 앞에서 비는 처량하기만 하다.

그러나 尾聯에 오면 그 처량함과 비통함이 더욱 짙어진다.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지만, 시인은 절대 다시 볼 수 없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렇게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遠別’이라고 표현하였다. 앞에서 수레가 가는 길이 ‘路不遙’라 하여 멀지 않다고 인식한 것과는 상반된다. 견우와 직녀는 만날 수라도 있기에 아무리 먼 길이라도 멀지 않은 것이며, 시인의 이별은 다시 볼 수 없기에 ‘멀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에 고통스러운 마음은 다음의 ‘無限魂消’이라는 시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고통에 한도 없이 혼이 삭는다’는 표현은 시인의 무한한 심적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듯 참혹한 경험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은 현실을 어둡게 전망하고 탈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했을 것이다. 유근은 이렇게 ‘상심의 시대’, ‘전쟁과 이별’이 반복되던 시대를 살며 우울하고 불안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극복의 방법을 찾아나갔다. 벗과 교류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방법이 하나요, 인간사로 인한 고통을 자연과의 합일을 통하여 세상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였다.

謹用前韻，寄冥觀老先生。二首

전운을 삼가 써서 명관노선생에게 부치다. 2수

家在湖西隔夢思 집은 호서에 있어 꿈 너머로 생각하니  
小庭移竹幾經時 작은 정원 대나무 옮겨 심어 몇 년이나 지났나  
世紛自古真難解 세상 분란 예로부터 해명하기 어렵고  
士俗如今不可醫 선비 속된 것 지금 같이 치료할 수 없다네  
膠漆交期餘此老 뿔 수 없는 인간관계 노년까지 기약하니  
雪霜心事保相知 눈서리 같은 심사 서로 알아 주네  
白頭磨琢應無負 흰머리로 공부하니 자부할 것도 없고  
更讀淇園衛武詩 다시 기원의 위무공 시 읽고 있겠지

暮年爲客自艱難 늙어서 객이 되니 세상사가 절로 힘겨워  
絕塞春風雨雪寒 변방의 봄바람에 눈비는 아직 차다  
病裏逢君曾握手 병들어 그대 만나 악수했었는데  
詩來勉我輒加餐 시가 보내며 내게 밥 잘 드시라 권하네  
何時楓岳成長往 어느 때나 풍악산에 긴 시간 찾아가서  
獨上毗盧縱大觀 비로봉에 홀로 올라 큰 세상 구경할까  
莫道浮生多聚散 뜬 세상 만남 이별 많다 말하지 마소  
龍灣咫尺接新安 용만은 지척이라 신안과 가깝다네

冥觀先生은 바로 尹安性(1542-1615)으로 이 시에서는 유근이 힘든 심사를 극복하는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첫 번째 시의 起聯에서는 갈 수 없는 자신의 고향집을 생각하며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는 허무함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頷聯에서는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 세상의 분란, 그 속에서 살아가

는 선비들까지 속된 모습은 모두 올곧은 선비가 함께 하기 힘든 상황들이었다. ‘士俗不可醫’라는 구절은 蘇軾의 「於潛僧綠筠軒」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나무를 통해 선비의 속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유근 또한 자신의 별장에 대나무를 옮겨 심으며 이로써 자신의 속됨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것이다. 그런데 먼 곳에서도 대나무를 대신하는 존재가 있으니 곧 이는 벗이다.

頸聯에서는 벗과의 땀 레야 땀 수 없는 친근함이 노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서릿발 같은 올곧은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존재가 있어 위안이 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위무공의 시를 읽으며 스스로의 덕성을 갈고 닦고 있을 벗에 대한 예찬이 들어있다.

유근은 이렇게 꾸준히 자신을 수양하는 벗을 바라보며 자신도 닦고자 한다. ‘90세의 武公도 되려 스스로 경계하니 공부할 땀 자르고 갈아서 그릇 만들 듯 해야지[十武公猶自警 用工如切又如磨]<sup>132)</sup>라고 했던 유근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벗이다. 유근은 이렇게 벗과의 교유를 통해 마음을 달래고 끊임 없는 수양으로 ‘世紛’과 ‘士俗’에 대처하였다.

두 번째 시에서 시인은 起聯과 頷聯에서 客愁를 토로하면서도 친구의 위로에 감사함을 전한다. ‘艱難’이라는 시어로 외부의 상황을 스스로도 힘들게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며 ‘絕塞’와 ‘寒’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외부상황을 제시하며 쓸쓸함을 더한다.

頸聯에서는 힘든 자신을 위로하고 챙겨주는 것은 오직 벗이 보낸 편지라 하며, 비로봉을 올라 ‘大觀’을 보고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尾聯에서 서로 사는 거리가 멀더라도 ‘大觀’으로 보면 가까운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자연의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서로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이별도 심각해지지 않는다. 잔다란 인간사가 浩浩蕩蕩하여 가없는 그 커다란 물결에 녹아드는 것처럼

132) 柳根, 「又賦九絕, 漫興」, 『西峒集』 “吾儒問學異禪家 動察恒資靜養多 九十武公猶自警 用工如切又如磨”



서 느끼는 그리움에 대한 감성을 단련된 시구로 짓되 당시의 풍격, 그 중에서도 盛唐의 풍격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玉峯集序」에서 유근은 ‘듣건대, 시를 쓰는 것은 氣를 위주로 한다.[蓋聞凡爲詩, 以氣爲主]’고 진술하며 송시와 당시의 우열을 떠나 기상이 굳센 시를 최고로 보는 개성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제학을 맡았던 유근은 송시와 당시를 포용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근은 스스로 당시의 감수성을 유지하면서도 氣格을 떨어뜨리지 않는 시 창작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물의 우수성 여부를 떠나서 漢詩史的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도전으로 볼 수 있다.

過荷衣舊宅 홍적의 옛 집을 지나며

水落山前路 수락산 앞으로 난 길에는  
荷衣學士家 하의 학사 홍적의 집이 있는데  
新阡今宿草 새로 난 길 지금은 잡초만 묵어  
寒食尙無花 한식인데 아직 꽃도 안 피었구나

荷衣는 洪迪(1496-1568)의 호인데 임진왜란 발발 직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목을 보면 유근은 홍적이 살았던 옛 집을 지나며 느낀 감정을 시로 읊은 것이다. 시의 기구와 승구에서는 홍적이 살았던 옛집의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수락산의 앞길에 하의 학사의 집이 있다고 하여, 오언절구의 짧은 글줄 속에 지명과 인명을 넣어 한 구, 한 구를 매우 단순한 구조로 만들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여 건조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구와 절구가 이어지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맞이하였던 옛 집이 매우 애상적이며 쓸쓸한 느낌으로 변모한다. 앞길엔 잡초만 무성하고, 봄이 한참 지나 벌써 한식인데 이 주변엔 꽃도 피지 않았다. 전구에서는 ‘新’과 ‘宿’의 대비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만큼 인적이 끊긴 쓸쓸함을 전달하고

있으며 결국에서는 ‘寒食’이라는 단어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전달해줌과 동시에 더욱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봄이 한창 무르익는 한식 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없다 하였으니, 대자연조차 현화하지 않는 잊혀진 벗에 대한 슬픔을 고조시킨다.

이 시는 특히 五言詩임에도 불구하고 시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큰 인명, 지명, ‘今’, ‘尙’과 같은 虛字가 활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명, 지명, 허자 등이 오히려 시의 격조를 높이면서도 그리움을 담았다. 유근은 이 시에서 내밀한 감수성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詩格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奉贈柳川 유천에게 드리다.

書來春去期相訪 편지에는 봄이 오면 찾아온다 기약터니  
却笑韶華不肯歸 우습구나, 봄빛은 왔건만 그댄 오지 않네  
桃萼漸紅梨雪爛 복사꽃 붉어지고 배꽃은 눈 온 듯 한창인데  
寂寥微雨掩柴扉 적막 속 가랑비에 사립문은 닫혀있네

柳川은 韓浚謙(1557-1627)의 호로, 제목으로 보아 한준겸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한준겸은 인조 1년에 유근과 함께 대제학의 물망에 올랐으며, 왕명으로 시집을 찬집할 때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었으니, 유근과 함께 관각문학을 담당했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한준겸의 문집인 『柳川遺稿』에는 유근의 『西峒集』과 마찬가지로 書簡文이 남아있지 않아 서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한준겸이 편지를 보내 봄날에 유근을 찾아보리라 약속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편지로 약속했던 벗은 봄이 왔는데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시인은 서운함을 드러낸다. 복사꽃과 배꽃은 봄철을 대표하는 꽃

으로 복사꽃은 점점 붉어지고, 배꽃은 눈이 내린 듯 만개하여 순백의 아름다움을 한창 뽐낸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은 적막하기만 하고, 오려는 손님을 방해하듯 가랑비마저 내린다. 어쩌면 이 가랑비는 한창인 봄꽃을 볼품없이 지도록 재촉하고 여름을 불러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시인이 사는 집 대문은 찾아오는 이 없이 여전히 닫혀있기만 하다.

찾아오지 않는 벗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적막하고 쓸쓸한 시인의 감성을 드러낸 시로, 한창인 봄꽃을 함께 즐기지도 못한 채 봄이 지나가버릴까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붉은 색과 흰 색으로 대비되는 전구의 색채감은 한창인 봄을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의 풍경은 약속한 친구를 기다리는 쓸쓸한 심사를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결국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아 닫혀있는 대문 안에 홀로 존재하는 이 순간, 간절히 누군가가 문을 밀치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순간이 문을 닫는 방식으로 역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 적막이 언제고 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긴장감 있는 순간인 것이다.

次徐君受韻 서군수의 운을 차운하다

已向三臺望 예전에 삼태성을 바라보려고  
 須從萬瀑過 모름지기 만폭동 찾아갔었지  
 洞深山勢合 골짜기 깊어 산세가 합쳐지는데  
 花落樹陰多 꽃은 지고 나무 그늘 짙어졌겠지  
 急雨今如許 소나기 지금 얼마쯤 내리겠고  
 飛泉復若何 폭포수는 다시 또 어떠한지  
 所思難可見 그리워도 다시 보기 어려워서  
 空著渡橋簑 공연히 도롱이 입고 다리 건너네

위의 시는 유근이 예전에 다녀온 萬瀑洞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만폭동은 금강산에서 이름난 폭포로 만폭동을 보러 금강산을 찾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경이라 한다. 골짜기 깊어 산세 합쳐지고 지는 꽃과 짙은 나무 그림자는 깊은 산속의 탈속의 느낌을 갖게 한다. 지금도 예전처럼 소나기가 내리는지 폭포수는 또 지금 그대로인지 궁금해 하며 그리워하는 유근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이 시에서의 압권은 바로 결구이다. 그리고 생각나지만 다시 찾아가보기 힘든 그 곳이기에 유근은 쏟아지는 빗물에도 도롱이를 입고 나가 다리를 건넌다. ‘空著’이라는 시어는 그리움을 달래려 애쓰는 시인의 절절함을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움을 담담히 이겨내기 위해 괜스레 빗속을 걷는 이 시는 유근의 감수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V. 문학사적 의의

西垞 柳根(1549-1627)은 명종 때에 태어나 선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선조의 총애를 받고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그의 長處는 漢詩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사신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황화시로 인정받았던 관료 문인이었다. 그는 己丑 獄事, 建儲議事件, 仁祖反正 등 내부적 혼란과 壬辰倭亂, 丁酉倭亂 등이 발발하였던 국가의 혼란기에 여러 역할을 도맡아 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남긴 업적은 그 전쟁 이후의 국가의 안정과 문예 재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문학사적 의의는 첫째, 외교 사절의 인적 체계를 확립하여 중국에 조선 문인의 홍보에 기여 했다는 점이다. 유근이 1606년과 1609년 두 차례에 걸쳐 김현성 및 차천로 등을 대동하였던 일로 제술관 대동이 정식이 되었다. 제술관은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구성되었기에 월접사로서 중국 사신을 접빈하였던 유근은 당대의 문사들을 종사관, 제술관, 능서관 등으로 선발하여 중국 사신에게 소개하거나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洪瑞鳳·許筠·金尙憲 등이 중국사신에게 이름을 알리고 文名을 떨쳤다.

두 번째,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에 앞장서서 전쟁을 거친 조선의 문화가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지번이 사신으로 왔던 17세기 초는 이전의 문예적 기풍이 제대로 계승·발전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사신들은 불에 탄 서적을 새로 구입해오거나 중국 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혜택을 조선에 전달하여 새로운 문예적 분위기를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세 번째, 대제학으로서 독서당 설치를 건의하여 국가적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유근은 광해군 즉위 후 대제학에 임명된 뒤 독서당 제도가 인재 양성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며 다시 부활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렇게 부활한 독서당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문인을 양성토록 하여 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에 뒷받침하였다.

네 번째, 조선 중기의 유일한 시선집인 『海東詩賦選』을 편찬하여 임란 이후 산일될 위기에 처하였던 조선의 시를 수습하고, 조선의 수준 높은 시세계를 중국에 소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조선 한시의 품격을 드높였으며, 개개인의 문집 작업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섯 번째, 古文의 독서를 공론화하여 조선의 문풍을 진작시켰다. 유근은 최립, 윤근수 등과 함께 韓愈로서 대표되는 古文의 독서를 주장하고, 古文에 근거하는 글쓰기를 지향하여 과거 시험에 매몰된 조선의 문장을 문예미를 느낄 수 있는 글로 승격시키고자 하였다.

여섯 번째, 唐詩와 宋詩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氣’라는 기준을 세워 시를 분석하는 개성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두 시의 장점을 모두 아우르곤 하였다. 유근은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은 관각파 문인이나, 唐詩에 뛰어난 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唐詩의 감수성을 포용하면서 목릉성세에서 여타 시인들이 이룬 모든 성과를 함께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그의 작품이 노력에 비하여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는 대제학으로서 조선의 모든 시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시도만으로도 의미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근은 개인적 文才를 활용하여 문장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였고 정치·외교의 분야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예활동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한 시대의 문장을 선도하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문예환경을 재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Ⅶ. 결론

西垞 柳根(1549-1627)은 선조·광해군·인조 3대 임금을 모셨으나 주로 선조 때 활발히 활동하였던 관료 문인이다. 여러 차례 외교 사절로 중국을 오갔으며 지방관 및 내직을 두루 맡아 壬亂의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倭亂이 종식된 1604년에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공식 문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문장을 지어 올려 그 문장력을 인정받았다.

유근은 해동강서시파로 분류되는 芝川 黃廷彧과 도학파의 巨儒인 退溪 李滉·高峰 奇大升을 스승으로 삼아 詩의 창작과 정치적 입장은 황정욱과 함께 하였고 이항과 기대승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절차탁마하며 내면의 덕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당색에 상관없이 여러 인사들과 교유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최립과의 교유를 통해 古文을 중시하는 입장에 의기투합하여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근은 관각에 종사하는 관료 문인으로서 ‘文以載道’의 문학관을 가지고 내용을 중시하되, 문학의 독자적인 가치는 인정하였다. 그리고 ‘道’의 개념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덕목으로 치환하여 관념이 아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편 강서시파의 영향으로 精緻와 鍛鍊 굳센 기상의 시를 쓰고자 하여 역사서와 한유의 글을 자주 읽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유근은 자신의 정체성을 황화시에 둘 만큼 관료 문인의 성격이 뚜렷하였으며 자신의 시에 대한 자부심과 인정욕구도 매우 높았던 인물이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전란의 아픔과 상실로 인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자연합일과 끊임없는 수양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연에서 굳센 기상과 충절의 표상을 찾아 자신의 내면에 담아두고자 하여 자기 수양을 이루고 시의 기상을 돋우었다. 또한 그의 시는 일상적인 정

감을 절실하게 드러내어 강서시파의 창작 방식 안에 당시풍의 감수성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유근은 다양한 공무를 맡아 자신의 문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7년간의 倭亂 이후 피폐해진 국가의 문장을 재건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비록 그가 남긴 문집이 소략하여 그의 모습을 온전히 그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남아있는 족적만을 가지고도 한 평생을 매우 성실히 살다 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의 사승관계를 살펴보면, 芝川 黃廷彧에게서는 문장가적 자질을, 退溪 李滉·高峰 奇大升에게서는 도학자적 자질을 배워 이를 다시 제자에게 계승토록 하였다. 문장가적 자질을 이어받은 北渚 金鑾는 인조 때 대제학으로 활약하였으며 도학자적 자질을 이어받은 淸陰 金尙憲은 胡亂의 위기 속에서 도의를 상징하는 이상적 모델이 되었다. 이렇듯 유근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문장·도학의 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그가 애써 이룩한 여러 공적들은 조선 후기 문예 부흥에 초석이 되어 조선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그가 남긴 제자들은 새 시대의 대표적 인물로 활약하였으니 그가 漢文學史에 남긴 족적은 충분히 고찰할만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資料

- 孔子, 『論語』
- 權近, 『陽村集』
- 金萬重, 『西浦漫筆』
- 金尙憲, 『淸陰集』
- 金昌協, 『農巖集』
- 奇大升, 『孤峯全書』
- 南龍翼, 『壺谷詩話』
- 孟子, 『孟子』
- 朴東亮, 『大東野乘』
- 朴世采, 『東儒師友錄』
- 白光勳, 『玉峯集』
- 成海應, 『研經齋全集』
- 申緯, 『警脩堂全藁』
- 申欽, 『象村集』
- 柳根, 『西垞集』
- 柳成龍, 『西厓集』
- 尹斗壽, 『梧陰先生遺稿』
- 李珥, 『栗谷全書』
- 徐居正, 『四佳文集』
- 宋時烈, 『宋子大全』
- 李宜顯, 『陶谷集』
- 李瀾, 『星湖全集』
- 李廷龜, 『月沙集』
- 李好閔, 『五峯集』

- 張維, 『谿谷漫筆』
- 崔岙, 『簡易集』
- 韓浚謙, 『柳川遺稿』
- 許筠, 『惺所覆瓿藁』
- 洪萬宗, 『小華詩評』
- 洪萬宗, 『詩評補遺』
- 『國朝人物考』
- 『朝鮮王朝實錄』
- 『周易全書』

## □ 單行本

- 강재철, 『한시문학의 이론과 비평의 실제』,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 윤재민, 『조선시대, 삶과 생각』, 「조선시대 문인 학자들의 문학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태학사, 1995

## □ 學位論文

- 김성언, 「한국 관각시 연구 : 고려 및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손유경, 「企齋 申光漢의 文學意識 研究 : 官人文學的 性格을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신복호,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전송렬, 「조선조 초기학당의 변모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최두식, 「한국사행시연구 : 14세기-17세기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 一斑論文

- 김갑기, 「목릉문원의 학당과 시적변이」, 한국사상과 문화 제 29집.
-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 연구 -영수합 서씨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1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 김일환, 「임란기 서경 유근의 사환과 지방관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김종서, 『한국한시연구』, 「芝川 黃廷彥의 삶과 시」, 2012
- 류승우, 『한국인물사연구』18호, 「서경 유근의 관계교유인맥과 인조반정세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류준경, 『국문학연구』, 「여성 망자(亡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록, 그 차이와 층위 -의유당의 < 숙부인이씨행록 >과 < 숙부인이씨유사 > 및 박윤원의 < 숙부인연안이씨애사 >를 검토함-」, 2016
- 박병련,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10호, 「조선중기 엘리트관료의 정치사상적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박영민, 『한국인물사연구』15호, 「유근의 문예활동과 시세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신영주, 『한문교육연구』, 「탁자시를 활용한 한자놀이 수업방안에 관한 제언」, 2017
- 이숙경, 『한국인물사연구』15호, 「조선 선조대 유근의 대외관계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장숙필, 『한국인물사연구』15호, 「서경 유근의 인물과 실천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조희창, 「호소지의 시문학 연구」, 한문고전연구, 2013

## Abstract

The most remarkable period in the history of Joseon Dynasty is the mourning period. During this period, many famous poets who used various styles have appeared and decorated the history of Chosun Dynasty. Seok Kyoung Liu Geun was also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Joongnung Grand Prix and widely known his name as a poem. In addition, under the two wages of the ancestors and the Gwanghae army, he spent 6 years in great scholarship, leading the country's sentence. But the situation is due diligence research on Liu Geun did not work well.

The internal politics of the mid-Joseon Dynasty was disrupted by fierce disputes, such as confusion between East and West. Externally, the outbreak of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the oil refugees led to the endangerment of the nation. Liu Geun was resolved them successfully every time a manor geupje in 24 years and the sentence starter as Saga reading skills have diplomacy with China and Japan. In addition, he was appointed as a provincial body, and he set a big ball to the inner guard who defended the people and defended the war.

At the age of 56, Liu Geun became a scholar and wrote public documents and selected poems to create poetry. And torture was attempted to resolve the situation through reading. When King Gwanghae doeja re-appointed as daejehak revived by suggesting to conduct Saga reading was abolished by Imran again.

Liu Geun Literature is the head of the Kwanhwasapa Literature and it is influenced by the teacher Hwang Jungwook, and the poetry trend of Kangseo Shifa can be found. Liu Geun, a Chinese literary historian, adored Han Yu, who emphasized torture, and pursued a strong style. Ryu Keun was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Kwanhwangs, and he was proud of himself because of his high level of diplomacy, and expressed his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bureaucrat. On the other hand, he suffered a great tragedy personally through seven years of war and expressed his desire to overcome it. In addition, he strives to develop his life and sentence by looking up nature, lifting his luck, establishing a symbol of fidelity.

Therefore, the contemplation of contempl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dense contemplation. In order to compile the poetry of Dong-in, the only poetry collection in the mid - Joseon period, the poems of Joseon were arranged. In order to compile the poetry of Dong-in, the only poetry collection in the mid-Joseon period, the poems of Joseon were arranged.